

2024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주요정책 부문)

2025. 2.

외교부

1. 평가개요

(1) 중점 평가방향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성과 및 효과 중심의 지표체계 및 가점 제도 운영
 - 계획·시행단계 대비 결과단계 평가비중을 40:60으로 유지 및 성과 지표 외 정책성과의 정성적 평가를 위해 정책 효과성 지표 운영
 - 소통 24 플랫폼을 통해 우수 정책성과를 선정하여 국민 체감도 정성평가 실시 (최대 0.5점의 가점 부여)
- 「핵심 민생과제」 선정·집중관리를 통한 성과 창출 견인
 - 민생토론회 참여 주제 등 국민과 밀접한 과제를 「핵심 민생과제」로 선정하고, 추진 성과에 따라 가점을 통해 과제 담당부서에 인센티브 제공
- 「협업과제」 운영을 통한 부서 간 칸막이 해소 도모
 - 자원 절감, 갈등해소, 행정 서비스 개선 등의 성과 창출을 유도하고 협업 성과가 우수한 부서에 가점 부여를 통한 인센티브 제공
- 전년도 미흡·부진과제에 대한 추적 관리 강화 및 개선 유도
 - 전년도 미흡·부진과제 8개에 대해 △연초 개선계획 수립 △반기별 점검 실시 △성과 개선 시 최대 1점의 가점 부여
 - 이를 통해 평가기간 중 해당 과제들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정책 성과의 개선을 유도
- 성과관리 제도의 공정성·투명성·완성도 제고
 - 과제별 평가에 대한 점수 및 평정근거 공개를 통한 객관적인 평가 시행
 -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을 통한 평가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

(2) 평가추진 개요

□ 평가추진 체계

○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구 분	구 성	기 능
자체평가위원회 전체위원회 (주요정책)	• 위원장 1인 • 위원 24인	• 성과관리 전략계획·시행계획 심의·의결 • 자체평가 계획·결과 심의·의결 • 상·하반기 성과관리 이행상황 점검 • 주요 문서 심의, 주요 정책사항 결정
주요정책부문 소위원회 (6개)	• 소위원장 1인 • 위원 3-5인	• 평가 대상 과제에 대한 자문 제공 • 평가 대상 과제 이행상황 점검 • 평가 대상 과제에 대한 1차 평가 실시
총괄평가위원회	• 위원장, 소위원장 6인, 기획조정실장^(내부)	• 1차 평가 결과 심의·검토, 위원회 운영 관련 논의

○ 평가지원팀 운영

구 분	운영지원 부서	기 능
평가지원 총괄팀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 자체평가 절차 운영 총괄 • 자체평가 계획 및 결과보고서 작성 • 성과관리계획 및 평가자료 총괄·취합 •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1소위	중앙아시아과	• 소위원회 운영 총괄 • 소위 자료 취합 • 평가지원 총괄팀 및 각 과팀(관리과제) 담당과의 연락 및 업무 협조 • 소위별 자체평가위원과의 소통
2소위	중동1과	
3소위	영토해양과	
4소위	교육운영과	
5소위	다자경제기구과	

□ 평가방법

- 56개 관리과제에 대해 각 소위별로 소관 과제를 100점 만점으로 평정, 편차 보정 점수에 항목별 가감점을 부여한 뒤 총괄평가위원회를 통해 최종 등급 확정(S, A⁺, A, B⁺, B, C⁺, C)

□ 평가대상 및 평가지표

○ 평가대상

- 56개 관리과제 담당 62개 외교부 과·팀

○ 평가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정방법(측정기준)
계획단계 (10)	계획수립의 적절성 (5)	▶ 전략·성과목표와 연계성, 관리과제 추진계획의 구체성 정성평가
	계획단계 소통·환류 (5)	▶ 성과관리계획 수립시 자체평가위원 등의 의견 반영 여부 정성평가
시행단계 (30)	정책추진 노력 (10)	▶ 관리과제 추진계획 대비 세부일정 준수율 정량평가
	중간단계 환류 (5)	▶ 상반기 자체평가위원 점검결과 검토의견 반영 및 미흡사항 개선 여부 정성평가
	변화 대응성 (15)	▶ 상황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 현장의견 수렴 노력 등 정성평가
결과단계 (60)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목표치의 적극성·달성도 (30)	▶ 성과지표의 대표성(상/중/하) 정성평가 ▶ 목표치의 적극성(상/중/하) 정성평가 ▶ 목표치 달성여부 정량평가
	정책효과성 (30)	▶ 당초 의도한 효과 발생정도 정성평가 ▶ 부수적 효과 정성평가 ▶ 향후 기대효과 정성평가
가점		▶ 정부과제 등 기여(정부업무평가, 정부혁신, 적극행정, 갈등과제), 핵심 민생과제, 협업과제, 국민체감도, 부진과제 개선

2. 평가결과

(1) 총 평

- '24년도 총 77개 과(팀) 중 62개 과(팀)의 56개 관리과제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주요 내용은 아래임.
 - S등급 2개(~5%), A⁺등급 12개(~25%), A등급 8개(~40%), B⁺등급 17개(~70%), B등급 8개(~85%), C⁺등급 6개(~95%), C등급 3개(~100%)로 나타남.
 - 우수(A⁺) 이상 과제는 △아프리카 국가와의 협력 강화(Ⅱ-4③) △상호존중에 기반한 한중관계 구현 및 동북아 역내 우호정서 증진(Ⅰ-4①) 등이며, 미흡(C⁺) 이하 과제는 △대 유네스코 외교 및 지식공공외교를 통한 글로벌 가치 실현에 기여하는 국가 이미지 강화(Ⅳ-1-②) △경제안보외교 역량 강화(V-2-④) 등인 것으로 평가됨.
- 총 56개 관리과제의 107개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달성도 분석 결과, 성과지표 목표치에 대한 평균 달성률은 99%로 전년대비 성과목표 달성률이 개선되었음.
 - 106개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충실히 달성하였으나, 1개 성과지표(「지식공공외교 사업(퀴즈온코리아) 평균 참여자수」: 달성도 94.4%)의 목표치는 달성되지 못했음.

	22년도	23년도	24년도
성과목표 달성률	95	95	99
총성과지표 개수	112	113	107
총성과관리 과제수	64	63	56

- 성과지표 「지식공공외교 사업(퀴즈온코리아) 평균 참여자 수」의 성과목표 미달성은 사업 예산 감소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등이 주된 이유로 분석되나, △퀴즈온코리아 후속 다큐멘터리 제작·방영(12.20) 추진, △신규 사업 대상지 선정을 통한 공공외교 사업 지평 확대 등 사업 효과성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었다고 판단함.

지표명	목표 (A)	실적 (B)	달성도 (B/A)	미달성 원인
지식공공외교 사업(퀴즈 온 코리아) 평균 참여자 수	217	205	94.4	○ 사업 예산 감소 - ('22) 447백만원 -> ('23)430백만원 -> ('24) 424 백만원 ○ 사업 대상지 확대 - 상대적으로 교류가 없었던 국가(적도기니, 파푸아뉴기니, 파나마) 등을 선정

(2) 주요성과

- ① 아프리카 국가와의 협력 강화(Ⅱ-4-③), ② 상호존중에 기반한 한중 관계 구현 및 동북아 역내 우호정서 증진(Ⅰ-4-①) 2개 과제는 우수한 성과를 보인 것으로 평가되었는바,
 - ① △2024년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한-아프리카 동반성장의 기반 마련 △활발한 고위급 인사 교류 등의 노력이 높게 평가되었으며,
 - ② △외교안보대화와 전략대화 개최 등 한-중 양국 간 교류 복원 위한 분위기 조성 △중국의 무비자 입국 허용 △ 중국 역사문화 왜곡 시도에 대한 단호한 대응 등이 긍정 평가됨.

(3) 개선·보완 사항

- ① 통일 한반도 비전 실현을 위한 외교적 여건 조성 및 해외 탈북민 지원(Ⅰ-1-③), ② 경제안보외교역량 강화(V-2-④), ③ 대 유네스코 외교 및 지식공공외교를 통한 글로벌 가치 실현에 기여하는 국가 이미지 강화(Ⅳ-1-②) 3개 과제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는바,
 - ① 한반도 통일 비전에 대한 국제사회 지지 확보를 위해 노력한 점은 인정되나,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주장에 대한 우리의 '평화통일론'을 부각시키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을 얻기 위한 노력이 더욱 배가되어야 하며, △보다 중장기적 비전 마련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다변화를 위한 국제협력을 주도한 것은 돋보이나, △지속적으로 민·관 협업을 확대하여 핵심광물 이외에도 전략적으로 중요한 여타 품목에 대한 경제안보 외교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경제안보외교센터 관련 對국민 홍보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
- 유네스코 집행이사국으로서의 활약은 높이 평가하나, △사도광산 추도식 관련 논란은 유감이며, △지식공공외교 콘텐츠와 관련하여 다양한 콘텐츠의 발굴이 필요해 보인다는 점 등이 개선·보완 필요사항으로 평가되었음.

(4) 평가결과 종합

관리과제명	자체평가결과 (평가등급명)
북 도발 대응 및 대화 재개 여건 조성을 위한 외교적 노력 강화(Ⅰ-1-①)	B
북한인권외교 강화 및 북한 정세·정책 협의 확대(Ⅰ-1-②)	B
통일 한반도 비전 실현을 위한 외교적 여건 조성 및 해외 탈북민 지원(Ⅰ-1-③)	C
한미동맹 기반 강화 및 한미일 협력 발전(Ⅰ-2-①)	A ⁺
북미 지역 내 친한 네트워크 구축 및 다변화(Ⅰ-2-②)	B
한미 안보협력 증진 및 현안 관리(Ⅰ-2-③)	A ⁺
한·미 안보협력 증진을 위한 주한미군 지위협정(SOFA)의 원활한 운영 및 안정적 현안 관리(Ⅰ-2-④)	B ⁺
공동 이익과 미래 발전에 부합하는 새로운 한일관계 구축(Ⅰ-3-①)	B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와의 협력 강화(Ⅰ-3-②)	B ⁺
한일중 3국 협력의 제도화·내실화 및 인도·태평양 지역협력체와의 협력 강화(Ⅰ-3-③)	A
상호존중에 기반한 한중관계 구현 및 동북아 역내 우호정서 증진(Ⅰ-4-①) ^(협업)	S
중앙아시아 5개국 및 몽골과의 협력 강화(Ⅰ-4-②)	A ⁺
해양 동남아 국가와의 협력 강화(Ⅱ-1-①)	A
대륙 동남아 국가와의 협력 강화(Ⅱ-1-②)	B ⁺
아세안 지역협력체와의 협력 강화(Ⅱ-1-③)	A
남미 국가와의 협력 강화(Ⅱ-2-①)	B
중미 국가와의 협력 강화(Ⅱ-2-②)	B ⁺
카리브 지역과의 협력 및 대중남미 경제 네트워크 강화(Ⅱ-2-③)	B ⁺
서유럽 국가와의 협력 강화(Ⅱ-3-①)	C ⁺
중유럽 국가와의 협력 강화(Ⅱ-3-②)	B ⁺
유라시아 국가(러시아·벨라루스·코카서스3국)에 대한 맞춤형 외교 추진(Ⅱ-3-③)	C ⁺
중동 국가와의 협력 강화(Ⅱ-4-①)	B
걸프 마그레브 지역 국가와의 협력 강화(Ⅱ-4-②)	A ⁺
아프리카 국가와의 협력 강화(Ⅱ-4-③) ^(협업)	S
국제 평화안보 증진 등 유엔과의 협력 강화(Ⅲ-1-①)	A ⁺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Ⅲ-1-②)	B ⁺
전략적 원자력 외교 추진(Ⅲ-1-③)	B ⁺

관리과제명	자체평가결과 (평가등급명)
사이버·테러 등 안보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Ⅲ-2-①)	B ⁺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에 걸맞은 군축·비확산 외교 추진(Ⅲ-2-②)	A
국제평화와 안보를 위한 수출통제·제재 외교 추진(Ⅲ-2-③)	C ⁺
조약 체결을 통한 국익 제고 및 국제협력 기반 강화(Ⅲ-3-①)	A
국제법을 통한 외교정책의 법적 기반 강화로 당당한 외교 실현(Ⅲ-3-②)	B ⁺
독도 영유권과 해양권익 수호를 위한 국제법적 기반 강화 및 인식 제고(Ⅲ-3-③)	B
글로벌 가치 실현을 위한 선진적·전략적 국제개발협력 추진(Ⅲ-4-①) ^(협업)	C ⁺
우리 외교정책에 부합하는 현장 중심의 효과적 개발협력 추진(Ⅲ-4-②)	A ⁺
글로벌 과제 해결에 기여하는 다자개발협력 추진 및 인도적 지원 강화(Ⅲ-4-③)	A ⁺
통합적 공공외교 체계 공고화 및 다양한 공공외교 참여자와의 협력 강화(Ⅳ-1-①) ^(핵심민생)	C ⁺
대 유네스코 외교 및 지식공공외교를 통한 글로벌가치 실현에 기여하는 국가 이미지 강화(Ⅳ-1-②)	C
소프트파워를 활용한 공감형 문화외교 확산(Ⅳ-1-③)	B
우호적 전략 환경 조성 및 정책 공공외교 역량 강화(Ⅳ-1-④)	B ⁺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전략적 공공외교 추진(Ⅳ-1-⑤)	B ⁺
글로벌 중추외교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연수 및 아웃리치 강화(Ⅳ-2-①) ^(협업)	A ⁺
외교·안보정책, 주요 외교사안에 대한 연구 및 학술교류(Ⅳ-2-②)	A ⁺
해외 사건사고 예방·대응 시스템 공고화(Ⅳ-3-①) ^(협업/핵심민생)	A ⁺
국민감동 영사정책 추진(Ⅳ-3-②)	B ⁺
여권업무 선진화(Ⅳ-3-③)	A ⁺
G20 등 다자경제협약체 논의 참여 및 대응 강화(Ⅴ-1-①)	B ⁺
경제협정 체결 및 관련 국제규범 논의 참여·대응(Ⅴ-1-②)	B ⁺
지역 경제공동체와의 협력 강화(Ⅴ-1-③)	A
동아시아 국가와의 경제협력 확대(Ⅴ-2-①)	C ⁺

관리과제명	자체평가결과 (평가등급명)
북미 국가와의 경제협력 확대 및 수입규제 대응(V-2-②)	A ⁺
유럽지역 국가와의 경제협력 확대 및 우리 기업지원 경제외교 강화(V-2-③)	B ⁺
경제안보외교 역량 강화(V-2-④)	C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후외교 강화 및 동북아 환경협력 제고(V-3-①)	B ⁺
다자환경분야 국제 협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환경외교 추진(V-3-②)	A
핵심·신흥기술 주권 확보를 위한 과학기술 외교 강화(V-3-③)	A

3. 관리과제별 세부 평가결과

1	북 도발 대응 및 대화 재개 여건 조성을 위한 외교적 노력 강화	B
평가결과	잘된 점	○ 북한의 우크라이나 참전과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이라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북한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한 국제공조 노력이 돋보임. ○ 북한의 지속적이고 가중된 도발 및 도발 위협에 대한 경각심을 국제사회에 불러일으키기 위해 적절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평가됨. ○ '북한 비핵화' '북핵 불용'을 위한 국제공조 노력은 평가 ○ 한미일 고위급협의 정례화 등 대북한 억지력 공고화 ○ 담대한 구상 중 억제와 단념 분야에 성과가 있다고 판단함. 특히 북한 핵억제 대응을 위한 한미 간, 한미일 3국 노력이 확인됨. ○ 북한의 도발에 대한 다양한 대응, 평가할 수 있음. 동시에 이러한 대응의 초점은 외교적 측면(군사적 측면이 아닌)에 집중될 필요
	개선 할 점	○ 12.3. 비상계엄과 이후 한국 내 탄핵 사태로 인해 파생된 한미 동맹 관리와 북한 비핵화 외교전략 이행에 애로가 예상되는바, 올 연말부터 내년까지 변화된 환경에 잘 대응해야 할 것임. ○ 단지 북한 비핵화 담론이 국제사회에서 그 동력을 상실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담대한 구상 등 한국의 비핵화 담론을 더 적극적으로 발전 시키고 새로 개발하여 국제사회에 알리는 노력이 더 필요해 보임. ○ 억제 단념 대화의 총체적 접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성과는 미흡. 특히 대화는 전혀 이루어지지 못함. ○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변화 가능성에 신속 대응. ○ 대화 노력이 상대적으로 더 필요함. 각급에서 대화 노력이 억제와 단념과 비교할 때 적극성이 제한됨. 특히, 이견이 매우 크지만, 중국과 대화 노력이 보다 경주될 필요가 있음. ○ 러-우 전쟁에도 러시아와의 대화를 확대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여전히 제한됨. 러-북 밀착을 결과적으로 막지 못함. ○ 자체평가 보고서 내의 일부 평가는 너무 자의적임. 가령, 한중일 3국 정상회의 공동선언의 비핵화 관련 평가 부분(5쪽) ○ 북러협력 강화에 대한 '강력한 외교적 대응조치' 구체화 필요. 동시에 대북 압박강화가 군사적 충돌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비 필요

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수립의 적절성	4.42/5	○ 3D 외교 일관 추진 등이 우수했음. ○ 적절한 계획을 수립했으나, 비핵화 담론 개발에 대한 계획이 다소 미흡 ○ 대체로 적절 ○ 구체성이 있고 적절함. ○ 대화 노력이 전년도에 비해 확대되도록 계획됨.
	1-2. 계획단계 소통·환류	4.42/5	○ 아세안 막후교섭 노력은 평가하나 여전히 비핵화에 대한 홍보는 더 강화해야. ○ 적절한 노력이 개진된 것으로 보임. ○ 대체로 의견 반영 ○ 적절함. ○ 평가위원 의견을 충분히 인지한 계획이 수립됨.
	2-1. 정책추진 노력	9/10	○ 대북 제재와 관련해 우방국과의 공조 노력이 일관되게 수행되었음. ○ 계획한 일정을 맞추려 노력을 개진함. ○ 세부 일정 추진 등이 충실함. ○ 중국, 러시아와 대화 노력이 여전히 제한됨.
	2-2. 중간단계 환류	4.17/5	○ 한중간 북핵 외교 강화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 ○ 적절한 노력을 기울임. ○ 적절히 검토의견 반영 ○ 북한의 러-우전쟁 파병에 대한 대응이 제한됨. ○ 북러협력 강화에 대한 대응 아쉬움.
	2-3. 변화 대응성	13.33/15	○ 북한 비핵화에 대한 국내 여론을 지속적으로 환기하였으며, 한미일 공조 성과과 뚜렷함. ○ 러북 밀착이라는 변수에 적절히 대응한 것으로 보임. ○ 적절히 대처 ○ 상황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함. ○ 러북 밀착에 대한 대응? 트럼프 당선에 대한 대책? ○ 북러협력 강화에 대한 대응의 충분성?
	3-1.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목표치의 적극성달성도	26.33/30	○ 적극적 목표를 세움. ○ 대표성 있는 성과지수 ○ 주요국과의 협의 추진, 국내외 지지 확보 적절

			○ 대북정책 지지 확보 적절 ○ 통상적 기대 수준 상회 ○ 정책목표 충실 반영 ○ 전년도 대비 계획 측면에서 적극성이 확인되지만, 여전히 실행 단계에서 대화 노력이 일부 부재함. ○ 러-우 전쟁 북한 파병, 트럼프 당선 등에 대한 동 과 관련 노력이 제한됨.
	3-2. 정책 효과성	26.33/30	○ 북한의 사이버 도발에 대한 대응 노력이 정책효과로 더 이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음. ○ 비핵화 담론 보강 및 개발 노력이 더 효과를 봐야 할 것 같음. ○ 러북 군사적 밀착을 저지하지 못함. ○ 비핵화 진전 없음, 미사일 발사 빈도는 줄었음. ○ 기대효과 발생함. ○ 효과 지속 가능 ○ 한미, 한미일 대북 공조는 적극적으로 진행되었지만, 중국-러시아 등과의 협력은 제한됨. 실질적으로 북핵 고도화를 억제하는 데 한계가 노정됨. ○ 의도한 효과- 북러협력 강화 방지의 아쉬움.

평가결과	잘된 점	○ 다자무대에서 북한인권 국제공론화 확산한 점이 두드러짐. 한반도 상황에 맞는 북한 담론 주도 ○ 북한인권 관련 외교는 2024년 한국 외교에서 가장 도드라지는 부분 중 하나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음. 아울러 국제사회의 관심이 증가하는 효과를 볼 수 있었음. ○ 북한 인권 외교 강화를 위한 노력은 대체로 적절한 것으로 평가 ○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 인식 제고 ○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이 확인됨. ○ 북한 인권 관련 활발한 아웃리치		
	개선할 점	○ 납북자/북한포로 해결이 시급한 과제인 만큼 지속적으로 관련 외교노력 펼쳐야. ○ 국내 정치적 변화와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관련된 북한 인권 외교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화에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함. ○ 북한 정세 및 정책 협의는 우방국과는 대체로 활발하게 잘 되고 있으나 중국, 러시아, 글로벌 사우스 지역의 국가 및 연구자와의 소통-대화 노력이 더욱 경주되는 것이 바람직함. ○ 실질적인 대북한 압박 효과 거양 ○ 선제적 북한 정세 분석을 제공했다고 주장하지만, 6월 러북 동맹조약 체결 및 밀착 등에 대한 사전 판단이 부재했다고 판단함. 동 과에서 북한대외정책 관련 심층 분석을 수행할 만한 역량이 충분히 있는지 검토가 필요함. 동 분석은 단일과 혹은 부가 아닌 다양한 영역에서 포괄적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이와 관련한 노력을 확인되지만, 정확한 성과 평가는 제한됨. ○ 북한 관련 자료나 DB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가령, DB 구축 자체에 그치지 말고 정부 부처와 공조하고 보완하며, 또 서울에 있는 외국공관을 위시한 행위자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도 고려할 필요)		
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수립의 적절성	4.5/5	○ 주요 외교협의회시 대북 인도적 문제 지속적으로 환기/학계 시민사회 의견 반영 ○ 적절한 계획 수립 ○ 대체로 적절 ○ 과제 추진계획의 세부일정이 구체적임. ○ 북한 인권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동 과의 업무가 인권에 지나치게 치중된 것으로 판단됨.	

	1-2. 계획단계 소통환류	4.75/5	○ 북한인권 외교활동 대국민 홍보와 인식 제고 노력 평가함. ○ 적절한 소통 노력 개진한 것으로 보임. ○ 매우 적절 ○ 적절함. ○ 전반적으로 소통이 이루어짐.
	2-1. 정책추진 노력	9/10	○ 올 1월부터 연말까지 다양한 국제회의나 세미나 등 지속적으로 외교적 노력 경주 ○ 대체로 일정에 충실했던 것으로 보임. ○ 대체로 충실함. ○ 계획된 7개 사업을 충실히 수행함. ○ 일정이 준수되었으나, 인권과 북한 정세에만 치중됨.
	2-2. 중간단계 환류	4.42/5	○ 국제사회에서의 북한 인권 동향 적시 파악했음. ○ 적절한 노력 개진 ○ 적절함. ○ 적절히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인권과 북한 정세로 귀착됨.
	2-3. 변화 대응성	13.83/15	○ 북한 정세의 변화에 맞게 잘 대응함. 북한군 우크라 파병에 따른 인권적 요소 등도 잘 가미함. ○ 비교적 적절한 노력 개진. ○ 적절함. ○ 과제 추진 과정에서 의견 수렴을 하는 등 적절하게 대응함. ○ 러북 밀착, 트럼프 당선 등 변화를 식별하였지만, 전체적인 대응은 일부 수동적으로 판단함.
	3-1.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목표치의 적극성달성도	25.67/30	○ 적극적 목표치 ○ 성과지표의 대표성 높음. ○ 북한인권강화 목표 대체로 달성 ○ 북한정세 정책 분석을 위한 협업 대체로 적절 ○ 목표치를 달성함. ○ 성과지표의 대표성이 있음. ○ 작년 대비 개선-보완 상황이 확인됨. ○ 과 업무가 특정한 두 사안에만 국한되어 성과가 제한됨. ○ 달성도- 달성; 적극성- 중; 대표성-상 ○ 적극성: 글로벌 사우스 아웃리치의 결과 도출하는 적극성 필요

	3-2. 정책 효과성	26.33/30	○ 북한주민 인도적 지원의 간접적 방법이라도 찾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제도화를 위한 노력을 조금 더 기울여야 할 것 같음. 이러한 노력을 통한 향후 기대효과를 도모해야 함. ○ 북한 인권향상을 위한 국제공조 체제 확보 ○ 정세분석을 위한 공조 취약지역으로도 더욱 확대 노력 요구됨. ○ 북한 도발 대응 국내외 공조 효과 발생 ○ 국제사회지지 확보 성공. 비핵화 실현은 난항 ○ 자체 추진 DB가 어느 수준인지 확인이 안됨. ○ 인권과 정세분석에 국한되어 부수적 및 기대효과가 제한됨. ○ 인권외교/아웃리치의 절반 정도가 미국과 일본 등에 치우쳐 있음.
--	----------------	----------	--

평가결과	잘된 점	○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관계 주장에 대응해 한반도 통일비전 국제사회 지지 확보한 점 평가함. 해외 탈북민 대상 의료와 심리, 진로 지원 강화 ○ 한반도 통일에 대한 비전에 대한 국제사회 지지 확보를 위해 어려운 국제, 국내적 환경이지만 일정 노력을 기울였다고 평가됨. ○ 해외 탈북민 안전보호 및 신속한 국내 이송 노력 적절히 이루어짐. ○ 9.19 군사합의 관련 정부 입장 적극 전파 ○ 8/15 통일 독트린 홍보,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등에 대한 대응이 전반적으로 잘 이루어졌다고 평가함. ○ 통일비전의 적극적 홍보, 탈북민 이송을 위한 다각적 노력		
	개선할 점	○ 한국의 평화통일 토력이 12.3. 계엄사태 이후 국제사회에서 부각되기보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만큼 남북관계의 현주소와 한국 정부의 평화통일 외교전략 전개를 더 적극적으로 알려야 함. ○ 통일부, 민주평통, 지자체 (특히 서울시) 등과의 협업을 통한 시너지 창출에는 더 노력을 기울일 수 있어 보임. 다양한 통일 공공외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통일 관련 전문가 회의 외에도) ○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주장에 대해 우리의 '평화통일론' 노력 부각 및 호응 유도가 국제사회의 공감을 얻기 위한 노력이 더욱 배가되어야 함. ○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에 대한 공세적 대응 ○ 한반도미래정책과라는 명칭에 걸맞게 보다 중장기적 비전 마련을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임. ○ 업무 초점이 북한 도발 억제에 집중되어 있음 - 통일 한반도 비전 실현과 부합시킬 필요성		
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수립의 적절성	4.42/5	○ 해외 탈북민 보호 및 안전 국내 이송 노력 강화 등 연중 추진과제 적절히 배분 ○ 비교적 적절한 계획 수립 ○ 대체로 적절함. ○ 해외체류 탈북민 이송 및 보호 대책 강화 등 계획이 적절함. ○ 전년도에 비해 상향된 적극적 목표 달성이 확인됨.	
	1-2. 계획단계 소통·환류	4.58/5	○ 전반적으로 잘 추진됐음. 윤석열 정부의 통일비전에 대한 국민 홍보 등에서 아쉬움.	

		○ 적절한 소통 노력 개선 ○ 적절함. ○ 통일부와 민주평통간 협업체제 구축 등의 평가 결과와 제언 등이 계획에 반영됨.
2-1. 정책추진 노력	8.5/10	○ 해외 탈북민 안전 이송과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체계 강화 등에서 지속적 성과. 현 정부의 통일비전 대국민 홍보 등에서 다소 아쉬움. ○ 일정을 맞추려 비교적 충실한 노력 개선 ○ 대체로 충실함. ○ 탈북민 대책을 국내외적으로 충실하게 수행함. ○ 일부 취소 혹은 중단된 일정(4/4분기 통일부 협업 대외공관 설명회)등에 대한 내용이 없음.
2-2. 중간단계 환류	4.5/5	○ 지난해 지적인 개선사안들이 대부분 잘 보완 시행됐음. ○ 적절한 소통 노력 개선 ○ 적절함. ○ 주한 러시아 대사관과 소통을 어떻게 했는지 확인이 안됨.
2-3. 변화 대응성	12.67/15	○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이라는 새로운 변수에 대해 잘 대응했음. 탈북민 강제북송 사태 등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응 필요 ○ 변화하는 국내외 환경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어야 함. ○ 적절함. ○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로' 고착화에 비교적 적절히 대응함. ○ 기계획된 7개 재외공관에서 국제협력대화 중 다수가 중단됨. 협의 과정에서 외교부의 충분한 협조가 있었는지 의문시됨. 일부 회의는 상대국 인사 및 기관이 제대로 물색되지 않아, 마지막에 취소됨. ○ 북한의 '두 국가론'에 대한 대응, 적절했는가?
3-1.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목표치의 적극성달성도	25.5/30	○ 적극적 목표치 충족 ○ 목표치의 대표성 충족, 하지만 성과의 질에서 1점 감점 ○ 탈북민 무사 이송 달성도 높음 ○ 통일 한반도 비전 확산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소통은 보통 ○ 한반도 평화 관련 협의 소통 실적이 우수함.

			○ 탈북민의 무사 이송을 달성함. ○ 통일 한반도 비전 확산 목표 달성률에 의문이 듦. 전술한 8.15 통일 독트린 관련 회의가 다수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음. ○ 적극성: 통일비전 관련 활동의 비중을 실질적으로 제고할 필요
	3-2. 정책 효과성	26.17/30	○ 해외탈북민 지원에서는 정책 효과성을 보였으나, 한반도 통일환경 비전 확산을 위해서는, 더욱더 정교한 논리와 적극적 노력이 필요해 보임. ○ 쓰레기 풍선 살포 등의 도발에 대한 적극 대응 평가 ○ 한반도 통일비전 실현에 우호적인 국제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 요구됨. ○ 한반도 통일 비전 실현을 위한 정상급지지 확보 ○ 한반도 정세 안정을 위한 국제적 협력 확보 ○ 쓰레기 풍선 등에 대응이 한반도 정세 안정에 기여했다고 평가하기는 제한됨. 한반도 안정보다는 북한 도발을 일정수준에서 억제하고 확전을 방지했다는 정도의 평가가 적합하다고 판단함. ○ 효과- 통일 외교에 초점 집중시킬 필요성

평가결과	잘된 점	○ 올해 설정한 추진과제 적시 추진됨. 특히 북미국내 한미일 협력 전담 인력 확충 등에서 성과 있음. ○ 한미동맹이 가치에 기반한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진화할 수 있도록 적절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임. ○ 한미일 사무국 출범 등 한미일 안보협력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을 평가 ○ 한미일 협력 제도화 노력 ○ 한미 및 한미일 협력의 구체적 성과가 확인됨. 특히, SMA 조기 타결은 큰 성과임. (동 과가 SMA 협상을 온전히 주도했는지?) ○ 한미동맹의 일부 구체적 성과 견인		
	개선할 점	○ 미국 대선 과정에서 드러난 미국 내 유권자 성향 보수화 또는 미국 제일주의 성향에 대한 현장 대응성 강화해야 함. 또 12.3 계엄사태 이후 한미 동맹에 미칠 여파 차단에 주력해야. ○ 미국의 국내 정치적 변화에 얼마나 적절히 대응했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아쉬움이 있음. 트럼프 재집권에 대한 대비는 다소 미흡했던 것으로 보임. ○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한 국내적 지지를 확충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됨. ○ 미국 트럼프 정권 출범에 따른 대비책 마련 ○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관련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함. ○ 한미동맹 강화가 우리의 국익 제고로 이어짐을 보여줄 필요성 (구체적 성과 발굴하고 확대할 필요성) ○ '한미동맹 강화의 성과가 지속될 것인지?'라는 국내외 의구심 해소 필요		
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수립의 적절성	4.58/5	○ 한미동맹 강화라는 기본 과제를 현장에서 제대로 수행할 만큼 계획 수립 적절했음. ○ 비교적 적절한 계획 수립 ○ 매우 적절 ○ 추진계획이 관리과제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는 등 적절히 계획됨. ○ 이전 연도와 대비하여 동일한 목표치를 상정하여 적극성 측면에서 일부 제한됨. 특히 한미 및 한미일 협력이 올 한해 본궤도에 올라 더욱 적극적 행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목표치를 보수적으로 상정함.	
	1-2. 계획단계 소통·환류	4.5/5	○ 미국 대선정국의 유동성에 제대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을 잘 반영해 과제 추진했음. 다만 대국민 소통 등에서	

		는 다소 미흡 ○ 비교적 적절한 소통 노력 기울임. ○ 매우 적절 ○ 적절함. ○ 평가결과와 검토 의견이 반영됨.
2-1. 정책추진 노력	9/10	○ 한미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 내실화라는 측면에서 성과가 있었음. 한미일 협력 강화도 성과 있었음. ○ 비교적 일정에 충실하려는 노력을 기울임. ○ 충실함. ○ 한미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을 충실하게 내실화함. ○ 목표가 보수적으로 책정된 것을 감안하여 평가함.
2-2. 중간단계 환류	4.5/5	○ 미국 대선과 관련한 대비 강화를 주문한 위원들의 지적사항을 잘 반영해 현장에서 잘 대응함. 일본 정치상황 변화에도 적절 대응. ○ 중간 단계 환류 노력을 비교적 적절하게 기울임. ○ 매우 적절함. ○ 적절함. ○ 한미일 사무국 출범이 완성되지 않았는데, “완료”로 기술함.
2-3. 변화 대응성	13.67/15	○ 미국 대선 과정과 결과에 따른 다양한 변수에 잘 대응했음. 다만 트럼프 당선인측과의 직접적인 채널 확보에서는 다소 아쉬움. ○ 변화에 대한 대응 다소 미비 ○ 적절함. ○ 미 대선 진행과정에 대비함. ○ 한미일 사무국 출범 지연 문제는? 불확실성을 어떻게 경감했는지가 정확히 확인되지는 않음.
3-1.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목표치의 적극성달성도	27/30	○ 적극적 목표치 ○ 성과지표 대표성 충족, 하지만 성과의 질에서 1점 감점 ○ 한미동맹 강화,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위한 활발한 노력 평가 ○ 한미일 안보협력 국내지지 기반을 확대·강화 위한 노력 요구됨. ○ 한미한일간 고위급 교류 목표치를 달성함. ○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성사 등 난이도 높은 과제 달성 ○ 전반적으로 양호하나 적극성 분야는 전술한 이유로 일부 제한됨.
3-2. 정책 효과성	27.5/30	○ 양국 국내정치적 리스크로 인해 효과성 다소 하락 ○ 트럼프 리스크 대비의 아쉬움.

		○ 한미동맹,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위한 각급 협의 달성 ○ 미 대선 등 불확실성에 대비한 다양한 노력 평가 ○ 한미일 정상 간 유대 강화 ○ 한미일 협력에 대한 일반인 인식 제고 ○ 트럼프 등장과 한일관계 등으로 향후 기대 효과가 일부 제한됨. ○ 효과- 한미동맹이, 한일관계의 악화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견고함을 유지하도록 하려는 시도 강화할 필요 ○ 부수 효과- 한미동맹 강화가 한국의 국제적 지위 제고로 이어졌는가?
--	--	--

평가결과	잘된 점	○ 미 의회와 싱크탱크 대상 아웃리치 활동 적극 전개. 미국 대선, 특히 트럼프 당선 대비해 국내 기업들에 미칠 영향 등 메시지 잘 관리 ○ 미국의 가변적 국내 정치 상황에 대비하려는 일정 노력을 기울였다고 할 수 있음. ○ 미 대선 양 진영의 핵심인사에 대한 아웃리치 활동 평가함. ○ 미국 정치 변화에 대비해 미 의회 내 친한 인맥 구축 강화 ○ 미 대선에 대한 대응이 면밀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함. ○ '미 대선 대응 콘트롤 타워' 역할 평가할 수 있음.		
	개선할 점	○ 전반적으로 잘 진행. 미국 내 한인 유권자 단체와의 협력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그러나 미 대사관 측이 개진한 노력이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본부 차원의 대비 노력은 다소 미진했던 것으로 평가됨. 대비에 있어서 적극성이 다소 떨어졌다고 판단됨. ○ 트럼프 측 요직 임명자와 임용 예정자에 대한 네트워크, 협조 체제 구축을 위한 배가된 노력 요구됨. ○ 미국 트럼프 진영 인사와의 심도 있는 네트워킹 ○ 미 연방 위원과 보좌진 등과의 협업이 지금보다 더 확대 및 발전되어야 함. 국회의원 대표단 정당대회 참가 정도로 네트워크가 구성되지는 않음. ○ 보고서의 평가, 한미관계 관련 국내외의 우려와 상당한 괴리를 보임. 한국과 미국의 우려를 적극 반영할 필요.		
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수립의 적절성	4.33/5	○ 미국 대선 대비 미국 내 아웃리치 계획대로 잘 추진. 싱크 탱크 지원 계획도 적절 ○ 미국 국내 정치 상황에 대한 대비 계획이 다소 적절해 보이지 않음. ○ 매우 적절함. ○ 미국 대선 대비 계획 수립이 적절함. ○ 올해 미 대선을 고려하여 목표치를 보다 적극적 목표 산정이 필요했었음.	
	1-2. 계획단계 소통·환류	4.42/5	○ 친한단체 또는 미국 내 한인 유권자 단체와의 우호협력 증진 등이 제대로 추진됨. ○ 비교적 적절한 소통은 있었던 것으로 보임. ○ 적절함. ○ 평가결과와 검토 의견이 반영됨.	
	2-1. 정책추진 노력	9/10	○ 1년내내 주요 추진과제 적절히 배치함. 대선을 계기로 활동 강화했음. ○ 비교적 일정에 충실하려고 노력한 것 같음.	

		○ 충실함. ○ 미 의회 인사 교류 확대 등을 충실하게 실행함. ○ 일정이 충족되었지만, 계획 수립의 적극성 측면에서 일부 한계가 노정됨.
	2-2. 중간단계 환류	4.17/5 ○ 미국 대선 관련 다양한 변수에 잘 대응. 다만 트럼프측과의 직접 채널 구축에는 미흡하고, 더욱 강화할 필요성. ○ 중간 단계의 소통 및 환류 노력이 적극 개선되었는지 다소 의문임. ○ 적절함. ○ 미국 내 지방정부(각주)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접촉이 필요했음.
	2-3. 변화 대응성	13.5/15 ○ 미국 대선 결과를 토대로 트럼프 당선인과의 채널 확보, 친 트럼프 인사 등과의 네트워크 강화에 주력했으나 다소 미흡. ○ 변화에 긴밀히 대응했는지 다소 의문임. ○ 적절함. ○ 민주당 후보 교체 등 돌발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함. ○ 트럼프 등장에 대한 대응이 전반적으로 잘 준비되었음.
	3-1.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목표치의 적극성달성도	26.5/30 ○ 목표치를 거의 달성했음. ○ 북미지역 대한 인식 제고 진전 성과 있음. ○ 대한 호감도 증가됨. ○ 미 의회 친한 우호 활동 초과 달성 ○ 미 대선 대비 핵심 인사 데이터베이스 구축 ○ 미 의회 내 우호적 입법 동향이 확인되지 않음.
	3-2. 정책 효과성	26.67/30 ○ 정책효과성이 다소 염려스러운 상황임. ○ 어렵지만 정부차원의 노력이 더 필요한 상황임. ○ 트럼프 측 요직 임명자 및 연방선거 당선자들에 대한 네트워킹 노력 평가 ○ 작년 한 해 60주년 계기로 관계 긴밀화, 활성화된 교류 평가 ○ 미 대선 후 트럼프-윤 대통령 신속 통화 ○ 미 의회 내 우호적인 입법 활동 기반 구축 ○ 국내 상황과 트럼프 2기 등이 맞물려 기대효과는 제한됨. ○ 적절하게, 적기에 대응했다는 보고서 평가(주장)에도 불구하고 한미관계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 여전히 존재함. ○ 부수적 효과 - '의도를 넘어선 효과' 확인 어려움. ○ 향후 기대효과: 한미관계의 미래에 대한 우려 광범위함.

평가결과	잘된 점	○ 한미 확장억제 협력 강화 면에서 뚜렷한 성과 있음. 한미일 협력 강화를 위한 환경 조성에서도 성과 있음. ○ 워싱턴 선언의 후속 조치를 구체화·제도화하려는 노력이 성과로 나타났다고 판단됨. ○ 워싱턴 선언 제도화 노력 통한 '확장억제' 강화 평가함. ○ 한미 확장억제 구체화 ○ 한미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다수의 가시적 조치가 확인됨. ○ 한미 안보협력 강화, 평가 가능		
	개선할 점	○ 러북 군사적 협력 문제를 한미 협회 채널 등에서 더 적극적으로 다뤄줄 필요가 있음. ○ 한미일 안보협력 틀 안에서 3국의 안보협력을 제도화하려는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함. 확장억제, 미사일방어 등 한미 미일 양자 간의 협력을 삼각화(trilateralize)하는 방안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의견을 제시해야 함. ○ 한미동맹 및 한미일 안보협력을 확대 심화하기 위해 한-유엔사, AUKUS와의 협력에도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음. ○ 트럼프 정권 대비 원자력 협정 개선 노력 ○ 논란의 여지가 있는 확장억제 관련 조치에 대한 추가 제도화가 필요함. ○ 국방부와 외교부 간의 업무 분장이 확인되어야 정확한 평가가 가능함. ○ 트럼프 2기 동맹전략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함. 제도화 수준 유지 및 지속성 담보가 필요함. 관련하여 확장억제 제도화 약화 가능성에 대비한 플랜 B도 마련해야 할 것임. ○ 일부 협의체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구심 해소 필요. 아울러 미국 외교정책 방향 변화 가능성에 대한 대응조치 마련 필요.		
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수립의 적절성	4.58/5	○ 추진계획 등의 세부 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됐고, 잘 추진됐음. ○ 적절한 계획 수립. ○ 적절함. ○ 자체평가 결과를 정책 개선에 적절하게 반영함. ○ 전반적으로 적절하게 수립됨. 다만, 평가를 위해서는 외교부의 역할에 대한 보다 명확한 확인이 필요함. (국방부와 협업 중 외교부 역할 식별)	
	1-2. 계획단계 소통·환류	4.58/5	○ 평가위원들의 지적 사항이 반영돼 정책 추진과정에서 잘 보완됐음.	

		○ 적절한 소통 노력. ○ 적절함. ○ 일정 수준 반영됨.
2-1. 정책추진 노력	9.33/10	○ 구체적인 일정에 따라 외교력을 지속적으로 투입해 성과 냈음. ○ 정책추진 일정에 대한 충실성. ○ 충실함. ○ 한미 양국 간 안보 대화채널을 충실하고 다양하게 운영함. ○ 정상추진되었지만, 다수가 국방부와 협업임.
2-2. 중간단계 환류	4.67/5	○ 한미 안보협력 제도화 노력이 잘 진행됨. ○ 적절한 중간 단계 환류 노력 ○ 적절함. ○ 제도화를 위한 향후 노력 등이 보다 명징하게 반영될 필요가 있음.
2-3. 변화 대응성	13.5/15	○ 미국 대선 관련 변수와 일본 국내 정치적 변화에 잘 대처했으며 한미 안보협력 제도화를 위한 노력도 두드러짐. ○ 더 적극적인 변화 대응성 확보 필요. ○ 적절함. ○ 미 대선 결과에 대비해 안보협력 토대를 적절하게 구축함. ○ 트럼프 2기 한미 확장억제 변동 가능성에 대한 보다 적극적 대비가 필요함. ○ 미국 외교정책 변화 가능성에 대한 대응조치의 구체성 제고 필요
3-1.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목표치의 적극성달성도	27.17/30	○ 적극적 목표치 달성 ○ 성과지표 대표성 우수 ○ 한미 확장억제를 위한 협의체 활성화 평가함. ○ 러북 군사 밀착에 대한 적실성 있는 대응 노력 요구됨. ○ 전년도 목표치를 초과해서 한미안보협력을 심화시킴. ○ 한미 안보협력지수라는 성과지표를 설정해 운용함. ○ 확장억제 제도화에 대한 향후 계획, 트럼프 등장에 대한 대비 등이 일부 제한됨.
3-2. 정책 효과성	27/30	○ 당초 의도한 효과 발생했으나, 향후 기대효과를 낼 수 있도록 변화에 대한 대비 더 필요해 보임. ○ 한미 확장억제 실행력 지속 강화 평가 ○ 미 신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포괄 동맹으로 발전 지속토록 노력 요구됨.

			○ 대북 억제력 강화라는 정책 효과성을 높임. ○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에도 정책 지속될 가능성 높임. ○ 트럼프 2기에 의한 변수가 상존하여 향후 기대효과 제한됨. 여기에 대한 적극적 대비가 확실하게 식별되지는 않음. ○ 의도 효과- 한미 협력 강화가 우리 외교이익에 기여함을 보여줄 필요 (가령, 북러협력 강화에 대한 한미의 실질적 공조 조치는?) ○ 부수 효과 - 군사 분야가 아닌 외교적 조치 구체화 필요
--	--	--	--

7	한·미 안보협력 증진을 위한 주한미군 지위협정(SOFA)의 원활한 운영 및 안정적 현안 관리	B ⁺
---	---	----------------

평가결과	잘된 점	○ 방위비분담협정 조기 타결을 실현한 점 높이 평가/ 분담금 증가율도 적절 ○ 주한미군 기지 협상 및 방산 협력에서는 일정 성과를 냈다고 판단 됨. SOFA 운영도 잘한 것으로 판단 됨. ○ SMA 선제타결 및 비준을 통한 불확실성 최소화는 평가 ○ 한미 SMA 선제적 타결 ○ SMA 조기 타결, 합의 내용 등은 분명한 성과로 판단함. ○ 방위비분담협정의 선제적 타결; 방산 협력 신규 분야 발굴		
	개선할 점	○ 트럼프 당선 이후 재협상 가능성 등 부담요소 잘 대처해야 함. ○ 조기 SMA 협상은 정치적 불확실성 대비 측면에서는 다소 전략적 오판이었다고 사료 됨. 트럼프 2기 발족 이후의 재협상 요구에 대비해야 할 것임. ○ 트럼프 당선인 조선업 분야 협력 필요성 언급에 대한 신속한 대응 체제 구축이 요구됨. ○ 한미 SMA 파기 경우에 대한 대비책 필요 ○ SMA 타결을 북미 1과에서도 자신들의 업적으로 제시함. 과별 업무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방위분담협정의 지속 가능성 관련 우려 적극적 해소 필요성		
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수립의 적절성	4.5/5	○ 미국 대선 일정 등을 감안해 미국의 신정부 출범 전 방위비 협상 마무리 지은 점은 면밀한 계획 수립에 따른 결과 ○ SMA 협상 계획의 적절성과 이에 대한 소통 및 환류가 아쉬운 부분임. ○ 매우 적절함. ○ SMA를 조기 타결하겠다는 계획은 적절함. ○ 전반적으로 무난하지만, SMA 체결을 제외한 구체적인 성과 도출은 상대적으로 제한됨.	
	1-2. 계획단계 소통·환류	4.33/5	○ SOFA 채널에서 주한미군 한국인 노조 등과의 협의도 잘 진행 ○ 적절함. ○ 전반적으로 반영됨.	
	2-1. 정책추진 노력	9.33/10	○ 1년 전체 기간 중 수립된 과제 추진 적극적으로 전개함. ○ 일정에는 충실했다고 판단 됨.	

		○ 충실함. ○ 한미 방산협력 방안 마련도 충실하게 지원함. ○ 정상추진이 확인되지만, SMA를 제외하고는 면담, 협의, 지원, 소통, 증진 등 실제 성과와는 거리가 있음.
2-2. 중간단계 환류	4.33/5	○ 주한미군과 한국인들 간 소통 확대 성공적임. ○ 중간 단계의 환류가 비교적 적절히 이루어짐. ○ 적절함. ○ 전반적으로 반영됨.
2-3. 변화 대응성	13.67/15	○ 미국 대선 결과 이전에 방위비 분담 협상 타결 목표 달성함. ○ 변화 대응 측면에서는 아쉬움이 있음. ○ 적절함. ○ 국민의 목소리를 SOFA 정책 수립에 반영하는 등 노력함. ○ 트럼프 2기가 제시할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에 대한 대응은? SMA 틀 밖의 요구와 이에 따른 SOFA 개정 가능성 까지 포함한 대책이 있는지?
3-1.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목표치의 적극성달성도	26.83/30	○ 적극적 목표치 거의 달성 ○ 성과지표의 대표성 충족 ○ SMA 타결 및 안정적 이행 담보 평가함. ○ SOFA 운영 및 현안 대응 평가함. ○ 한미방위비 분담협상이 타결됨. ○ 주한미군기지 반환 관련 후속협상도 적극적으로 추진함. ○ MRO 협력 등을 동 과에서 “선제적 제시”했는가? 어떻게 참여하여 지원했는가? ○ SMA 타결 업적이 분명함.
3-2. 정책 효과성	26.83/30	○ SMA 조기 재협상의 효과는 지켜봐야 할 것임. ○ 한미 방산 협력 추진 평가 ○ SOFA 현안 안정적 관리 평가 ○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일단 타결됨. ○ 미군기지 환경문제 관리를 위한 가시적 성과를 도출함. ○ SMA 타결의 분명한 정책 효과가 발생함. 다만, 트럼프 2기에 대한 대응이 보다 적극적일 필요가 있음. ○ 향후 기대효과- 관련 의구심 해소할 필요성

평가결과	잘된 점	○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단 입수 등 세부 사안에서 성과 있었음. 전반적인 한일 우호 협력 관계유지도 성과임. ○ 한일관계 개선의 추동력을 계속 유지해 나갔다는 점에서는 일정 성과를 냈다고 생각함. 한미일 안보협력틀을 잘 활용했다고 할 수 있는데, 비전통 안보 분야 및 문화교류 쪽으로도 일정 노력을 기울인 점을 평가받아야 함. ○ 우키시마 호 명부, 유해봉환, 관동대지진 등 과거사 관련 현안 일측의 태도변화 견인은 평가할 만함. ○ 한미일 안보협력 기반 구축 ○ 큰 틀에서 한미 안보협력을 발전시킨 성과가 확인됨. ○ 활발한 고위급 교류, 소통, 협력		
	개선할 점	○ 직접 담당 업무는 아니지만 사도 광산 추모식 행사의 파행 등이 빚어진 것은 아쉬우며,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기념사업 추진과정에서도 과거사 문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접근이 요구됨. ○ 라인 야후 사태가 보여준 대일 경제안보 외교의 난맥상과 사도광산 반쪽 추도식에서 보여준 외교적 대응은 미흡했다고 판단 됨. ○ 국내 정치 혼미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일 수교 60주년 계기 한일협력 사업의 원만한 추진이 되도록 지속적 노력이 요구됨. ○ 강제징용 문제 해결 관련 성과 구체화 ○ 전년도 대비 한일관계 유지 및 발전에 몇 가지 제약 사항이 있고, 동 과의 대처에 일부 한계도 확인됨. (사도 광산) ○ “원칙에 입각한 과거사 현안 관리”의 구체적 성과 거양 필요. 이 부분에 관한 보고서의 평가와 사회적 우려/평가 간의 괴리 해소 필요.		
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수립의 적절성	4.58/5	○ 전년도에 이어 한일 관계 전반적인 우호적 관계 속에서 세부 계획 수립은 적절했음. ○ 적절한 계획의 수립 ○ 매우 적절함. ○ 한일관계의 긍정적 흐름을 잇기 위한 노력을 적절하게 이행함. ○ 현안의 안정적 관리 측면이 좀 더 부각될 필요가 있었음.	
	1-2. 계획단계 소통·환류	4.25/5	○ 과거사 문제의 민감성을 다수 위원들이 지적했지만 이를 제대로 반영해서 업무 추진했는지는 따져볼 필요 있음.	

		○ 비교적 적절한 소통 노력 ○ 매우 적절함. ○ 적절함. ○ 현안의 안정적 관리를 강조했는데, 일부 미이행된 결과를 도출함.
2-1. 정책추진 노력	9/10	○ 일정은 충실하게 짜여있었음. ○ 일정에 비교적 충실하려는 노력을 기울임. ○ 충실함. ○ 시행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함. ○ 사도광산은 기 계획된 사업이 아니었는지?
2-2. 중간단계 환류	4.17/5	○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국내외 비판여론이 제기됐음. 이를 제대로 잘 반영해 현장에서 투영됐는지에 대한 아쉬움 남음. ○ 중간 단계 대응을 위한 소통 노력이 다소 미흡했던 것으로 보임. ○ 적절함. ○ 무난함.
2-3. 변화 대응성	13/15	○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일본의 태도 변화가 미흡한 상태에서 일본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적절한 외교적 대응을 했는지 되돌아볼 필요 ○ 변화 대응에 있어 다소 미흡했던 것으로 보임. ○ 적절함. ○ 전문가 등의 의견을 적절하게 반영하기 위해 노력함. ○ "한일관계 개선 및 긍정적 흐름 속에 과거사 현안에 대한 일측의 전향적 태도 견인 성과 점증"이라는 기술은 논란의 여지가 있음. 사도광산 건은? 전반적 노력과 성과는 인정 하지만, 갈등 분야에 대한 설명은 부재함. ○ 한일관계 현안 관련 돌발사태(가령, 사도광산) 대비의 적절성?
3-1.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목표치의 적극성달성도	26.33/30	○ 적극적 목표치, 대부분 달성 ○ 성과지표의 대표성 충족 ○ 과거사 관련 현안 일측의 태도 변화 등 진전 평가함. ○ 대일정책의 국내지지 기반 강화를 위한 노력 요구됨. ○ 한일관계 발전 모멘텀을 강화함. ○ 한일간 각급 단계 소통을 활발하게 진행함. ○ 과거사 문제에 대한 대응이 제한됨. ○ 달성도 일부 지표: 강제징용과 위안부는 중복; 과거사 기억 활동, 완전 달성?

	3-2. 정책 효과성	26/30	○ 노력에 비해 정책 효과성 확보 측면에서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음. ○ 생존 피해자의 강제징용 해법 수용 및 판결금 수령 등은 큰 성과. ○ 60주년 계기 다양한 사업추진은 높이 평가 ○ 고위급 교류, 민간 교류 활성화 ○ 과거사 등 현안 관련 성과 극대화 필요 ○ 향후 한일 과거사 문제에 대한 갈등 재현이 우려됨. ○ 당초 의도한 효과 관련, 이견 제기되는 상황임. ○ 부수적 효과: 한미일 협력이 한일협력 강화로 이어졌는가? ○ 향후 기대효과: 의구심 해소 필요
--	----------------	-------	--

평가결과	잘된 점	○ 인태전략 핵심 파트너와의 협력 확대 / 방산 협력 확대에서 성과 두드러짐. ○ 인도태평양의 다양한 지역 국가와의 협력 강화에 노력을 기울인 점은 평가를 받아야 함. 특히 동남아와 서남아, 그리고 태도국 대상 외교가 작년에 이어 금년도 적절히 잘 진행된 것으로 보임. ○ 인태지역의 핵심국가인 인도, 호주, 뉴질랜드와의 협력관계 증진 평가 ○ 인태 지역 주요국과의 협력 강화 ○ 후속 또는 연속 사업 측면에서 성과가 확인됨. ○ 대상 국가와의 협력 확대		
	개선할 점	○ 경제외교 추진에 있어 현지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애로사항 경청 및 지원 강화는 지속적으로 해야할 과제. ○ 인도와 호주의 경우 한인이나 한호, 양자 협력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 미국이나 일본과 같이 협력하는 3자 내지는 4자 협력의 틀을 구축해 협력을 강화하는 노력이 조금 더 필요해 보임. ○ 인태지역 국가와의 전략적 협력 필요성에 대한 국민지지 확대를 위한 노력이 요구됨. ○ 태도국과의 협력 사항 홍보 필요 ○ 올 한해 새로운 구체적 성과는 미 도출됨. 협의, 협력, 기반 조성 등의 사업이 다수임. ○ 한미(일) 협력과 구분되는 독자적 어젠다 제시 통해, 협력이 국익에 기여함을 현시할 필요성		
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수립의 적절성	4.42/5	○ 올해 계획 수립은 목표지향적으로 잘 제시됨. ○ 비교적 적절한 계획 수립 ○ 적절함. ○ 인태국과의 교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들을 적절히 수립함. ○ 대다수 계획이 지속 혹은 진행 중 사안으로 신규 적극 추진하는 사업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크지 않음.	
	1-2. 계획단계 소통/환류	4.58/5	○ 엑스포 무산 이후에도 태도국 등과의 우호협력 잘 진행. ○ 적절한 소통 노력 경주 ○ 적절함. ○ 전반적으로 반영됨.	
	2-1. 정책추진 노력	8.67/10	○ 한해동안 꾸준히 관련 외교 전개 ○ 일정에 충실함.	

		○ 계획된 사업을 정상추진하기 위해 노력함. ○ 2건 미추진 사업의 정확한 이유는? ○ 2개의 중요한 사업 지연
2-2. 중간단계 환류	4.42/5	○ 인태지역 내 양자/소다자/다자 계기 소통 노력 잘 전개함. ○ 비교적 적절한 환류 노력 ○ 적절함. ○ 의견을 반영함.
2-3. 변화 대응성	13.67/15	○ 연간 협의체 운영과정에서 협력 수요 발생 시 잘 대처함. ○ 융통성이 조금은 아쉬움. ○ 협의체 운영과정에서 추가 협력수요를 발굴해서 적절하게 대응함. ○ 미 추진 사업에 대한 대응은? 동 지역의 협력도 미 트럼프 2기 등장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과 대응은?
3-1.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목표치의 적극성달성도	26.5/30	○ 적극적 목표치 달성 ○ 성과지표 대표성 확보 ○ 인태지역의 소다자 협력 추진 평가함. ○ 유학, 워킹홀리데이 등 청년세대의 관심제고를 위한 활동 평가 ○ 고위급 대면 면담, 전략대화 등을 적극 진행함. ○ 인태 지역 경제외교 적극 전개 ○ 신규 사업의 상대적 부재로 적극성 측면이 일부 제한됨. ○ 달성도- 비대면 면담 통화 등 배제
3-2. 정책 효과성	26.67/30	○ 외교 대상의 다각화 노력이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함. ○ 인태지역 국가와의 대화, 협의 등 획기적인 증대 평가 ○ 태도국과의 협력 모멘텀 유지 강화 노력 평가 ○ 인태 지역 소다자 협력구조 활성화 ○ 우리 기업 현지 진출 기반 확대 ○ 한-미-인, 한-인-일 등의 협력 구도를 "활성화"했다고 기술 하지만, 제도화는 실제 성과는 제한됨. ○ 의도한 효과- 가시적 효과 보여줄 필요

평가결과	잘된 점	○ 한·인도양 협력기금 신설 등 구체적인 성과 있음. ○ 한일중 정상회의의 재개는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음. 아울러 3국 사이 낮은 단계의 협력이 재개된 것 역시 적지 않은 성과임. 인태지역 협의체에도 관여를 지속한 점 역시 일정 성과라고 할 수 있음. ○ 오랫동안 중단되었던 한일중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를 통한 3국협력 재개를 견인. ○ 한중일 협력 관계 복원 ○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에 성공함. ○ 한중일 3국 정상회의 복원		
	개선할 점	○ 미국의 신정부 출범에 따른 미중 전략경쟁 격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태도국 협력 등을 견인할 필요성이 증대됨. ○ 한일중 정상회의 재개의 동력을 살려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문화, 청년, 특히 경제교류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지자체 간의 협력도 적극 유도해야 함. ○ 내년 이후에도 한중일 정상회담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 한일중 3국 협력 내실화 ○ 인도양 지역 다자협의체와 실제적 협력 성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음. 올해는 협력 지속 또는 모색으로 제한됨. ○ 한중일 3국 협력의 다양화 통해, 국익 증진에 기여함을 보여줄 필요성		
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수립의 적절성	4.5/5	○ 구체적인 과제 위주로 계획 수립이 정리됐음. ○ 적절한 계획 수립 ○ 적절함. ○ 한-PIF기금을 대폭 증액하는 등 적절하게 계획을 수립함. ○ 한일중 3국 협력 강화 노력을 어떻게 “주도”했는지?	
	1-2. 계획단계 소통·환류	4.75/5	○ 구체적인 성과 견인 필요하다는 지난해 지적사항이 많이 반영되었으며, 성과 견인했음. ○ 적절한 소통 노력 ○ 적절함. ○ 전반적으로 반영됨.	
	2-1. 정책추진 노력	8.83/10	○ 한 해 동안 일정이 충실하고 꾸준히 전개됨. ○ 비교적 일정에 충실함.	

			○ 충실함. ○ 정상외교 후속조치를 분기별로 점검하는 등 충실하게 추진함. ○ 미추진 3건이 확인됨.
	2-2. 중간단계 환류	4.5/5	○ 다자협력체와 협력사업 구체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서 올해는 성과가 있었음. ○ 적절한 환류 노력 ○ 적절함. ○ 전반적으로 반영됨.
	2-3. 변화 대응성	13.33/15	○ 태도국과의 협력 자원 확충 등을 통해 관련 사업 잘 추진함. ○ 변화에 대한 대응성이 비교적 양호해 보임. ○ 적절함. ○ 태도국 협력사업을 적절하게 추진함. ○ 트럼프 당선과 이에따른 동 지역 국가와 협력 방안은?
	3-1.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목표치의 적극성달성도	27/30	○ 적극적 목표치 달성 ○ 성과지표 대표성 확보. ○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는 큰 성과 ○ 태도국 정상회의 이후 내실있는 후속 조치 충실 이행 노력 평가 ○ 태평양 도서국 관련 74건의 협력을 추진함. ○ 한일중 협력관계 구축을 지원함. ○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는 분명한 성과임. ○ 달성도 관련 '시행단계 정책 추진 노력' 3개 사업은 미달성으로 보임.
	3-2. 정책 효과성	27/30	○ 향후의 정책효과가 더 기대됨. 이를 위해 더 적극적 노력이 필요해 보임. ○ 한일중 협력사업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이행 평가 ○ 대 태도국 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 평가 ○ 한일중 간에 국민체감형 협력사업이 추진됨. ○ 한-인도양 협력이 강화됨. ○ 한일중 협력의 지속 및 강화, 동 지역 국가와의 연대 강화 등을 위한 노력이 보다 능동적으로 전개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기대효과를 발휘하기가 쉽지 않은 환경으로 전개되고 있음. ○ 당초 의도 효과- 3국 협력 성과의 구체성과 지속 가능성 보여줄 필요

평가결과	잘된 점	○ 중국의 무비자 입국 허용 등 예상을 넘는 성과가 도출 / 중국 역사문화 왜곡 시도에도 단호하게 잘 대응 ○ 그동안 견지해 왔던 원칙과 상호 존중에 의거한 대중외교가 성과를 거둔 한 해였다고 판단됨. 고위급 회담이 재개된 점과, 인적교류와 낮은 단계이긴 하지만 경제교류가 재개된 점도 상당한 성과라고 할 수 있음. ○ 한중 고위급 소통 및 교류를 역사적으로 진전시킨 점 평가함. ○ 한중 협력관계 복원 ○ 전년도에 비해 한중관계가 개선의 결과가 분명히 확인됨. ○ 외교안보대화와 전략대화 개최 등 한중 양국간 교류 복원 위한 분위기 조성		
	개선할 점	○ 북러 군사협력 강화 속에서 중국의 묘한 외교적 상황을 적극 활용해 한중 협력 강화하는 외교력이 절실한 시점. 12.3 계엄사태 이후 한중 관계, 특히 중국 진출 한국기업들의 애로사항 개선에 더욱 주력해야. ○ 트럼프 2기의 출범은 한중관계가 조금 더 전향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음. 일중이 서로에게 그러듯이 한중도 양국 관계 개선의 조치를 더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임. ○ 한중 인적 교류 및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배가된 노력이 요구됨. ○ 한중 정상외교 내실화 ○ 중국의 사드 보복이 아직도 완전히 철회되지 않음. ○ “고위급 교류/소통 본격화”라는 보고서 주장의 적절성 입증 필요. 가령, 우리 외교부 장관 방중에도 중국 외교부장의 답방은 없었음. 의원 외교 또한 아직까지 (한국에 의한) 일방적임. ○ 대만해협과 남중국해 문제 관련 입장 표명이 한중관계 악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할 구체적 방안 제시 필요		
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수립의 적절성	4.67/5	○ 한중관계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계획 수립되고 잘 추진 ○ 적절한 계획 수립 ○ 매우 적절함 ○ 한중간 교류 소통 관련 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됨. ○ 북한 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기대하기 힘들.	
	1-2. 계획단계 소통·환류	4.92/5	○ 정상회담 등 고위급 소통이 원활치 못했다는 지적을 보완하는 다양한 외교적 노력 경주	

		○ 적절한 소통 노력. ○ 매우 적절함. ○ 적절함. ○ 충실히 반영됨.
2-1. 정책추진 노력	9/10	○ 충실하게 정책추진이 이뤄졌고, 성과도 있었음. ○ 비교적 일정에 충실 ○ 충실함. ○ 한중 간 인적교류 확대 등 충실하게 정책을 추진함. ○ 한일중 정상회의가 개최됨.
2-2. 중간단계 환류	4.67/5	○ 북한 문제 해결 차원에서 중국과의 공개/비공개 소통 노력 강화했음. ○ 적절한 중간 단계 환류 ○ 매우 적절함. ○ 적절함. ○ 전반적으로 반영됨.
2-3. 변화 대응성	13.5/15	○ 다른 과제에서는 성과가 있었으나 북러 군사협력 분야에서 중국과의 외교적 협의(비공개) 등을 적극적으로 전개했는지는 의문 ○ 비교적 변화에 잘 대응함. ○ 적절함. ○ 중국의 비자면제에 긍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함. ○ 트럼프 2기 출범후 미중관계 측면에서 한중관계 관리 대응책은? ○ 중국의 대한정책 변화 가능성에 대한 보다 세밀한 모니터링 필요
3-1.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목표치의 적극성달성도	27.5/30	○ 적극적 목표치 달성 ○ 성과지표 대표성 확보 ○ 고위급 소통 대화가 이전에 비해 크게 활성화 ○ 민간 차원의 교류 왕래 활성화를 평가 ○ 한중 정부 간 교류 소통 초과 달성 ○ 한중 우호정서 고양 ○ 적극성: 동북아 1/2과 업무에 대한 통상적 기대치 이내임.
3-2. 정책 효과성	27.5/30	○ 향후의 정책효과가 더 기대되는바, 이를 위해 협력을 제도화 하기 위한 노력을 더 경주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중국 측 일방적 비자면제 조치 평가

		○ 국민의 대중정책지지 기반 강화 평가 ○ 미래지향적 한중관계 발전 추진 ○ 인적·문화콘텐츠 실질 협력 기반 구축 ○ 기대치를 초과하는 한중관계 개선이 이루어짐. ○ 다만, 트럼프 등장으로 인하여 기대효과는 제한될 수 있음. ○ 향후 기대효과- 지켜볼 부분임.
--	--	--

평가결과	잘된 점	○ 한 중앙아 협력관계가 강화된 점은 큰 성과. 몽골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 내실화 하고, 또 지하철 사업 등 경제분야 성과도 두드러짐. ○ 대 중앙아시아 외교의 새 장을 연 한 해라고 할 수 있음. 한-중앙아시아 정상 회의를 창설하기로 한 점은 적잖은 성과로 보임. ○ K 실�크로드 협력 구상 추진 및 정상외교 활성화는 획기적 성과. ○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강화. ○ 한국 최초 대중앙아시아 외교전략을 수립하는 성과가 도출됨. ○ 고위급을 포함한 활발하고 다양한 교류와 소통.		
	개선할 점	○ 키르기스스탄 대통령 방한중에 12.3 계엄사태 발생했음. 양국관계에 파장이 예상되는바 이를 잘 수습해야 할 것으로 전망됨. ○ 내년에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한국에서 차질 없이 개최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기해야 할 것임. ○ K 실�크로드 협력 구상 등의 성과가 내년 이후에도 지속 가능하도록 각별한 노력이 요구됨. ○ 중앙아시아 국가들 상대 대북압박 외교 적극화. ○ 올 한해 도출된 성과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함. 일회성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K 실�크로드 협력구상이 전략인지? 외교부의 방향성(전략) 하에서 구상되고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기에, 그 정체성을 보다 분명하게 설정할 필요성. ○ 중앙아에 대한 지원 못지않게 우리의 국익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성.		
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수립의 적절성	4.75/5	○ 적절한 계획 수립. 추진도 원만하게 됨. ○ 적절한 계획의 수립. ○ 매우 적절함. ○ K-실�크로드 협력구상을 적절하게 마련함.	
	1-2. 계획단계 소통환류	4.83/5	○ 지난해 지적사항도 잘 반영돼 추진. ○ 적절한 소통 노력 경주. ○ 매우 적절함. ○ 적절함. ○ 적극적인 계획이 수립됨.	
	2-1. 정책추진 노력	9.17/10	○ 대통령 방문 이후 후속조치 이행 등이 매우 충실하게 이뤄짐. ○ 비교적 일정에 충실함.	

			○ 충실함. ○ 계획된 사업 18개를 정상 추진함. ○ 전반적으로 반영됨. ○ 다양한 협의가 진행되었음이 확인됨.
	2-2. 중간단계 환류	4.5/5	○ K 실크로드 협력 구상에 대한 관련국 협의 등도 잘 진행됨. ○ 적절한 중간 단계 환류 ○ 반영됨. ○ 협력 사업의 구체화 필요.
	2-3. 변화 대응성	13.67/15	○ 대부분의 사항 잘 진행됐으나 12.3 계엄사태 당시 방한한 키르기스스탄 대통령, 그로 인한 양국 협의의 차질 가능성에 잘 대응했는지 우려됨. ○ 비교적 변화에 잘 대응함. ○ 적절함. ○ 중앙아 국가들과의 정상회담을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추진함. ○ 특별한 변화가 감지되지 않아, 대응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음. ○ 중앙아의 주요 행위자인 러/중의 움직임 파악하고 대응하려는 노력 강화 필요
	3-1.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목표치의 적극성달성도	27.5/30	○ 적극적 목표치 달성 ○ 성과지표의 대표성 확보 ○ K 실크로드 협력구상 평가함. ○ 중앙아국가들과의 정상회담 추진 평가 ○ 중앙아 국가들과의 실질적 협력 강화 건수가 많음. ○ 성과지표의 대표성이 적절함. ○ 달성도: 대상 국가가 5개임을 고려
	3-2. 정책 효과성	27.17/30	○ 향후 기대효과가 더 기대되는바, 2025년에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계획대로 한국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임. ○ 중앙아 몽골과의 맞춤형 협력 실현 평가. ○ 대 중앙아 외교 대내외적인 공공외교 평가. ○ 고위급과의 교류 강화로 세일즈 성과 거양. ○ 2025 한-중앙아 정상회의 개최 준비 내실화. ○ 경제안보 네트워크가 "확보"되었는가? 추진중으로 판단됨.

평가결과	잘된 점	○ 주요 해양 동남아 국가와의 고위급 교류 활성화 ○ 한-해양동남아 협력기금 재원 증액 ○ 아세안 국가들과의 인적 네트워크 및 외교 자산 구축 ○ 대상국 현지 매체와 국민들에 대한 한국 홍보 ○ 성과 지표의 세분화 ○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 관련 해양동남아 국가별 맞춤형 협력 사업 설계 및 추진 실적 우수 ○ 한-필 FTA 비준, 한-말 FTA 협상 재개 및 조속한 타결 추진 합의 등 경제협력 외교 실적 우수 ○ 고위급 교류 횟수 증가 ○ 필리핀, 말레이시아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 ○ KASI 중점분야 중 해양동남아 협력과 연계, 6개 세부 분야 설정 및 국별 맞춤형 협력 매트릭스 설계, 체계적 이행 및 점검		
	개선할 점	○ KASI 성과에 대한 홍보 확대 필요 ○ 해양산업 중심의 산업협력 확대 필요 ○ 역내 안보 이슈와 관련한 협력의 구체화 ○ 한-말 FTA 협상 타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 강화 필요 ○ 민간 대상 소통형 외교 확산을 위한 노력 필요		
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수립의 적절성	5/5	○ 적절함. ○ 과제추진 일정, 성과 측정 방법 등 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됨. ○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있음.	
	1-2. 계획단계 소통환류	5/5	○ 우수함. ○ 2023년 자체평가 의견을 계획에 반영하였음. ○ 자체평가 의견을 정책 개선에 반영하도록 노력 보임.	
	2-1. 정책추진 노력	10/10	○ 세부 일정을 준수함. ○ 계획된 사업 100% 정상 추진함.	
	2-2. 중간단계 환류	4.8/5	○ 글로벌 사우스 협력 구도하에서 이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 ○ 환류 이행 실적 우수함.	

			○ 2024년 상반기 점검 결과 제시된 의견이 반영됨. ○ 5명의 자체평가위원이 제시한 검토의견 충실히 반영
	2-3. 변화 대응성	14.2/15	○ 싱가포르 신규 취업 비자 제도 도입에 따른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변화 대응성 우수함. ○ 상황 변화, 모니터링 및 의견 수렴 결과에 적절하게 대응하였음. ○ 모니터링 및 의견수렴 사례가 충분해 보이지 않음.
	3-1.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목표치의 적극성달성도	29/30	○ 교류·협력 강화에 따른 성과 도출 건수 중 면담, 축사 등 의례적 행사 건수가 많음. ○ 공공외교 건수 확대 필요 ○ 목표치가 적극적이며 초과달성함. ○ 성과지표가 구체적이고 명확함. ○ 교류·협력 강화, 경제협력 심화, 협력 플랫폼 관련 사업 모두 추진하여 목표치 초과 달성함. ○ 목표치의 적극성과 성과지표의 대표성도 우수함. ○ 해양동남아 국가와의 경제협력 심화 건수의 내용 중 심화라고 보기 어려운 건수들 포함 ○ 동 지역 국가 간 교류 협력 강화에 따른 성과 눈에 띈.
	3-2. 정책 효과성	28.6/30	○ 한-필 FTA 비준 등 한-해양동남아 협력관계 심화 ○ 당초 의도한 효과 성공적으로 달성함. ○ 부수적 효과와 향후 기대효과도 큼. ○ 다양한 효과 제기가 돋보임. ○ BKCF 홍보 강화 필요에 동의하지만, 기금 운영 내실화까지는 다소 먼 이야기로 보임.

평가결과	잘된 점	○ 대륙 동남아 국가들과의 고위급 교류 활성화 ○ 한-메콩 협력 모멘텀 확대 ○ 미얀마 인도적 지원 강화 ○ 대륙동남아 4개국과의 정상외교 실시 등 고위급 교류 활성화 ○ 대륙동남아 진출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에 기여하는 등 경제협력 외교 실적 우수 ○ 정상외교와 고위급 교류 증가 ○ 민생 분야 실질 성과 창출 ○ 한-메콩 외교장관회의 재개 ○ 대륙동남아 4개국 모두와 정상외교 실시 (2년 연속)와 FATF 관련, 미얀마내 우리 진출기업 및 금융기관의 이익 보호 노력 돋보임.		
	개선할 점	○ KASI 성과에 대한 홍보 확대 필요 ○ 한-메콩 협력 확대를 위한 구체적 사업 발굴 필요 ○ 미얀마 인도적 지원액의 대폭 증액에 따른 향후 성과에 대한 평가 필요 ○ 미얀마 징병제 도입에 따른 우리 기업 인력 수급에 대한 보다 장기적인 대응책 마련 ○ 캄보디아발 마약류 유입 단속과 관련한 철저한 대응 ○ 대륙동남아 4개국과의 정상회담 후속조치 이행 노력 지속 필요 ○ 아직도 우리의 3대 교역국인 베트남과 메콩 국가들과의 경제분야 실질협력 확대를 위한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한다는 것을 실질협력 확대로 조정할 필요 있음.		
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수립의 적절성	4.8/5	○ 대륙 동남아 4개국과의 정상회담 후속조치 이행 노력 지속의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 ○ 국민체감형 민생회교, 경제안보 강화 달성의 구체적인 계획 수립 필요 ○ 적절함. ○ 과제추진 계획, 성과지표 및 측정 방법 등이 적절하게 제시됨. ○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있음.	
	1-2. 계획단계 소통·환류	5/5	○ 우수함. ○ 2023년 자체평가 의견, 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계획에 반영하였음. ○ 자체평가 의견을 정책 개선에 반영하려는 노력 보임.	
	2-1. 정책추진 노력	10/10	○ 충실함. ○ 계획된 사업 100% 정상 추진하였음.	

		○ 계획된 사업 14개 중 14개 정상추진
2-2. 중간단계 환류	5/5	○ 중간 환류 이행 실적 우수함. ○ 2024년 상반기 점검 결과 발견된 개선, 보완 의견이 반영됨. ○ 국별 KASI 8개 중점 추진 과제 중 핵심 협력 분야 설정, 해당 분야에서 주요 현안 협의 및 실질협력 사업 적극 발굴, 실시 이행
2-3. 변화 대응성	14.6/15	○ 세미나, 간담회, 정책용역의 결과물을 정책에 반영할 필요 있음. ○ 변화 대응성 우수함. ○ 의견 수렴 및 상황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였음. ○ 의견수렴 사례 및 방법이 다양함.
3-1.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목표치의 적극성달성도	27.8/30	○ 교류 협력 강화에 따른 성과 도출 건수 중 면담, 예방 등 의례적 행사건수가 많음. ○ 목표치가 다소 적극적이지 않음. 2023년 실적치가 35건, 13건, 25건이었는데 2024년 목표치를 작년 실적보다 다소 낮게 책정하였음. ○ 목표치가 적극적이며 목표를 모두 초과달성함. ○ 성과지표의 대표성이 우수함. ○ 과제 적극 추진하여 목표치 초과 달성함. ○ 성과지표의 대표성도 우수함. ○ 성과지표를 6개 항목으로 세분화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토대로 성과 제시 돋보임. ○ 아직도 우리의 3대 교역국인 베트남과 메콩 국가들과의 경제분야 실질협력 확대를 위한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한다는 것을 실질협력 확대로 조정할 필요 있음.
3-2. 정책 효과성	29/30	○ 대륙동남아 국가와의 경제 분야 실질협력 및 주요 현안 개선 성과가 우수함. ○ 당초 의도한 효과 성공적으로 달성함. ○ 부수적 효과와 향후 기대효과도 큰 편임. ○ 대륙 동남아 국가와의 협력 관계 공고화 및 메콩 협력 관련 미국, 일본 등 유사입장국 간 공조 강화 돋보임. ○ 미얀마와의 관계 관리 위한 노력 필요

평가결과	잘된 점	○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 격상 ○ 미래 협력비전의 수립 ○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CSP) 격상 ○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 본격 이행을 위한 협력사업 확대 ○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CSP) 격상 ○ 한-아세안 연대구상 본격 이행 ○ 최단기간 아세안과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 수립 및 AKCF 배증 추진 노력 돋보임.		
	개선할 점	○ KASI의 협력 정책 방향과 ABC Vision 간 조율 및 대내외적 홍보 필요 ○ 미래 협력비전과 KASI와의 정밀한 연관관계 마련 필요 ○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 8개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한 이행 상황 점검 필요 ○ 차세대 전문가(국내 아세안 전문가, 아세안 내 한국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구체적 프로그램 개발 필요		
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수립의 적절성	4.8/5	○ KASI의 중장기적 로드맵에 따라 지속가능한 협력 기반이 다소 마련되었으나 아직 다소 부족함. ○ 인태전략의 첫 번째 비전이 Freedom의 2대 사업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 있음. ○ 적절함. ○ 과제 추진 일정, 성과 측정 방법 등 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됨. ○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있음.	
	1-2. 계획단계 소통·환류	5/5	○ 자체평가위원회 검토 의견을 충실히 반영함. ○ 2023년 자체평가 의견을 계획에 반영하였음. ○ 자체평가 의견을 정책 개선에 적극 반영하려는 노력 ○ 세부 일정을 준수함.	
	2-1. 정책추진 노력	10/10	○ 계획된 사업 100% 정상 추진함. ○ 시행 계획 사업 33개 중 33개 정상추진 ○ 중간 환류 이행 실적 우수함.	
	2-2. 중간단계 환류	5/5	○ 2024년 상반기 점검 결과 제시된 의견이 반영됨. ○ 상반기 점검 시 자체평가위원이 제시한 검토의견 적극 반영	
	2-3. 변화 대응성	14.6/15	○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 변화대응성 우수함. ○ 의견 수렴 결과 및 상황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였음.	

			○ 이 지역 재외공관을 통한 남중국해 상황 지속 모니터링 강화 노력
	3-1.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목표치의 적극성달성도	28.2/30	○ 대내외 아웃리치 및 협의 횟수로 보도자료 17회를 포함하였는데, 보도자료 작성은 성과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됨. ○ 목표치를 초과달성함. ○ 성과지표의 대표성이 인정됨. ○ 과제 적극 추진하여 목표치 초과 달성. ○ 성과지표의 대표성도 우수함. ○ KASI 목표 달성 로드맵과 이행 계획 작성 및 달성 여부 확인 노력 ○ 양자관계 협의 내용과 다자협의 내용 중복
	3-2. 정책 효과성	28.8/30	○ 한반도 주요 안보 이슈에 대한 지지 획득 ○ 한-아세안 연대구상(KSAI) 중점 추진 과제의 지속적 이행 필요 ○ 당초 의도한 효과 성공적으로 달성함. ○ 부수적 효과와 향후 기대효과도 큼. ○ CPS 수립 및 KASI 이행을 통해 아세안과의 실질적 협력 강화 기대

평가결과	잘된 점	○ 페루 등 남미국가들과의 방산, 핵심광물, 인프라 협력 확대 ○ 9년 만의 한국 대통령 남미 방문 실현 등 고위급 외교 확대 ○ 국민·공공외교 실적 우수 ○ 정상외교와 고위급 교류 ○ 분야별 협력 확대 ○ 활발한 국민·공공외교 활동 ○ 남미에서 개최된 G20, APEC 계기 정상회의를 비롯한 다양한 수준의 교류협력 관계 강화 노력 돋보임		
	개선할 점	○ 글로벌 사우스 전략 수립 필요 ○ 이 지역 정부초청장학생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현지 지한 지식인 그룹의 형성 및 활용 ○ 한-브라질 외교부 간 행동계획 2024-27 최신화 필요 ○ 결과 단계와 정책 효과성 등에 포함된 업적 내용에 대한 체계적 정리가 필요함		
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수립의 적절성	5/5	○ 적절함. ○ 과제 추진계획,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등이 적절하게 제시됨. ○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있음.	
	1-2. 계획단계 소통·환류	4.8/5	○ 한-브 양자관계 향후 4년간 발전 로드맵 수립 합의가 다소 미흡 ○ 주상파울루 총영사관 SNS 활용 홍보 ○ 핵심광물 지원시스템 제도화 ○ 이해관계자 의견 반영 ○ 2023년 자체평가 의견을 계획에 반영하였음. ○ 자체평가 의견을 정책 개선에 반영하려는 노력 보임.	
	2-1. 정책추진 노력	10/10	○ 세부일정 준수 ○ 계획된 사업 100% 정상 추진함. ○ 시행 계획된 사업 13개 중 13개 정상추진	
	2-2. 중간단계 환류	5/5	○ 중간 단계 환류 충실 ○ 2024년 상반기 점검 결과 제시된 의견이 반영됨.	

		○ 상반기 점검 시 자체평가위원이 제시한 검토의견 적극 반영 노력
2-3. 변화 대응성	14/15	○ 상황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함. ○ 상황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였으나, 모니터링 및 의견 수렴 결과 대응 내용 누락 ○ 브라질 외교장관 방한 불발과 역내 한인 납치 사건 등에 대한 대응 노력 돋보임, 다만, 과제 추진 과정에서 모니터링 및 의견수렴 수행에 대한 언급이 충분하지 못함.
3-1.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목표치의 적극성달성도	27.1/30	○ 목표를 달성함. ○ 성과 지표의 대표성이 인정됨. ○ 과제 적극 추진하여 목표치 초과 달성 ○ 성과지표의 대표성도 우수함. ○ 목표치의 적극성이 상대적으로 낮음. ○ 고위급 교류 건수 및 협력사업 성과 등을 좀 더 세분화해 제시될 필요 있음.
3-2. 정책 효과성	29/30	○ 당초 의도한 효과와 부수적 효과가 달성됨. ○ 브라질 등 남미 주요국과의 고위급 외교 활성화 필요 ○ 당초 의도한 효과 성공적으로 달성함. ○ 부수적 효과 큼. ○ 향후 기대효과는 다소 모호함. ○ 효과에 대한 정보가 체계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음. ○ 향후 기대 효과 등이 다소 추상적으로 제시됨.

평가결과	잘된 점	○ 한-중미 경제외교 확대 ○ 과테말라의 한-중미 FTA 정식 서명 ○ 중미 소다자외교 실적 우수 ○ 활발한 고위급 교류 ○ 소다자외교 주도, 지역기구와 협력 강화 ○ 경제협력 강화 ○ 공공외교 활성화 ○ 이 지역 국가별 고위급 회담 추진 및 맞춤형 협력 이행 노력뿐 아니라 우리 기업 진출 지원 및 애로사항 해소 노력도 돋보임.		
	개선할 점	○ 글로벌 사우스 전략 수립 필요 ○ 성과지표를 실질협력건수와 대국민인식제고건수로 나누어서 관리 ○ 멕시코, 콜롬비아 등 주요국과의 최고위급 외교 강화 필요 ○ 한-멕시코 FTA 협상 재개를 위한 외교 노력 강화 필요 ○ 청년인턴 외에도 대학과 협력하여 중미·카리브 지역 전문가 육성 방안 마련 필요 예) 중미·카리브 전공자에게 장학금, 현지 연수/유학 기회 제공 ○ 이 지역 국가들과 정상외교 활성화 노력 필요		
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수립의 적절성	5/5	○ 적절함. ○ 과제 추진계획, 성과지표 및 측정 방법 등이 적절하게 제시됨. ○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있음.	
	1-2. 계획단계 소통환류	4.8/5	○ 성과지표의 세분화를 통해 분야별 성과를 확인할 필요 있음. ○ 소통·환류 우수함. ○ 2023년 자체평가 의견을 계획에 반영하였음. ○ 자체평가위원들의 의견을 정책 개선에 적극 반영하려는 노력	
	2-1. 정책추진 노력	10/10	○ 계획 사업을 충실하게 수행함. ○ 계획된 사업 100% 정상 추진함. ○ 시행계획 사업 16개 중 16개 사업 정상 추진	
	2-2. 중간단계	5/5	○ 중간 단계 환류 우수함.	

	환류		○ 2024년 상반기 점검 결과 제시된 의견이 반영됨. ○ 5명의 자체평가위원이 제시한 검토의견 충실히 반영
	2-3. 변화 대응성	14.2/15	○ 멕시코 첫 여성 대통령 당선을 통해 우리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 필요 ○ 외부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함. ○ 상황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였음. ○ 모니터링 및 의견 수렴 결과 대응 내용은 다소 부실함. ○ 베네수엘라 상황에 대한 신속 대응은 돋보이지만, 과제추진 과정에 모니터링 및 의견 수렴 수행에 대한 정보 제시 필요
	3-1.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목표치의 적극성달성도	28.4/30	○ 협력건수에 축전, 친서, 예방 등 의례적 행사가 다수 포함되어 있음. ○ 성과지표를 3개 정도로 세분화하여 집계하는 것이 필요함. ○ 실질협력 및 대국민 인식 제고 건수 목표치가 2023년 132건에 비해서 다소 낮게 책정됨, 중미과와 카리브 지역과로 구조 조정이 있었던 것을 감안하더라도 목표치 설정이 다소 낮은 듯. ○ 2023년 부산엑스포유치관련 다수 면담 접촉이 있었던 것을 감안하여도 작년의 면담 접촉의 접점들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함. ○ 목표치가 적극적이고 초과달성함. ○ 성과지표의 대표성이 인정됨. ○ 과제 적극 추진하여 목표치 초과 달성. ○ 성과지표의 대표성도 우수함. ○ 성과지표에 포함된 업적은 체계적으로 제시되어 있음. ○ 성과지표를 좀 더 세분화할 필요 있음.
	3-2. 정책 효과성	29.2/30	○ 중미 지역기구와의 다자외교 강화로 외교 지평 확대 ○ 당초 의도한 효과 성공적으로 달성함. ○ 부수적 효과와 향후 기대효과도 큼. ○ 중미지역 7개국에 대한 차별화된 접근과 지역기구와의 활발한 교류 협력 효과 기대 ○ 부수적 효과에 대한 체계적 정리 필요

평가결과	잘된 점	○ 한-쿠바 수교 및 후속조치 마련 ○ 한-중남미 다자외교 확대 ○ 한-쿠바 수교로 외교 지평 확장 ○ 중남미 지역기구와의 협력 사업 실적 우수 ○ 아이티 위기 대응 ○ 고위급 교류 큰 폭으로 증가 ○ 활발한 다자외교 ○ 경제협력 강화 ○ 국민 참여형 공공외교 프로그램 확대 ○ 한국-쿠바 수교 및 상호 상주공관 개설 추진 노력뿐 아니라, 한-ECLAC 협력 기금 대폭 확대 노력 돋보임		
	개선할 점	○ 글로벌 사우스 전략 수립 필요 ○ 쿠바와의 협력시 미국 트럼프 취임이후 대쿠바 제재조치의 변화 양상을 예측하여 대안 마련 필요 ○ 도미니카공화국 등 카리브 주요국과의 양자협력 강화 필요 ○ 중남미 지역기구 인턴파견 사업 지속 확대 추진 필요 ○ 양자관계 협의 내용과 다자협의 내용을 명확히 구분해 제시할 필요 있음.		
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수립의 적절성	5/5	○ 적절함. ○ 과제추진 계획, 성과지표 및 측정 방법 등이 적절하게 제시됨. ○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있음.	
	1-2. 계획단계 소통·환류	5/5	○ 계획 단계의 소통·환류 우수함. ○ 2023년 자체평가 의견을 계획에 반영하였음. ○ 자체평가위원들의 의견을 정책 개선에 반영하려는 노력 보임.	
	2-1. 정책추진 노력	9.8/10	○ 충실하게 이행함. ○ 계획된 사업 거의 100%(26/27) 정상 추진함.	

		○ 계획된 사업 정상추진 외에 39개 추가 사업은 왜 계획 단계에서 반영되지 못했는지에 대한 설명 없음.
2-2. 중간단계 환류	5/5	○ 중간 단계의 환류가 적절히 이루어짐. ○ 2024년 상반기 점검 결과 제시된 의견이 반영됨. ○ 상반기 점검시 자체평가위원이 제시한 검토의견 반영 노력
2-3. 변화 대응성	14.8/15	○ 외부 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함. ○ 의견 수렴 결과 및 상황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였음. ○ 과제추진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및 의견수렴 과정에 대한 정보 불충분
3-1.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목표치의 적극성달성도	27.6/30	○ 양자교류 건수는 너무 포괄적이어서 실질적인 성과 지표로는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보임. ○ 신설 지표이기는 하나 대상국가의 수가 많고 작년 중미과에서의 목표치와 비교해보아도 다소 낮게 설정됨. ○ 목표치가 적극적이며 목표를 초과달성함. ○ 성과지표의 대표성이 높음. ○ 과제 적극 추진하여 목표치 초과 달성 ○ 성과지표의 대표성도 우수함. ○ 목표치 달성이 지나치게 높음, 목표치에 대한 조사가 지나치게 낮은 것이 아닌지 의문 ○ 양자관계 협의 내용과 다자협의 내용을 명확히 구분해 제시할 필요 있음.
3-2. 정책 효과성	29.6/30	○ 쿠바와의 외교관계 수립으로 외교 지평을 확장 ○ 중남미 지역기구와의 다자외교 강화 ○ 당초 의도한 효과 성공적으로 달성함. ○ 부수적 효과와 향후 기대효과도 큼. ○ 한-쿠바 수교로 대중남미 외교 지평 확대 돋보임. ○ 한-쿠바 수교에 따른 우리 기업 및 민간인의 미국과의 교류에 발생할 수 있는 이슈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평가결과	잘된 점	○ 한-EU 전략대화 개최 등 유럽국가들과의 가치외교 파트너십 강화 ○ 한-유럽 인태전략 연계 확대 ○ 영국, EU와의 전략대화 개최 ○ G7 플러스 외교 추진 실적 우수 ○ 가치외교 파트너십 강화 ○ 활발한 고위급 교류 ○ 전략 분야 협력 강화 ○ 공공외교 확대 ○ 13회 정상회의 개최로 정상급 교류 활성화에 기여했고 유럽 3개국 재외공관을 신설해 대 유럽 인프라 강화와 인적 교류 활성화에 기여했음.		
	개선할 점	○ 한-EU 첨단산업(AI, 반도체 등) 협력 네트워크 구축 확대 필요 ○ EU De-risking 전략에 따른 중국 기업이 유럽진출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 한국 기업의 유럽 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 마련, 중국 기업의 유럽진출 관련 분석 필요 ○ 트랙2 대화 협의체에 있어서 상대방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G7 플러스 추진 필요성에 대한 지지 확보 노력 지속 필요 ○ 전문가 간담회 외에 서유럽 내 대학들과 협력하여 한국학과나 연구소 설립 등 한국 전문가 육성 방안 마련 필요 ○ 계획된 사업 수에 비해 추가사업이 더 많음. 계획 단계에서 체계적인 목표 설정이 필요함		
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수립의 적절성	5/5	○ 적절함. ○ 과제 추진 계획, 성과지표 및 측정 방법 등이 적절하게 제시됨. ○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있음.	
	1-2. 계획단계 소통·환류	4.6/5	○ 계획 단계의 소통·환류가 적절히 이루어짐. ○ 2023년 자체평가 의견을 대부분 계획에 반영하였음. ○ 자체평가위원들의 의견이 어떻게 정책 개선에 반영되었는지 체계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못함	
	2-1. 정책추진 노력	9.8/10	○ 세부일정이 충실히 이행됨. ○ 계획된 사업들 정상 추진함.	

		○ 계획된 사업은 25개임에도 51개 사업이 정상추진 되었다고 보고함
2-2. 중간단계 환류	4.8/5	○ 중간 단계 환류가 충실히 이루어짐. ○ 2024년 상반기 점검 결과 제시된 의견이 반영됨. ○ 유럽 정세 변화에 대한 대응 활동은 제시되어 있으나, 방안 방향이나 내용은 충분히 제시되어 있지 못함
2-3. 변화 대응성	14.4/15	○ 한국의 최근 상황에 대해서 상대 정부 관계자에게 적절한 설명 필요함. ○ 외부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함. ○ 의견 수렴 결과 및 상황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였음. ○ 이 지역 정세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 개발을 위한 활동은 활발해 보이지만, 그 결과물에 대한 평가와 반영에 대한 언급 불충분
3-1.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목표치의 적극성달성도	26.4/30	○ 성과지표는 적극적이었으나 달성도가 달성이어서 다소 감점 됨. ○ 목표치가 적극적이고 목표를 달성함. ○ 성과지표의 대표성이 인정됨. ○ 과제 적극 추진하여 목표치 초과 달성 ○ 성과지표의 대표성도 우수함. ○ 시행계획 사업과 추가 사업을 구분해 체계적으로 제시될 필요 있음. ○ 추가 사업 수가 기존 시행계획 사업 수보다 배 이상인지 의문
3-2. 정책 효과성	29.6/30	○ 서유럽 주요국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 신설 공관의 실질 협력 증대 효과 구체화를 위한 노력 지속 필요 ○ 당초 의도한 효과 성공적으로 달성함. ○ 부수적 효과와 향후 기대효과도 큼. ○ 총 13회 정상외교 실시에도 불구하고 한-프랑스 정상외교가 이루어지지 못해 아쉬움 ○ 대국민 정책 홍보 효과에 대한 분석 필요

평가결과	잘된 점	○ 중유럽 국가와의 방산, 원전협력 기반 강화 ○ 전략적 동반자 관계 4개국(체코, 폴란드, 루마니아, 스로바키아)과의 전략적 분야(방산 등) 파트너십 강화 ○ 방산 등 전략적 분야 진출 지원 실적 우수 ○ 활발한 고위급 외교 ○ 원전, 방산 협력 성과 ○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협력 ○ 국가별 맞춤형 외교 ○ 대국민·공공외교 강화 ○ 4개국과의 정상 방문, 방한 외교를 통한 파트너십 공고화 및 신흥 중점협력국과의 전략적 분야 협력 강화 구축		
	개선할 점	○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 및 재건 협력을 위한 국내외 연계 네트워크 구축 필요 ○ 중유럽 내 한국 전문가 육성 노력 필요 ○ 방산협력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외교 노력 지속 필요 ○ 중유럽 내 한국 전문가 양성을 위해서는 현지 대학들과 협력하여 한국학과나 연구소 설립이 필요함. ○ 이 지역 대표 국가 중 하나인 독일과의 정상회담 (2월 정상 방독 추진)이 이행되지 못해 아쉬움.		
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수립의 적절성	5/5	○ 적절함. ○ 과제 추진 계획, 성과지표 및 측정 방법 등이 적절하게 제시됨. ○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있음.	
	1-2. 계획단계 소통·환류	4.8/5	○ 중유럽 내 한국 전문가 양성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 필요. ○ 소통·환류가 적절하게 이루어짐. ○ 2023년 자체평가 의견을 계획에 반영하였음. ○ 자체평가위원들의 의견이 정책 개선에 체계적으로 반영됨. ○ 상세일정이 충실하게 진행됨.	
	2-1. 정책추진 노력	9.8/10	○ 계획된 사업 100% 정상 추진함. ○ 시행계획 사업 19개 중 19개 정상추진, 31개 추가사업도 정상추진. 다만, 4개 시행계획 사업이 내년으로 개최 시기가 연기 되었음에도 '정상추진'으로 평가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려움.	
	2-2. 중간단계 환류	5/5	○ 중단 단계 환류가 충실히 이루어짐. ○ 2024년 상반기 점검 결과 제시된 의견이 반영됨.	

			○ 상반기 점검시 자체평가위원이 제시한 검토의견 제대로 반영
	2-3. 변화 대응성	14.2/15	○ 트럼프 취임이후 러-우전쟁의 향방에 대해서 가능한 시나리오별 한국의 대응에 대한 준비 필요 ○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함. ○ 상황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였음. ○ 모니터링 및 의견 수렴 결과 대응 내용은 다소 불분명함. ○ 과제추진 과정에서 모니터링 및 의견수렴 수행에 대한 정보 불충분
	3-1.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목표치의 적극성달성도	27.6/30	○ 2023년도 중유럽과의 성과지표는 하나로 통합되어서 165건 목표에 234건으로 초과달성하였는데 올해는 성과지표를 세분화하여 우리 주요정책에 대한 지지확보 및 후속조치 이행건수, 기업의 투자진출 지원건수, 중유럽 외교 이해도 제고를 위한 공공외교 추진 건수로 세분화함. 하지만 2023년 통합되었던 목표치 및 성과(234건)에 비해서 다소 낮게 책정된 듯함. ○ 우리 기업 투자진출 지원 건수 및 공공외교 추진 건수 성과지표의 121.6%, 120% 초과달성은 달성등급에 해당하여 다소 감점 ○ 목표치가 적극적이고 초과달성함. ○ 성과지표가 대표성을 가짐. ○ 과제 적극 추진하여 목표치 초과 달성. ○ 성과지표의 대표성도 우수함. ○ 연내 개최 추진했던 4가지 계획(예를 들어, 대통령 독일 방문)이 양측 합의 하에 내년 개최 시기 연기를 어떻게 평가했는지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못함. ○ 성과지표를 3개 대표 분야로 구분한 노력 돋보임.
	3-2. 정책 효과성	29.2/30	○ 중유럽 국가와의 전략적 분야 협력에서 성과를 시현함. ○ 중유럽 국가와의 방산 분야 협력 모멘텀 지속을 위한 외교 노력 지속 필요 ○ 당초 의도한 효과 성공적으로 달성함. ○ 부수적 효과와 향후 기대효과도 큼. ○ 이 지역 외교다변화의 효과 기대됨. ○ 독일과 정상급 상호 방문이 이루어졌는지 의문

21	유라시아 국가 (러시아·벨라루스·코카서스3국)에 대한 맞춤형 외교 추진	C ⁺
----	--	----------------

평가결과	잘된 점 ○ 한-러 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외교채널 관리 ○ 코카서스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기반 마련 ○ 러시아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대화 및 교류 지속 전개 ○ 한-러 관계 관리를 위해 대러 협의 지속 ○ 코카서스 국가와의 실질 협력 기반 강화 ○ 한-러 관계 안정적 관리 ○ 활발한 한-러 민간 교류·협력 사업 ○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등 상대적으로 교류가 미진했던 국가들과 협력 강화 ○ 이 지역 정세 변화 (예를 들어, 러북 불법 군사협력)에 대한 대책 마련 노력 및 주조지아공관의 대사관 격상 성과
	개선 할점 ○ 러시아의 브릭스 확대 정책에 대한 대응전략 마련 ○ 러-우 전쟁의 종전과 관련된 시나리오별 대응전략의 마련 ○ 한-러 외교채널을 통한 소통 지속 ○ 성과지표와 추진계획 간의 연관성이 모호함.

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수립의 적절성	5/5	○ 적절함. ○ 과제 추진 계획, 성과지표 및 측정 방법 등이 적절하게 제시됨. ○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있음.
	1-2. 계획단계 소통·환류	4.8/5	○ 러시아와 협력의 전략적 목표 설정 및 목표달성을 위한 로드맵, 이행계획, 추진 점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반영 다소 미흡 ○ 소통·환류가 이루어짐. ○ 2023년 자체평가 의견을 계획에 반영하였음. ○ 자체평가위원들의 의견이 정책 개선에 제대로 반영됨.
	2-1. 정책추진 노력	9.6/10	○ 세부 일정을 준수함. ○ 계획된 사업 거의 100% 정상 추진함. ○ 시행계획된 19개 사업 중 18개 정상추진
	2-2. 중간단계 환류	5/5	○ 중간 환류가 적절히 이루어짐. ○ 2024년 상반기 점검 결과 제시된 의견이 반영됨. ○ 상반기 점검시 자체평가위원이 제시한 검토의견 충실히 반영
	2-3. 변화 대응성	14.6/15	○ 트럼프 취임이후 러-우전쟁의 향방에 대한 시나리오 마련, 이에 대한 대응전략의 준비

			○ 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함. ○ 상황 변화 및 의견 수렴 결과에 적절하게 대응하였음. ○ 이 지역 정세 변화 (예를 들어, 러북 불법 군사협력)에 대한 대책 마련 노력
	3-1.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목표치의 적극성달성도	25.8/30	○ 성과지표는 적극적이었으나 달성도에 있어서 달성이어서 다소 감점 ○ 목표치가 적극적이고 목표를 달성함. ○ 성과지표의 대표성이 인정됨. ○ 과제 적극 추진하여 목표치 달성 ○ 성과지표의 대표성도 우수함. ○ 성과지표와 추진계획 간의 연관성이 모호함. ○ 한-러 싱크탱크 네트워킹 세미나 수연 합의가 목표치 달성 여부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모호함.
	3-2. 정책 효과성	29/30	○ 한-러 대화 채널 유지 ○ 코카서스 국가와의 실질협력 기반 강화 ○ 미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의 상황 변화에 선제적 대응 필요 ○ 당초 의도한 효과 성공적으로 달성함. ○ 부수적 효과와 향후 기대효과도 큼. ○ 한-러 관계의 전략적 관리 활동 유지 노력 ○ 부수적 효과 (예를 들어, 국정과제)에 대한 정보 불충분

평가결과	잘된 점	○ 심화하는 중동정세 위기 국면에 대한 전략적 대응 ○ 이라크, 이집트 등과 경제외교 확대 ○ 중동 위기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 ○ 맞춤형 경제외교를 통해 주요 사업 수주 및 기업 애로사항 해결 노력 ○ 정세 관찰 및 분석, 정보 공유 ○ 피해지역 민간인 지원 ○ 재외국민 보호 ○ 우리 기업 진출 적극 지원 ○ UN 총회 및 안보리의 가자지구 즉각적 휴전 관련 결의안 및 팔레스타인 유엔 가입 결의안에 찬성 표결하여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 연대 강화 의지 표명		
	개선할 점	○ 대이란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고위급 및 민간 교류 확대 ○ 민간교류 및 현지에서의 한국 전문가 양성을 위한 노력 ○ 중동 정세 변화에 대한 분석 및 대응 전략 수립 노력 지속 ○ 학술대회 외에도 대학과 협력하여 국내 중동 지역 전문가 육성 방안 마련 필요. 예) 중동 관련 학과 설립, 중동 전공자에게 장학금 및 현지 연수/유학 기회 제공 ○ 시행계획 사업과 성과지표 간의 연관성 좀더 명확히 제시할 필요 있음.		
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수립의 적절성	5/5	○ 적절함. ○ 과제 추진 계획, 성과지표 및 측정 방법 등이 적절하게 제시됨. ○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있음.	
	1-2. 계획단계 소통·환류	5/5	○ 소통·환류가 이루어짐. ○ 2023년 자체평가 의견을 계획에 반영하였음. ○ 자체평가위원들의 의견을 정책 개선에 적극적으로 반영	
	2-1. 정책추진 노력	10/10	○ 충실하게 세부일정을 추진함. ○ 계획된 사업 100% 정상 추진함. ○ 시행계획 사업 21개 중 21개 정상추진 및 20건 이상의 추가 추진사업 이행	
	2-2. 중간단계 환류	5/5	○ 중간 단계 환류가 이루어짐. ○ 2024년 상반기 점검 결과 제시된 의견이 반영됨.	

		○ 상반기 점검시 자체평가위원이 제시한 검토의견 제대로 반영됨
2-3. 변화 대응성	12.6/15	○ 중동 정세 변화에 대한 좀더 적극적인 분석과 대응 필요 ○ 시리아 내전 종식에 따르는 변화에 대응 필요 ○ 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함. ○ 상황 변화 및 의견 수렴 결과에 적절하게 대응하였음. ○ 중동지역 내 정세가 급변함에 따라 다양한 대응 방안 모색 노력 돋보임
3-1.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목표치의 적극성달성도	27.6/30	○ 중동지역 이해 제고를 위한 공공외교 확대 노력 ○ 목표치 설정이 상당히 적극적이거나 경제협력 건수와 공공 외교 건수 목표치 달성이 달성등급이어서 약간의 감점 ○ 목표치가 적극적이고 초과달성함. ○ 성과지표의 대표성이 인정됨. ○ 과제 적극 추진하여 목표치 초과 달성 ○ 성과지표의 대표성도 우수함. ○ 추가 추진 사업 20건 이상에 대한 정보도 제공될 필요가 있음. ○ 설정된 성과지표가 계획된 21개 시행계획과 어떻게 연계 되어 있는지에 대한 설명 필요
3-2. 정책 효과성	28.6/30	○ 중동 국가와의 중장기적 우호 관계 기반 구축 ○ 중동 국가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노력 지속 필요 ○ 당초 의도한 효과 성공적으로 달성함. ○ 부수적 효과와 향후 기대효과도 큰 편임 ○ 주한이란대사관의 애로사항 해결로 한-이란 우호관계 증진 효과 ○ 이 지역에 대한 우리의 경제적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지정학적 중요성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 필요

평가결과	잘된 점	○ 걸프 국가와의 경제외교 강화, 신뢰관계 구축 ○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 ○ 중동 Big 3(사우디, UAE, 카타르)와의 활발한 정상외교 시행 ○ 마그레브 5개국(모리타니아,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 리비아)과의 최고위급 교류 성사 ○ 활발한 고위급 교류 ○ 다자간 교류 강화 ○ 우리 기업 애로사항 해소 지원 ○ 공공외교 강화 ○ 이 지역 국가들에 국빈방문 등을 통한 정상외교와 고위급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이를 계기로 이 지역과 우리와의 교류협력 심화에 기여함.		
	개선할 점	○ 한-GCC FTA 관련 국내 절차 조속 진행 및 홍보 확대 ○ 북아프리카 국가와의 공공외교 확대 ○ 국내 걸프, 마그레브 지역 전문가 육성 방안 마련 ○ 방산 등 미래 유망 분야 협력 강화 필요 ○ 한-아랍 소사이어티 사업과 협력 포럼 외에도 대학과 협력하여 국내 걸프·마그레브 지역 전문가 육성 방안 마련 필요 예) 걸프·마그레브 포함 중동 관련 학과 설립, 중동 전공자에게 장학금 및 현지 연수/유학 기회 제공 ○ 시행계획 사업과 성과지표 간의 연관성 좀더 명확히 제시할 필요 있음.		
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수립의 적절성	5/5	○ 적절함. ○ 과제 추진 계획, 성과지표 및 측정 방법 등이 적절하게 제시됨. ○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있음.	
	1-2. 계획단계 소통·환류	4.8/5	○ 국내 걸프, 마그레브 지역 전문가 육성 방안 마련 ○ 소통·환류가 적절하게 이루어짐. ○ 2023년 자체평가 의견을 계획에 반영하였음. ○ 자체평가위원들의 의견이 정책 개선에 적극적으로 반영됨.	
	2-1. 정책추진 노력	10/10	○ 세부 일정이 충실하게 이행됨. ○ 계획된 사업 100% 정상 추진함.	

		○ 시행계획 사업 20개 중 20개 정상추진
2-2. 중간단계 환류	5/5	○ 중간 단계 환류가 성실히 이행됨. ○ 2024년 상반기 점검 결과 제시된 의견이 반영됨. ○ 상반기 점검시 자체평가위원이 제시한 검토의견 적극적 반영
2-3. 변화 대응성	14.8/15	○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함. ○ 상황 변화 및 의견 수렴 결과에 적절하게 대응하였음. ○ 과제추진 과정에서 모니터링 및 의견수렴 수행에 대한 정보 불충분
3-1.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목표치의 적극성달성도	28.6/30	○ 교류, 협력 및 지원 관련 성과지표에 고위급 인사 경유 지원 및 축사 등도 포함되어 있어 성과의 질 측면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음. ○ 목표치가 적극적이며 초과달성함. ○ 성과지표의 대표성이 인정됨. ○ 과제 적극 추진하여 목표치 초과 달성 ○ 성과지표의 대표성도 우수함. ○ 성과지표의 목표치 80건을 체계적으로 구분해 제시함. ○ 성과지표와 시행계획 사업들 간의 연계성에 대한 설명 추가 필요
3-2. 정책 효과성	29/30	○ 걸프.마그레브 국가들과의 외교 다변화 및 실질협력 심화 ○ 에너지 안보 강화 ○ 방산 등 신성장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한 외교 노력 지속 필요 ○ 당초 의도한 효과 성공적으로 달성함. ○ 부수적 효과와 향후 기대효과도 큰 편임. ○ 의도 효과 명확히 제시되어 있음. ○ 부수적 효과에 포함되어야할 내용 (예를 들어, 국정과제)에 대한 정보 불충분

평가결과	잘된 점	○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 ○ 한-아프리카 동반성장의 기반 마련 ○ 활발한 고위급 인사 교류 ○ 공공외교 활성화 ○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로 34명의 정상급 인사를 포함 48개 국가 및 4개 국제기구 등 초청한 52개 대표단 모두 참석; 한-아프리카 협력기금 5배 증액(750만불) 및 AfCFTA 협력 기금 신설 (500만불)		
	개선할 점	○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후속조치 및 홍보 확대 필요 ○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성과를 제도화할 수 있는 후속조치 마련 ○ 성과지표를 세분화하여 성과관리 ○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공동선언 후속 조치 이행 필요 ○ 국제기구 파견 외에도 대학과 협력하여 국내 아프리카 지역 전문가 육성 방안 마련 필요. 예) 아프리카 관련 학과 설립, 아프리카 전공자에게 장학금 및 현지 연수/유학 기회 제공 ○ 시행계획 33개 사업에 더불어 123건 추가 추진은 놀라운 결과이고, 이 결과가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의 결과로 이해되지만, 그 차이가 너무 큼.		
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수립의 적절성	5/5	○ 적절함. ○ 과제 추진 계획, 성과지표 및 측정 방법 등이 적절하게 제시됨. ○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있음.	
	1-2. 계획단계 소통·환류	5/5	○ 계획 단계의 소통·환류가 적절하게 이루어짐. ○ 2023년 자체평가 의견을 계획에 반영하였음. ○ 자체평가위원들의 의견을 정책 개선에 적극적으로 반영됨.	
	2-1. 정책추진 노력	10/10	○ 세부 일정을 준수함. ○ 계획된 사업 100% 정상 추진함. ○ 시행계획 사업 33개 중 33개 정상추진; 123건 추가 추진	
	2-2. 중간단계 환류	5/5	○ 중간 단계 환류가 이루어짐. ○ 2024년 상반기 점검 결과 제시된 의견이 반영됨.	

		○ 상반기 점검시 자체평가위원들이 제시한 검토의견 매우 적극적으로 반영
2-3. 변화 대응성	15/15	○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함. ○ 상황 변화 및 의견 수렴 결과에 적절하게 대응하였음. ○ 상황변화 대응 관련 문제상황과 대응조치 체계적으로 제시; 다양한 수준과 방식의 모니터링 및 의견수렴 결과 제시
3-1.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목표치의 적극성달성도	29.8/30	○ 성과지표 실적치의 개별 내용을 확인할 수 없음. ○ 성과지표를 모두 합산하지 말고, 3개 정도의 세부 성과지표로 구분하여 비교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함. ○ 목표치가 적극적이며 초과달성함. ○ 성과지표의 대표성이 높음. ○ 과제 적극 추진하여 목표치 초과 달성 ○ 성과지표의 대표성도 우수함. ○ 성과지표를 세분화 하여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그 성과를 소개함. ○ 이러한 세분화가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음.
3-2. 정책 효과성	29.8/30	○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실질협력 확대 ○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정례화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 당초 의도한 효과 성공적으로 달성함. ○ 부수적 효과와 향후 기대효과도 큼. ○ 의도한 효과 명확히 제시하고 그 내용을 상세히 제공함. ○ 부수적 효과 내용도 체계적으로 제시됨; 기대 효과는 다소 추상적임.

평가결과	잘된 점	○ UNSC 이사국으로서 활발한 UN 다자외교 활동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 안보리 이사국 활동 차질 없이 진행 ○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을 위해 외교의 다양한 방면에서 정책을 추진하였음. ○ 유엔 안보리 이사국 수임 이후 의장국으로서 글로벌 현안에 리더십을 발휘한 것이 인정됨. ○ 안보리 이사국 활동 및 이를 통한 평화/안보 의제 선도와 우리 국민의 국제 기구 진출 지원 활동 등 의미 있는 성과 도출		
	개선할 점	○ 북한문제 논의 활성화의 경우,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로 실제 구체화가 어려운 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사이버 안보, 기후와 안보 등은 새로운 의제로 보기 어려운바, 안보 관련 주도권을 잡기 위하여 새로운 의제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중점과제의 구체적 진행계획 수립 및 집행 ○ 우크라이나 전쟁,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 기타 주요 국제안보 이슈에 대한 대 유엔 외교 전략 구체화 ○ 안보리 이사국으로 사이버 안보 공개 토론을 주도했으나, 안보리에서 예상되었던 러시아, 중국 등의 반대로 인해 북한 제재에 관해 효과적인 대응이 부족했음. ○ 구체적 홍보와 피드백(피드백을 통해 개선 등 반영된 사항이 무엇인지)이 부족		
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수립의 적절성	4.25/5	○ UNSC에서 중점의제를 제시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구체화를 위해 구체 전략 수립이 필요 ○ 안보리 이사국 수임에 대응하여 적절히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인정되나 북한 제재 및 모니터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에 대한 계획이 아쉬웠음.	
	1-2. 계획단계 소통·환류	4.75/5	○ 검토 의견이 적절히 반영되었음. ○ 계획 단계에서 전년도 평가 내용 및 당해연도 자체평가 검토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음.	
	2-1. 정책추진 노력	9.5/10	○ 정책 추진 노력이 적절히 진행되었음. ○ 계획된 일정에 따라 정책을 추진한 것이 인정됨.	

	2-2. 중간단계 환류	4.5/5	○ 새로운 안보 의제 발굴에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음. ○ 안보리 활동에 대한 전문가 소통, 특파원 간담회 등 홍보를 강화하고 국제기구 설명회에 대한 전년도 환류 의견을 반영하였음.
	2-3. 변화 대응성	13.75/15	○ 국제기구분담금법의 이행 외에 쟁점별 협업을 보다 구체화하고 심화할 필요가 있음. ○ 안보리의 이사국의 북한 제재 전문가 패널 임기연장 부결 등 대응성이 부족함.
	3-1.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목표치의 적극성달성도	27.75/30	○ 안보리 이사국 수임에 따라 적극적으로 활동한 정책 투입 노력이 인정됨. MIKTA 소다자협의회의 결과는 분명하지 않음. ○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의 증가를 평가함. ○ 유엔과의 협력과 사이버안보 등 중점 의제를 명확히 다루며 국제적 리더십과 성과를 구체적으로 제시
	3-2. 정책 효과성	28.25/30	○ 안보리 이사국, 의장국으로서 활동의 전략적 효과를 산출한 것이 인정되나, 북한 제재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 실패는 매우 아쉬움.

평가결과	잘된 점	○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 등을 위한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 인권위원회 이사국 복귀 및 인신매매보고서 1등급 복귀 ○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을 위해 외교의 다양한 방면에서 정책을 추진하였음. ○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단독 주최,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사회에 효과적으로 제기하고, 여성·평화·안보 및 신기술과 인권 등의 의제를 주도적으로 발전시킨 부분 높이 평가		
	개선할 점	○ 민주주의 증진으로 사회 관련 성과를 집중하는 것은 부적절함. 비국가행위자의 인권 및 사회 관련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 또한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의 민주주의 및 인권상황에 대한 대외적 신인도 유지 ○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및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 관련 국제공조 유지 ○ 여성, 평화, 안보, 신기술 등과 관련하여 국제사회에서 인권, 민주주의 이슈를 주도하는 것을 목적하였으나, 정책 목적이 다양하여, 전체를 아우르는 일관된 성과관리 계획이 필요하였으나, 구체적이고 뚜렷한 방향을 제시하고 추진하지 못한 측면을 지적함. ○ 구체적인 전략과 성과의 가시성을 높이는 구체적 홍보 방안이 필요함.		
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수립의 적절성	4.05/5	○ UN과 중복되는 업무가 있는바, 인권사회과 독자적 업무를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여성, 평화, 안보, 신기술부터 민주주의, 북한 인권, 국제 보건협력 등 지나치게 넓은 분야를 다루어 정책의 일관된 효과를 창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음.	
	1-2. 계획단계 소통·환류	4.75/5	○ 검토의견이 적절히 반영되었음. ○ 지난해 지적 사항을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지방정부와 인권 등은 지적사항과 무관한 내용으로 판단됨.	
	2-1. 정책추진 노력	9.5/10	○ 정책 추진이 적절히 진행된 것으로 평가함. ○ 연중 계획에 따라 정책을 추진한 것으로 판단됨.	

	2-2. 중간단계 환류	4.25/5	○ 민주주의 증진 외 사회 관련 다른 의제를 발굴할 필요가 있음. ○ 중간 단계 점검에서 제기된 의견을 적절히 반영 ○ 구체적 환류 성과 제시 필요
	2-3. 변화 대응성	14.25/15	○ 변화 추이를 적절히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함. ○ 민주주의 정상회의 준비 과정에서 관계기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노력은 매우 적절한 대응 과정으로 판단됨.
	3-1.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목표치의 적극성달성도	26.56/30	○ 다양한 분야에서 노력하였으나 일관된 목표와 그에 따른 전략이 뚜렷하지 않아 효과가 분산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간 협력과 국제기구 진출 확대 노력에 대한 성과를 명확히 설명, 다만 목표의 적극성이 모호함.
	3-2. 정책 효과성	28/30	○ 인권과 민주주의 관련 다양한 분야의 노력으로 의도한 효과가 발생하였으나 민주주의 선도국으로 대한민국의 위상이 확실히 제고되는 이차적 효과는 분명하지 않음

평가결과	잘된 점	○ 두코바니 원전 수주, IAEA 총회 의장 수임 등 의제 관련 활발한 활동을 전개한 것으로 평가함. ○ 원전 건설사업 해외 진출 및 한미 수출협력 논의 진전 ○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사업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우리 기업이 선정되도록 재외공관, 한전 한수원 간 협업을 지원한 것을 높이 평가함.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을 기반으로 최종 계약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요구됨. ○ 체코 신규 원전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IAEA 총회 의장직 수임 등 주요 성과를 통해 원자력 외교에서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		
	개선할 점	○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관련, 관련 규범 정립 주도 등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체코 두코바니 사업 계약 관련 팔로우 업 ○ 한미 원자력 협력 관련 양자간 협의 및 국내 전문가 및 대내 정책적 논의 증진 ○ 미국 주도 제3국 SMR 역량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은 인정되나 최근 몇 년간 투입된 SMR 관련 노력은 크게 가시적인 사업성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여전히 논의 수준에서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원전 수출 지원과 관련해 구체적인 계획 및 실행 방안을 보다 명확히 설정하고, 원자력 비발전 분야에서의 리더십 사례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 있음.		
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수립의 적절성	4.5/5	○ 원자력 수출과 핵안보 기여 관련 계획을 구분하여 보다 상세화할 필요가 있음. 유관부서와의 협의시 주도권을 잡고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원자력 선도국으로서 IAEA 적극 참여, 한미 간 미래지향적, 전략적 원자력 협력 등 계획 수립이 적절함.	
	1-2. 계획단계 소통·환류	4.5/5	○ 검토의견이 적절히 반영되었음. ○ 전년도 지적 사항을 계획에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음. ○ 계획 단계에서 이해관계자 등과의 소통 및 환류 구체성 부족	
	2-1. 정책추진 노력	8.75/10	○ 한국 비확산-원자력 저널의 경우, 영문으로 발간할 필요가 있음. ○ 연간 추진계획에 따라 정책을 추진한 것이 인정됨.	

		○ 일정 관리와 실행 과정에서 체계성이 다소 부족
2-2. 중간단계 환류	4/5	○ 군축비확산과와 긴밀한 협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 자체평가 중간 점검을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으나, 군축-비확산 문제에 관해 다른 부서와 업무조정 의견이 구체적으로 반영되지 못함. ○ 구체적 환류 성과 제시 필요
2-3. 변화 대응성	14.5/15	○ 변화 추이를 적절히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함. ○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미 원자력 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인정됨.
3-1.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목표치의 적극성달성도	27.25/30	○ 해외 원자력 발전소 건설 수주를 위해 재외공관과 한전 한수원 등과 협업한 결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성과가 인정됨. ○ 체코 원전 수주와 IAEA 의장직 수임 등 구체적 성과를 바탕으로 국제적 기여를 명확히 설명하였으나 향후 개선 방향의 구체성이 다소 부족함.
3-2. 정책 효과성	28/30	○ 향후 소형모듈 원자로 분야에서 보다 구체적인 정책 방향과 결과를 창출하는 노력이 필요함.

평가결과	잘된 점	○ NATO와 안보 공조 강화, 신안보포럼 개최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 NATO 및 UN과의 안보 공조 강화 ○ 사이버 협력, 신형안보 위협, 다자 안보기구와 협력 등 성과관리 시행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되었음. ○ 유엔 안보리 의장국 수임을 활용하여 사이버안보 공개토의 개최와 랜섬웨어 및 암호화폐 탈취 문제를 국제적 이슈로 부각시키는 등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		
	개선할 점	○ 테러, 해적 문제는 신형안보위협으로 보기 어려움. UN 사이버 규범 형성 관련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음. ○ 미국 및 주요국들의 정권교체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NATO 및 인도태평양 주요국(IP4)와의 안보협력 지속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및 관련 논의에의 주도적 참여 필요 ○ 사이버 안보 논의 관련해서 유관 부서 및 민간 부문과의 협업 및 자문 체계화 ○ 러·북 군사협력 대응에 대한 주요 국가 및 나토와 협력하여 대응을 모색하는 것을 넘어 구체적인 조치를 추진하려는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대국민 홍보 및 교육 활동도 추가적으로 필요하며 유관 부서와의 역할 및 협업 범위를 보다 명확히 정의하고, 중복 업무를 피하기 위한 체계적인 조정이 요구됨.		
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수립의 적절성	4.5/5	○ 사이버, 테러 문제에 집중하는 경우, 신안보 의제를 상대적으로 경시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신안보 의제 관련 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사이버 협력, 신형안보 위협, 다자 안보기구와 협력 등 성과관리 시행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되었음.	
	1-2. 계획단계 소통·환류	4.5/5	○ 검토의견이 적절히 반영되었으나, 신안보 의제의 포섭 관련 계획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생각됨. ○ 전년도 지적사항을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음.	
	2-1. 정책추진	9/10	○ 정책 추진 노력이 적절히 진행되었음.	

	노력		○ 일정에 따라 정책이 추진된 것으로 판단됨. ○ 일정 관리와 실행 과정에서 체계성이 다소 부족
	2-2. 중간단계 환류	4.25/5	○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사항으로 신안보 의제 관련 검토의견이 상대적으로 미흡하게 반영된 것으로 생각됨. ○ 사이버, 신기술 위협에 대응하는 국제협력과 논의에 참여하는 것을 넘어 한국의 정책방향을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랜섬웨어, 암호화폐 탈취에 강조를 두었음. ○ 구체적 환류 성과 제시 필요
	2-3. 변화 대응성	13.6/15	○ 변화 추이를 적절히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함. ○ 사이버 안보의 관점에서 지난 몇 년간 급격히 발전하는 AI 기술의 위협과 대응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신기술 분야(AI 및 퀀텀 기술)의 전략적 대응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약간의 아쉬움.
	3-1.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목표치의 적극성달성도	27.25/30	○ 전반적으로 정책 추진성과가 인정되나, 테러 해적 신기술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써 해적퇴치협력 사무국장 선거에 적극적으로 대처했다는 점은 정책성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 사이버안보와 다자 협력활동은 다양하게 이루어졌으나, 이를 통해 정책적(실질적) 성과로의 연계 여부가 미흡
	3-2. 정책 효과성	27.75/30	○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 랜섬웨어 이니셔티브 등 정책추진 효과가 인정됨, 신기술 위협에 관한 정책추진 효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함. ○ 국제적 협력의 성과를 국민과 이해관계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체감도를 높이는 방안이 부족, 신기술 관련 안보 위협에 대한 장기적 전략과 실행력 강화가 필요

평가결과	잘된 점	◦ REAIM 개최, 우주 안보 관련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 REAIM 고위급 회의 개최를 통한 AI의 안보적 활용에 대한 거버넌스 논의 주도 ◦ AI, 우주, 생물 분야 등 새로운 분야에서 군축, 비확산 의제 및 규범을 주도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인정됨. ◦ AI와 우주 안보 등 신기술을 포함한 군축·비확산 분야에서 국제 협력을 주도하며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 특히, AI의 군사적 활용 관련 국제규범 형성을 위한 REAIM 고위급회의 개최, 유엔 결의안 상정 및 채택, 그리고 북핵 문제와 러-북 군사협력에 대한 강력한 대응 등에서 성과		
	개선할 점	◦ 우방국과의 공조 강화의 결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성이 있음. ◦ 논의 의제가 광범위한 관계로 핵심 정책목표를 명확히하여 의제군을 클러스터 형식으로 접근하는 것도 유용할 것임. ◦ 평가지표가 산술적인 면에 치우친 감이 있음. 정성적 측면의 강화가 도움이 될 것임. ◦ 군사분야에서 책임있는 AI의 활용이라는 선언적 의제를 넘어, 군사분야 AI 활용을 실질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방향이 분명하지 않음. 이에 따라 국내·외 산업분야에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우주 분야에서도 책임있는 군사적 활용과 산업개발과의 딜레마를 해결하는 구체적 대안 제시 부족함. ◦ 우주와 AI 분야에서 우리 기술 개발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국제사회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세부적인 협상 전략이 부족 ◦ 다양한 국제회의 간 유기적 연계성을 높이고, 관계부처와의 협업 구조를 더욱 체계적으로 개선하여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킬 필요 있음.		
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수립의 적절성	4.5/5	◦ 계획이 적절히 수립된 것으로 평가함. ◦ 새로운 군축 아젠다를 주도하려는 계획 수립의 적절성이 인정됨.	
	1-2. 계획단계 소통·환류	4.5/5	◦ 검토의견이 적절히 반영된 것으로 평가함. ◦ 계획단계의 소통, 환류 노력이 인정되나 우주안보의 구체성, 딜레마에 대한 시행계획에 대한 검토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것임	

2-1. 정책추진 노력	9/10	○ 쟁점 관련 국제규범 형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국제법규과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함. ○ 정책 추진 노력이 연중 일관되게 진행됨. ○ 일정 관리와 실행 과정에서 체계성이 다소 부족
2-2. 중간단계 환류	4.25/5	○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비전과 그에 따른 계획의 필요성을 지적인 내용이 좀 더 구체적으로 반영되지 못함.
2-3. 변화 대응성	14.25/15	○ 변화 추이를 적절히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함. ○ 새롭게 등장하는 다양한 국축 이슈에 대해 REAIM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이 인정됨.
3-1.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목표치의 적극성달성도	27.25/30	○ 복잡하고 다양한 신흥 군축 아젠더를 주도하려는 노력과 일정한 목표 달성의 성과가 인정됨. ○ 군축비확산분야에서의 의제 선도는 어려울 수 있으나, AI와 우주 안보 등 신흥 이슈에 적극적인 참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임. (단순 참여가 아닌, 산학연과의 연계로 국내에서의 실질적 정책 개발 및 검토/이행이 동반될 수 있도록)
3-2. 정책 효과성	28.75/30	○ 군사분야에서 AI 활용에 관한 국제규범 논의를 주도한 일차적 효과가 인정되나, 그 내용이 선언적 수준을 넘어서 실제 산업분야에 가이드가 될 수 있는 구체성이 높지 않아 부수적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음.

평가결과	잘된 점	○ MSMT 설립 주도, 안보리 차원에서 러북협력의 불법성 지속 공론화, 신 수출 통제 담론 관련 활동을 높이 평가함. ○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 설립 주도 ○ 러시아의 반대로 인해 15년 만에 해체된 전문가 패널을 대신하는 다국적제재 모니터링팀을 주도적으로 설립한 것이 인정되며, 금수품 적재 선박 억류 및 제재 발표를 통해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필요한 수출품 차단 성과 ○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위한 국제적 공조 강화, 다자 및 양자 수출 통제체제 내 선도적 역할 수행, 그리고 신흥 민감 기술의 탈취 방지와 같은 새로운 수출통제 담론의 형성에서 성과
	개선할 점	○ UNSC의 구조상 러북협력의 불법성 공론화의 구체화를 위해 추가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대북제재 실효성 및 모니터링 효과 제고를 위한 아웃리치 강화 ○ 미국 차기 행정부 하에서의 수출통제 정책에 대한 선제적 검토와 대응 ○ 대북제재 결의 이행 미진국에 대해 데마췌 및 아웃리치 실시한 결과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음. ○ 국민과 이해관계자 대상 아웃리치를 확대하여 제재와 수출통제의 중요성을 알릴 필요, 러북 군사협력과 같은 새로운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보다 구체적인 전략 및 다자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수립의 적절성	4.5/5	○ 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된 것으로 평가함. ○ 성과관리 추진계획에 전문가 패널 임기연장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못함.
	1-2. 계획단계 소통·환류	4.5/5	○ 검토의견이 적절히 반영된 것으로 평가함. ○ 전년도 자체평가 지적사항을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음.
	2-1. 정책추진 노력	8.75/10	○ 발언 및 토론 이후 Feedback을 보다 상세히 홍보할 필요가 있음. ○ 연중 일관되게 정책을 추진하고자 노력하였으나, 다국적 모니터링팀 구성에 관한 내용이 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았음. ○ 신규 제재 도입 및 이행 과정에서 구체적 로드맵과 실질적인 성과 관리를 위한 일정 관리가 다소 미흡
	2-2. 중간단계 환류	4.5/5	○ 신흥민감기술 관련 국제공조 강화를 높이 평가함. ○ 자체평가 중간 점검 지적사항을 반영하고자 노력 ○ 구체적 환류 성과 제시 필요
	2-3. 변화 대응성	13.5/15	○ 변화 추이를 적절히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함. ○ 전문가 패널 임기연장 불가에 따라 다국적 모니터링팀을 구성하는 등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음. ○ 국제적 공조 체계를 선제적 구축/전략 필요
	3-1.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목표치의 적극성달성도	27/30	○ 성과 지표의 재정비 필요. 목표치-실적치 비율 및 성과 산정방식의 재검토 의뢰 ○ 우리 주도의 다국적 모니터링 팀 구축 ○ 대북 제재 미이행 국가에 대한 데마쉴 이후 대상국의 실질적인 행동결과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함. ○ 국제정세 상 대북제재 및 양/다자간 수출통제 관련하여 업무 수요의 불확실성 언급은 다소 동의하기 어려움.
	3-2. 정책 효과성	26.75/30	○ 유엔 안보리의 정당성을 가지지 않은 다국적 모니터링팀의 제재 이행에 대한 감시 효과가 전문가 패널과 비교하여 유사한지 불분명함. ○ 대북제재 및 수출통제 분야의 국제적 기여를 강조했으나, 성과의 체감성과 홍보 전략이 미흡

	잘된 점	○ 조약정보 홈페이지 완성 및 국내 유치 국제회의 및 포럼의 성공적인 개최, 다자조약 성안 적극 기여를 높이 평가함. ○ 대민 공공외교 분야의 성과 증가 ○ 조약정보 홈페이지 구축완료 및 서비스 개시로 조약 정보 활용을 위한 공공 서비스 개선 ○ 조약 정보 홈페이지 개설로 대국민 접근성과 편의성을 대폭 개선하고, 주요 조약의 디지털화, ICC 청년 진출 간담회, 국제법률기구 회의 참여 및 국제규범 성안에 기여하며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역할 강화
평가 결과	개선 할점	○ 조약정보 홈페이지에 챗봇 기능을 추가하면, 보다 접근성이 제고될 것으로 생각됨. ○ 적극 행정의 취지는 좋으나 성과 강조점이 지나치게 국내 지향적인 측면이 있음. 국제 조약 및 협력 차원에서의 정책 목표의 우선적 반영이 바람직해 보임. ○ 조약 정보 홈페이지 구축이 진행된 지난 2~3년 사이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 개발로 조약정보 검색과 활용에 대한 국민의 서비스 수요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는 방안을 준비하지 못한 아쉬움이 큼. ○ 주요 조약의 체결 및 이행 상황에 대한 대국민 피드백 체계를 강화하고, 국제 법률기구 회의에서 단순 참여를 넘어 구체적인 성과 기여를 보다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 있음.

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수립의 적절성	4.75/5	○ 계획이 적절히 수립된 것으로 평가함. ○ 조약에 관한 법적 검토 및 국민 서비스 개선 계획이 적절히 수립됨.
	1-2. 계획단계 소통·환류	4.75/5	○ 검토의견이 적절히 반영된 것으로 평가함. ○ 소통 및 환류 노력이 인정됨.
	2-1. 정책추진 노력	9/10	○ 계획대로 적절히 추진된 것으로 평가함. ○ 계획에 맞추어 정책을 연중 충실하게 추진 ○ 추진 일정들 간의 연계와 조화 부족
	2-2. 중간단계 환류	4.5/5	○ 검토의견이 적절히 반영된 것으로 평가함. ○ 행정부처의 수요에 대해 선제적 대응 등 개선 의견 반영 ○ 구체적 환류 성과 제시 필요
	2-3. 변화 대응성	13.25/15	○ 조약 정보 홈페이지의 접근 용이성 제고에 노력할 것을 요청함. ○ 조약 정보 시스템 과정이 수행된 지난 2~3년간 급격히 발전한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 등 변화에 대한 대응이 부족하였음. ○ 급증하는 기관 간 약정 등의 검토 요청에 부합하는 새로운 방법/체계에 대한 고민 필요
	3-1.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목표치의 적극성·달성도	27/30	○ 성과 지표의 재정비 필요. 목표치-실적치 비율 및 성과 산정방식의 재검토 의뢰 ○ 외교 활동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조약 체결을 위한 법률 검토와 조약정보 시스템 구축 등 성과가 인정되나, 지난 몇 년간 추진한 사업이 결과를 맺는 것으로 목표치의 적극성이 높지 않음. ○ 조약 디지털화와 국제협력 성과를 중심으로 논리적으로 구성되었으나, 성과의 국제적 영향력에 대한 구체성이 아쉬움.
	3-2. 정책 효과성	29/30	○ 조약 등에 관한 법률 자문, 청년의 국제기구 진출 지원, 조약 정보 시스템 활용 등 의도한 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판단됨.

평가결과	잘된 점	○ ICJ 등 국제사법기구에 적극 참여한 것을 높이 평가하며, 대북 쟁점 관련 정확한 Lawfare를 전개한 것으로 생각됨. 또한, 외교부내 국제법역량강화를 추진한 것을 높이 평가함. ○ 한일 남부대륙붕 공동개발협정 논의 재개 ○ 주요 외교 현안 및 외교 사안에 관해 활발한 국제법적 검토 및 자문을 시행한 것이 인정됨. 기후변화 관련 ICJ 과정에 우리 정부 입장을 서면 및 구두절차 참여 ○ 북한 GPS 신호교란 행위에 대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결정 채택을 주도하며 국제 규범 형성에 기여했고,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기후변화 권고적 의견 절차에 우리나라 최초로 참여하여 규범 기반 다자외교 리더십을 강화		
	개선할 점	○ 한일 남부대륙붕 공동개발협정 논의 관련 명확한 팩트 위주의 정책 수립 및 홍보 필요 ○ 법률 자문의 대상인 정책 고객을 구체적으로 분류하여 수요에 맞는 법률 자문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세분화된 접근이 필요함. 한편 외교 현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국제 외교 무대에서 한국의 입장을 개진하기 위해 정책분야 별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고 실무를 담당하는 부서와 협업하는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함. ○ 각 부처와의 협업 체계를 강화하여 선제적 대응 역량을 더욱 높일 필요		
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수립의 적절성	4.75/5	○ 국제법 현안 및 우리 정부의 Lawfare 계획이 적절히 수립된 것으로 평가함. ○ 외교정책의 국제법적 정당성 제고 등의 성과목표는 적절하나, 국내 국제법적 역량 강화를 위해 모의재판 같은 행사보다 외교부 내의 국제법 전문가적 역량을 강화하는 것에 강조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1-2. 계획단계 소통/환류	5/5	○ 국제법역량강화 관련 검토의견이 충실히 반영된 것으로 평가함. ○ 전년도 평가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음.	
	2-1. 정책추진 노력	9/10	○ 계획대로 충실히 추진된 것으로 평가함. ○ 연중 정책 과제를 충실하게 이행하고자 노력하였음.	

		○ 국제규범 논의와 다자협의 일정에서 우선순위 설정과 실행의 체계성이 부족
2-2. 중간단계 환류	4.75/5	○ ICJ, UN 등에서 우리정부의 국제법 입장을 적절히 개진한 것으로 평가함. ○ 자체점검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음. ○ 구체적 환류 성과 제시 필요
2-3. 변화 대응성	13.5/15	○ 변화 추이를 적절히 반영한 것으로 평가함. ○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GPS 신호교란, 우크라이나 전쟁 등 급격한 상황변화에 대응하고자 노력하였음. ○ 급변하는 국제 법적 환경에 대해 장기적 관점의 체계적인 대응 계획이 다소 미흡
3-1.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목표치의 적극성달성도	27/30	○ 국제법 법률 자문 및 외교적 대응을 충실히 수행한 것이 인정됨. ○ 정책 고객별 세분화된 대응이 필요함. ○ 목표 설정이 아주 도전적이지 않음. ○ 국제법적 기반 강화와 규범 형성에 기여한 점은 긍정적이나, 구체적 사례와 성과의 명확성이 다소 부족
3-2. 정책 효과성	27.75/30	○ 주요 외교현안에 국제법적 검토를 유관부서에 제공 ○ 관계부처와 협업인정되나 정책 고객이 법적 자문을 통해 성과를 얻을 수 있는 부수적 효과가 불분명 ○ 국제법 기반 다자외교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성과 지표와 국민 체감도를 높이는 방안이 다소 미흡

평가결과	잘된 점	○ 해양법 분야 국제 규범 형성 논의 주도 및 외연 확대 사업을 높이 평가하며, 특히 친한파 국제법학자 Network 형성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높이 평가함. ○ 영토주권에 대한 국내외 논의 확산 ○ 독도·동해 표기 확산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했으며, 독도 영토 주권 근거 강화를 위한 국제법적 논리 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추진이 인정됨. ○ 독도·동해 표기 오류 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독도와 동해 표기의 국제적 확산을 위한 국제수로기구(IHO) 및 미주지리역사연구소(PAIGH) 총회 참석 등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여,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역할을 수행		
	개선할점	○ 생성형 AI 관련 보다 구체적인 방향성이 제시될 필요가 있음. ○ 연구 용역 등을 국제 학술지를 통하여 발간할 필요가 있음. ○ 정책 및 홍보 논리의 정교화 및 실효성 강화 ○ 해양법 분야 국제 규범 형성을 위해 해양법 국제학술 대회를 개최하고 해외 인사를 초청함에서 있어서 프로그램을 보다 정교화하고, 전략적 차원에서 그 역할을 좀 더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함. ○ 해외 주요 인사 방한 초청이 외교적 성과로 연결되는 구체적 경로와 장기적 효과를 명확히 입증할 필요 ○ 홍보 활동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차별화된 메시지와 프로그램을 보완해야 하며, 지속 가능하고 장기적인 홍보 전략이 필요		
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수립의 적절성	4.75/5	○ 계획이 적절히 수립된 것으로 평가함. ○ 독도·동해 영유권 및 표기 확산을 위한 계획이 적절함. 그러나 해외 유력인사를 초청하여 ‘친한파’ 관리 육성하는 계획을 보다 고도화·정교화 하는 것이 필요함. ‘친한파’라는 감성적 개념보다는 한국의 해양 정책의 적절성, 정당성에 동의하고 지지하는 합리적 인사 확보라는 접근이 필요함.	
	1-2. 계획단계 소통·환류	4.75/5	○ 검토의견이 충실히 반영된 것으로 평가함. ○ 독도 영유권 정책의 패러다임 고도화를 위한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음.	
	2-1. 정책추진 노력	9/10	○ 계획대로 충실히 추진된 것으로 평가함. ○ 시행 계획에 따라 연중 정책을 차근 차근 추진한 것이 인정됨. ○ 중장기 계획의 구체성이 다소 미흡	

	2-2. 중간단계 환류	4.5/5	○ 국제법 대응 관련 친한파 Network 형성 및 유지를 높이 평가함. ○ 자체평가 중간 점검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음. ○ 구체적 환류 성과 제시 필요
	2-3. 변화 대응성	13.5/15	○ 변화 추이를 적절히 반영한 것으로 평가함. ○ 생성형 AI의 등장에 따라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고자 노력한 것이 인정되나, 미래 세대 전문가 양성 측면보다는 정부의 해양 정책의 공유 및 확산에 강조를 두는 것이 필요함. ○ 기존 매체뿐만 아니라, SNS 및 1인 미디어 등의 확산에 대응한 적극적(선제적) 활동이 필요
	3-1.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목표치의 적극성달성도	26.75/30	○ 정책 추진 노력이 주로 추진 단계의 투입 노력으로서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한 도전적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려는 측면은 약함. ○ 독도와 동해 표기 관련 국제 홍보와 성과는 있으나, 장기적 전략과 구체적 사례의 명확성이 부족
	3-2. 정책 효과성	27/30	○ 독도의 영유권과 동해 표기 오류 시정의 당초 의도한 결과 창출인정되나, 국격에 맞는 글로벌 중추국가에 걸맞는 역할을 수행하여 내국민 인식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인식을 제고하는 데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적극성/선제성이 좀 더 표현될 수 있도록 활동 추진되어야 해당 효과를 제대로 발휘할 것으로 판단됨.

평가결과	잘된 점	○ 선진국형 개발협력 개념 형성, IEM, 한국형 ODA 전략 수립 등을 높이 평가함. ○ 인적역량개발에 중점을 둔 선진국형 개발협력 브랜드 마련 ○ 한국의 독특한 '선진국형 개발협력' 개념을 수립하여 ODA를 추진한 것이 인정되며, 인태 전략 이행과 발맞춘 개발협력 정책 추진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인태 전략 이행을 지원하는 ODA 전략을 마련하고, G20 개발장관회의 및 글로벌 지속가능발전포럼(GEEF) 등 다자 외교의 장에서 한국의 리더십을 보여준 점 높이 평가		
	개선할 점	○ 한국형 ODA 전략, IEM 등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홍보할 필요성이 있음. ○ 선진국(G7등)과 개발도상국(Global South)에 각각 최적화된 논리와 의제를 나누어 접근할 필요도 있음. ○ 인태 지역에 있어서 개발협력 공조 체제 강화 모멘텀 유지 ○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이 매우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business-as-usual 접근보다는 이와 같은 상황에 맞추어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 ○ 연구용역 결과를 정책에 반영한 구체적 사례와 성과를 제시하여 정책 실행의 실질적 영향력을 강조할 필요 있음.		
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수립의 적절성	4.75/5	○ 계획이 적절히 수립된 것으로 평가함. ○ 선진국형 개발협력 및 한국형 ODA 수립 전략이 적절하였음.	
	1-2. 계획단계 소통·환류	4.75/5	○ 검토의견이 적절히 반영된 것으로 평가함. ○ 전년도 평가 지적사항을 보완하고자 하였음.	
	2-1. 정책추진 노력	8.5/10	○ 정책 추진이 충실히 진행된 것으로 평가함. ○ 계획에 따라 연중 계획 추진 ○ 순연된 추진 계획의 사유 기재 또는 대체일정/방식에 대한 고민 필요	

	2-2. 중간단계 환류	4.25/5	○ 선진국형 개발협력 및 한국형 ODA의 구체화 전략을 보다 상세히 수립할 필요성이 있으며, 적극적 홍보 또한 추진할 것을 요청함. ○ 중간 점검의견을 반영하고자 하였음. ○ 구체적 환류 성과 제시 필요
	2-3. 변화 대응성	13.25/15	○ 변화 추이를 적절히 반영한 것으로 평가함. ○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감안하여 적절한 대응 전략이 필요함. ○ 비대면 방식 등을 고려한 순연 일정에 대한 대응 다소 미흡
	3-1.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목표치의 적극성달성도	27/30	○ 선진 공여국으로서 국제개발협력 정책을 탈바꿈 하고자 하는 노력이 인정되나, 국제개발의제과와 개발전략 민간 협력과의 협업을 통한 성과를 구체적으로 산출할 필요가 있음. ○ 국제개발협력의 방향성과 전략을 잘 제시했으나, 성과와 개선 방안의 구체성이 부족
	3-2. 정책 효과성	26.75/30	○ 협업을 통한 부수적 효과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이를 산출하는 구체적인 정책 수단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주요 논의에서의 우리 입장 반영의 의미, 반영된 내용 중 구체적 성과 불명확

평가결과	잘된 점	○ 국제사회의 연대 및 공조 강화 차원에서 ODA 수행 및 KOICA 관리 감독 및 업무협약의 강화, ODA 분절화 해소 시도를 높이 평가함. ○ ODA 분절화 해소 기여 강화 ○ 관계부처와 협의 하에 아세안 개발협력전략, 중남미 개발협력전략, 중아아 개발협력전략, 개발컨설팅 사업 가이드 라인 등 지역별, 분야별 개발협력 전략 수립 추진 ○ 인도-태평양 전략,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등 주요 외교 과제와 연계된 맞춤형 ODA 전략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점 높이 평가
	개선할 점	○ Post-conflict 관련 개발 협력 단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상황 주시 및 구체 계획 수립을 권고함. ○ 중점 개발협력 사업의 보다 명확한 부각이 필요 ○ 우크라이나 재건 복구사업에 대한 논의 참여 강화 ○ 청년인재에게 글로벌 개발협력 경험 부여와 코이카 커리어 홈페이지 구축 등으로 개발협력 인재양성과 ODA 생태계를 육성하고자 하였으나, 개발협력 인재들이 커리어 로드맵에 따라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생태계가 구축되었다고 판단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함. ○ 수원국과의 구체적인 협업 성과를 더 명확히 제시하고, 사업이 해당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미친 구체적 영향력을 강조할 필요 있음.

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수립의 적절성	4.75/5	○ 계획이 적절히 수립된 것으로 평가함. ○ 현장중심, 지역별, 분야별 ODA 전략을 수립하였음.
	1-2. 계획단계 소통환류	4.75/5	○ 검토의견이 충실히 반영된 것으로 평가함. ○ 전년도 지적 사항을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음.
	2-1. 정책추진 노력	9/10	○ 정책이 계획대로 충실히 추진된 것으로 평가함. ○ 연중 일관되게 정책을 추진하였음. ○ 정책 간 연계가 구체적 로드맵으로 제시되면 좋을 것 같음.
	2-2. 중간단계 환류	4.5/5	○ KOICA 관리 감독 및 업무협약 강화로 ODA의 투명성 제고에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함. ○ 자체평가 지적사항을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음. ○ 구체적 환류 성과 제시 필요
	2-3. 변화 대응성	14.25/15	○ 변화 추이를 적절히 반영한 것으로 평가함. ○ 대폭적인 ODA 예산 증가에 발맞추어 집행관리를 강화하였음.
	3-1.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목표치의 적극성달성도	27.25/30	○ 계획에 맞추어 정책을 추진하여 목표달성 효과성이 높으나 도전적 목표를 세워 추진한 것 보다는 달성 중심의 목표 설정이라고 판단됨. ○ 현장 중심의 ODA와 대규모 우크라이나 지원 등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제시. 재외공관의 역할 강화 및 민관협력 확대 등 실질적 노력을 잘 기술
	3-2. 정책 효과성	28.25/30	○ ODA 정책의 효과 창출을 위해 안정적, 구체적 정책을 추진하였음.

평가결과	잘된 점	○ 국제기구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우리 기여를 홍보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선진 보건 공여국 역할을 수행한 것을 높이 평가함. ○ 다자 ODA의 질적 향상 ○ 주요 다자 국제기구와 협력관계 강화를 통해 다자 ODA 효과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인정됨. ○ 글로벌 보건 기여를 확대하며 국내 바이오 산업의 해외 진출 기회를 창출한 점도 중요한 성과로 평가		
	개선할 점	○ 인도적 지원 강화 관련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으며, 글로벌 중추 국가 외교에 있어서 인도적 지원의 중요성을 보다 명확히 홍보할 필요가 있음. ○ 중점 개발협력 사업(플래그십 사업)의 보다 명확한 부각이 필요 ○ 우크라이나 재건 복구사업에 대한 논의 참여 강화 ○ 대외전략과 연계되는 대표적인 다자 사업을 발굴하여 다자외교의 가시성과 효과성을 높이하고자 하였으나, 한국을 상징하는 다자외교 Flagship 프로그램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음. ○ 인도적 지원 분야에서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더욱 확대하고, 긴급구호대 활동과 관련된 대국민 피드백 체계를 강화하여 국민적 지지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		
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수립의 적절성	4.25/5	○ 계획이 적절히 수립된 것으로 평가함. ○ 다자외교와 인도적 지원의 두 가지 목표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전략이 필요함.	
	1-2. 계획단계 소통·환류	4.75/5	○ 검토의견이 충실히 반영된 것으로 평가함. ○ 지난해 지적사항을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음.	

	2-1. 정책추진 노력	9.5/10	○ 정책이 계획대로 충실히 추진된 것으로 평가함. ○ 연중 정책을 계획에 따라 정상 추진하였음.
	2-2. 중간단계 환류	4.75/5	○ 검토의견이 충실히 반영된 것으로 평가함. ○ 중간 점검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음.
	2-3. 변화 대응성	14.5/15	○ 변화 추이를 적절히 반영한 것으로 평가함. ○ 24년도 다자외교, 인도적 지원 분야에서 특별히 예측 불가능했던 변화가 존재하지 않아 변화에 관한 대응성이 크게 요구되지 않았음.
	3-1.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목표치의 적극성달성도	27/30	○ 전체적으로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판단되나 설정된 목표가 매우 도전적이라고 보기 어려움. ○ 글로벌 보건 기여와 인도적 지원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기여와 성과를 명확히 기술. 다자협력과 인도적 지원의 체계적 성과 제시 및 민관협력 강화 노력도 두드러짐.
	3-2. 정책 효과성	28/30	○ 국제 다자외교에서 한국의 가시성을 높이하고자 다양한 외교적 노력을 추진한 것이 인정되나, 한국을 대표하는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Flagship 다자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이 요구됨.

통합적 공공외교 체계 공고화 및 다양한 공공외교 참여자와의 협력 강화

평가결과	잘된 점	○ 공공외교 활성화 주관부처로서의 활동이 돋보임. ○ 공공외교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무난히 수행. 청년 공공외교의 추진 구체적 성과, 인지도 제고를 위한 국민외교의 추진 지속, 공공외교 참여자 확대 등의 성과가 있음. ○ 통합적, 체계적인 범정부 차원의 공공외교 추진 체계 강화 및 다양한 공공외교 참여자와의 협력강화가 돋보임. ○ 관계부처 기관의 참여 확대를 통한 실질적 성과가 이루어졌음. ○ KF의 역할 강화 부분에서도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짐. ○ 관계 부처 및 기관의 컨트롤 타워 기능을 위한 역할 수행을 강화하여 공공외교 실무위원회와 문화공공외교 실무위원회의 참석수를 증가시켰음. ○ 청년의 공공외교 현장실습의 참여를 전년도와 비교하여 증가했으며, 특히 비수도권 청년들의 선발 배려는 실질적 평등을 제고하는 조치였음. ○ 공공외교 실무위원회 참여 기관 확대 및 기업과의 공공외교 강화를 통한 공공외교 외연 확대 노력이 주요 성과로 평가됨. ○ 일반 국민, 외국인 강사 등의 공공외교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공공외교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함.
	개선할 점	○ 국제교류기금의 축소 등 기금축소의 압박은 추세적으로 더욱 강화될 것. 기금에 100% 의존하지 말고 외교부에 별도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임. 특히 코이카에 집중된 ODA예산을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임. ○ 최근 국내외적 변화에 대응하여 공공외교의 질적 전환에 대응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기대됨. 최근 '매력발산의 공공외교'에서 '매력위기 대응의 공공외교'로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 필요 ○ KF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의 강화 및 사업의 효율화를 위한 구조조정이 필요해 보임. ○ 공공외교 콘텐츠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의 역사, 문화와 더불어 외국인들이 자주 접하게 되는 법령 등으로의 다양화가 필요해 보임. ○ 범부처 차원의 공공외교 실현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으나 그 목적성, 예컨대 글로벌 중추국가와 같은 비전과의 연계성, 방향성은 미개선 ○ 지자체의 공공외교 활동에 대한 지원의 협력 강화(연 170건 이상)와 관련하여 2023년 대비 2024년의 구체적 성과에 대한 설명이 미흡함. ○ 공공외교의 확장 측면에서 재외명예영사의 초청(24년 12명) 건을 증원하여 공관의 지원 활동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음. ○ 국제교류재단의 역할과 설립목적을 고려하더라도 기존방식에 큰 변화가 없어 행사 내용이나 방식의 다변화 등 쇄신이 필요함.

		○ 국가와 자신에 대한 자긍심이 공공외교의 주요한 동력이 된다는 점에서 공공 외교와 관련해 일하는 외교관 및 담당자들의 역량과 자긍심을 강화할 수 있는 위한 지원 제도나 프로그램의 보강이 필요함.		
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수립의 적절성	4.33/5	○ 계획 수립의 적절성 우수함. ○ 통합적 공공외교의 지향점/목표가 보다 구체적으로 설정된다면 계획수립의 구체성 및 적절성이 개선될 수 있을 것 ○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공공외교를 추진하고 주도하려는 공공외교총괄과의 전체 계획 수립은 적절함. ○ 2024년 대국민 공공외교 참여자 수의 기존 20% 상향 목표를 15%로 하향됨을 지적했으며, 계획에 이를 반영하고 있음. ○ 공공외교 참여자와 주체 확대 관련 계획을 적절히 수립함.	
	1-2. 계획단계 소통·환류	4.17/5	○ 계획 단계 소통 환류 우수함. ○ 자체평가 의견 반영은 부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여짐. ○ 2023년 및 2024년 평가위원의 의견을 정책 개선 사항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30 자문단 및 공공외교위원회의 정책 제언이 공공외교 총괄과 정책으로 반영되었음. ○ 자체평가 의견과 수혜자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절히 반영함.	
	2-1. 정책추진 노력	9.33/10	○ 정책 추진 노력 우수함. ○ 기계획 일정 모두 정상추진됨. ○ 28개 사업 중 27개 사업의 정상 추진(96.4%) ○ 2차 한-호주 문화공동위원회 개최는 호주의 사정으로 연기되었음. ○ 일정에 따라 충실히 수행함.	
	2-2. 중간단계 환류	4/5	○ 중간단계 환류 우수함. ○ 검토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으나 해당분야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지속요구됨. ○ 예컨대, 인태지역 대상에 대한 프로그램의 정례화, 체계화를 위한 계획수립 등, 공공외교 체계의 공고화를 위한 노력이 요구됨. ○ 2024년 성과관리 상반기 안건에 대한 평가위원의 지적을 반영하고 있음. ○ 주요인사 전략적 초청사업(14개국 16명)에서 7개국 8명 초청으로 사업이 완료되었음. 이를 정상 추진으로 볼 수 있는가? 나머지 인사는 개인 일정으로 방한이 불가했지만,	

			결국 잘못된 초청인사의 수립계획은 아니었는가? ○ 13쪽 표의 경우(주요인사) 7개국 8명 초청, 그러나 중간 단계 환류의 주요인사 전략적 초청사업에서는 6개국으로 표기, 정확한 초청 국가는 몇 개였는가? ○ 공공외교 우수사례전과 다양한 위원회개최는 의미있는 성과지만 총괄과가 추진하는 특징있는 사업개발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중간단계 환류가 필요함.
	2-3. 변화 대응성	11.33/15	○ 국제교류기금 감축 대책에 아쉬움이 있음. ○ 변화대응은 대체로 우수하는 좀 더 적극적 대응 필요 ○ KF 예산 삭감에 따른 온라인 사업 활용 등 대응을 위한 능동적이고 가시적인 노력이 이루어졌다고 평가됨. ○ 그러나 타과제 추진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및 의견수렴 여부는 적시되어 있지 않아 감점하게됨. ○ 변화 대응성 측면은 주요인사 초청사업을 제외하고 잘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주요인사 전략적 초청사업의 당초 계획은 14개국 16명이었지만 사업 완료의 결과는 7개국 8명 초청으로 귀결되었음. 초청 인사의 방한 불가에 대한 공공외교총괄과의 적극적 대응은 미숙하였음. ○ 재원감소를 감안하더라도(감안한다면), KF의 역할과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재설계가 필요함.
	3-1.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목표치의 적극성달성도	26/30	○ 전반적으로 성과지표가 달성됨. ○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적극성이 보임. ○ 설정된 목표치는 모두 초과달성되었으나, 통합적 공공외교의 지향점/목표에 대한 방향성 제시가 다소 미흡하며, 결과적으로 목표치의 구체성과 적극성, 성과지표의 대표성이 연쇄적으로 제한되는 경향이 있다고 평가됨. ○ 다양한 공공외교 주체들과의 소통 실적은 146%, 대국민 공공외교 참여자 수 153%, 2건 합계 149%를 넘어 초과 달성 ○ 문제는 이들 참여자의 만족도에 대한 결과도 도출되었으면 함. ○ 참여자 수 및 참여 기관의 수적 증가와 이를 측정하는 지표 마련은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수행했다는 측면에서 의미있는 성과임. ○ 그러나 참여주체 다양화가 어떠한 공공외교의 질적 다변화로 이어졌는지 측정하고 보여줄 지표 마련이 필요함.
	3-2. 정책 효과성	27.5/30	○ 특별한 부수적 효과를 찾을 수 없음. ○ 의도한 효과가 거의 달성됨.

		○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기대효과 모색 필요 ○ 통합적 공공외교 체계 공고화를 위한 지속 노력에 따른 상당한 성과가 있었음. ○ 그러나 부수적 효과부분에서 참여자들의 공공외교 역량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강화되었는지는 불명확(만족도 결과만으로는 불충분). 공공외교사업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능력이 향상되었는가? 향후 진로 모색과 취업에서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은 공공외교사업이 지향해야할 매우 부수적인 영역이라고 보여짐. ○ 주요인사 전략적 초청사업은 당초 목표와는 달리 7개국 8명 초청으로 귀결되었음. 차년도에는 이에 대한 대응방안 또는 계획 수립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치 제시가 필요 ○ 청년들의 공공외교 참여는 다방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양산함. ○ 외국 인사를 대상으로 친한 네트워크 구축은 현재와 미래의 공공외교 자원이라는 점에서 향후 우호적 지지를 받도록 지속적인 관계를 갖을 필요가 있음. ○ 부수적 효과로 제시한 우리 국민 참여 확대는 공공외교 사업의 주요 목표에 해당함.
--	--	---

평가결과	잘된 점	○ 대를 이은 유네스코 집행이사국으로서의 활약이 돋보임. ○ 한-유네스코 협력 내실화, 세계유산회원국 활동 개시, 그리고 유네스코 외교 관련 민감 현안 관리 등의 분야에서 노력한 부분을 높게 삼. ○ 한-유네스코 협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정책협의회 개최. ○ 대유네스코 외교 강화를 통한 '국격제고'라는 명확한 지향점 및 추진계획 수립/이행 ○ 특히 사도광산 등 민감 현안에 대한 능동적인 노력이 이루어졌다고 평가됨. 관계기관 협의회, 세계유산위원국 활동 등을 통한 한국의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도 매우 가시적 ○ 한-유네스코 협력, 세계유산위원국 활동, 사도광산 및 군함도 후속조치 이행 촉구 활동, 세계시민교육, 퀴즈 온 코리아 등 유네스코과가 설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의 전개 ○ 6개 국가의 교과서에 한국 발전상에 관한 기술의 확대를 통한 성과를 산출하였음. ○ 한-유네스코 정책협의회 구축과 세계 유산 위원국 활동 개시는 한국 유네스코 외교의 주요한 성과로 평가됨.
	개선할 점	○ 사도광산 추도식 관련 논란 유감 ○ 유네스코 업무와 지식공공외교 업무를 관통하는 유네스코과의 정체성을 보고서 첫 장에 설득력있게 설명하면 평가에 도움이 될 것 ○ 노력한 만큼 유네스코 활동을 통한 실질적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임. 특히 한국의 유네스코 공공외교 노력을 국제사회의 보편적 인식과 연결시키는 노력이 필요함. ○ 지식공공외교 콘텐츠와 관련하여 기존의 역사 및 문화를 넘어선 다양한 콘텐츠의 발굴이 필요해 보이며, 퀴즈 온 코리아 사업 외의 신사업 발굴도 필요해 보임. ○ 15쪽 분량 초과 (2023년 자체평가 지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준수) ○ 일본 제국주의 시대에 강제 동원된 한국인 노동자의 희생을 유네스코 및 세계유산위원국을 대상으로 인권 문제로 접근하면서 지속적인 홍보를 펼쳐야 함. ○ 2025년부터 시행하는 '유네스코 세계시민교육상'의 지속성을 위해 관계 전문가의 도움과 협력을 받아 명확한 운영 지침을 마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시상자 선정 방식에 만전을 기해야 함. ○ 세계유산 위원국이 된 것은 한국 문화외교 위상에 크게 기여한 것이 분명하지만 일련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과정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한국의 유네스코 외교가 실질적이고 유효한 외교력과 위상을 가지는지 재고할 필요가 있음. ○ 유네스코 외교를 위해 외교부 내의 다양한 부처가 함께 체계적으로 협업할 시스템을 구축하여 유네스코 외교가 의미있는 외교력을 발휘하도록 해야 함.

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수립의 적절성	4.67/5	○ 계획 수립의 적절성 우수함. ○ 국격제고, 민감현안 대응 등 구체적인 목표 이행을 위한 계획 수립이 이루어짐. ○ 계획의 전략, 성과목표와의 연계성, 구체적인 추진 계획의 설정 등으로 적절하다고 판단 됨. ○ 2024년 과제 추진은 분기별로 구분하여 잘 계획되어 있음. ○ 민감 현안에 대한 대응 수립 계획을 세운 것은 적절함.
	1-2. 계획단계 소통·환류	4.17/5	○ 계획 단계 소통 환류 우수함. ○ 자체평가 의견 반영을 위한 노력이 이루졌으나, 근본적 개선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는지는 불명확(예컨대, 회의참가 횟수의 대표성을 지직한 부분에 대해서 일부 영역에 가중치를 주는 방향으로 대응. 대국민 홍보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일부 프로그램(장 담그기)을 단편적으로 홍보하는 인상 ○ 2023년 및 2024년 평가위원의 의견을 계획에 잘 반영함. ○ 수혜자 및 관련 이해당사자의 의견이 계획서에 반영되어 있음. ○ 지표 개선과 범부처 조율강화에 대한 검토의견을 반영하고자 함.
	2-1. 정책추진 노력	9.67/10	○ 정책추진 노력 우수함. ○ 추진계획을 모두 정상추진 ○ 36개 사업이 정상 추진되었음. ○ 일정에 따라 충실히 수행함.
	2-2. 중간단계 환류	4.5/5	○ 중간단계 환류 우수함. ○ 검토의견 모두 반영 ○ 2024년 시행계획과 성과관리에 대한 평가위원의 지적 사항이 반영된 것으로 나타남. ○ 사도광산과 관련한 우려의 검토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시행하기보다 기존 대응 방식대로 대응한 것으로 판단됨.
	2-3. 변화 대응성	12.33/15	○ 사도광산 추도식 관련 문제를 논란이 되기 전 관리할 수 없었는지 의문 ○ 대체로 무난함. ○ 의견 수렴 및 소통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짐. ○ 그러나 민감 현안 및 유동성에 대한 대응을 위해 어떻게 능동적인 대응이 이루어졌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될 필요 ○ 예컨대, 유가족 이해 확보를 위해 얼마나 다양한 소통채널을 즉시적으로 활용하였는가? 관계기관과의 소통을 위해 화상

			회의 등 어떠한 능동적 노력을 하였는가? 현 기술방식으로는 이에 대한 평가가 어려움. ○ 향후 한국과 관계되어 있는 일본의 세계유산 등재 신청 문제들을 사전에 파악하여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음. ○ 한국 정부의 사도광산 자체 주도식 개최와 관련하여 유가족의 이해와 배려를 고려한 조치는 적절함. ○ 일상적 대응 업무는 충실히 수행했으나 상황 변화(eg. 사도광산)에 대해 새로운 대응 방식 고민이 필요함.
	3-1.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목표치의 적극성달성도	24.67/30	○ 퀴즈온코리아 참여자수 목표치 미달 ○ 목표치 적극성 및 달성도 무난함. ○ 2번째 목표치 영역은 '거의 달성.' 1번째 목표치 영역은 초과 달성하였으나 그 폭이 높지 않음. ○ 일부 자체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기존 성과지표인 회의참석/개최 횟수에 가중치를 두었으나, 이러한 성과지표가 대표성을 띠는지는 여전히 불명확. 두 번째 성과지표인 지식공공외교 사업 예선전 참가자 수의 경우에도 제시된 목표와 계획에 대한 대표성을 띠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특히 사도광산 등 현안에 대한 성과를 가시적으로 보이는데는 두 가지 성과 지표 모두 부족하다고 판단됨. ○ 목표치는 달성, 목표치의 적극성과 성과지표의 대표성 모두는 상 ○ 우수사례 제출로 가 1점 부여 ○ 목표로 한 사업의 적극성과 이를 측정한 계량적 성과 지표의 대표성에도 불구하고 사도광산 관련 노력의 질적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이 아쉬움. ○ 향후 민감현안과 지식공공외교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한국의 유네스코외교력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 2024년이 다른 해와 구별되는 유네스코 외교과 주도의 지식공공외교 성과가 뚜렷하지 않음.
	3-2. 정책 효과성	25.33/30	○ 부수적 효과를 찾기 어려움. ○ 무난한 의도 효과 달성 ○ 향후 기대효과 부분은 새로운 모색 필요 ○ 기술방식에서 당초 의도한 효과, 부수적 효과, 기대효과 부분들이 매우 불명확함. ○ 국격제고, 지식공공외교 강화라는 추진 목표와 세부 계획에 대한 정성적 평가가 미흡하며, 부수적 효과 및 향후 기대효과에

			대한 부분은 미작성됨. ○ 일본 사도광산의 추모식 관련 한국 정부의 자체 추도식 개최는 일본측과 사전에 소통이 부족함을 의미 ○ 한국 장 담그기 문화의 유네스코 유산 등재, 세계시민교육, 외국 교과서에 한국의 발전 기술상 소개 등 원래 의도한 정책 효과를 발생하였음 ○ 지식공공사업의 2024년 예산 감소에도 불구하고 2023년 대비 평균 참석자(217명)의 수에 큰 변동이 없었음(24년 205명) ○ 향후 유네스코 외교의 기대효과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유네스코 외교에 대한 지지를 확대할 홍보 방안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	--	--	---

평가결과	잘된 점	○ 한국 문화에 대한 세계인들의 관심을 활용하는 노력이 돋보임. ○ 소프트 파워 활용도, 선진 국가 이미지 제고, 다양한 네트워킹과 참여 기회 제공, 콘텐츠 다양화 등의 분야에서 성과 있음. ○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등 돌발적인 이슈에 대한 시의적절한 대응이 돋보임. ○ 정세 불안 등의 국가에서도 한국문화 확산을 위한 맞춤형 행사 개최 ○ 성과관리 시행계획과 주요성과 ○ ‘글로벌 혁신을 위한 미래대화’에 2023년 대비 2024년은 청년들의 참여가 비약적으로 증가하여 문화 담론을 선도하는 시그니처 사업으로 부상함. ○ 비 K-Pop 분야의 비중 증가는 바람직함. ○ 국공립, 지자체, 민간공연단 등 협업 시스템을 활용한 국제교류의 기회 증대는 우리 문화를 홍보하는 사업으로 발돋움 함. ○ 글로벌 혁신을 위한 미래대화, 포르투갈, 루마니아 등과 문화 협정 체결, K-POP 외의 분야에서 공공외교 콘텐츠 다양화를 통해 공감형 문화외교를 확산하고자 한 점이 주요 성과도 판단됨.		
	개선할 점	○ 외교가 문화의 독자적 동력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아쉬움 존재. 문화외교를 통한 ‘국격 함양’ 효과의 증진 방안에 대해 고민이 필요 ○ 다양한 맞춤형 행사가 역사적, 시대적 맥락에 부응하는 보편성을 지닐 수 있도록 좀 더 질적 변환을 기할 필요 ○ 문화공공외교 정책실현 매체의 다양화 측면에서 AI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성과관리 시행계획과 주요성과의 연계성 강화 필요. 성과관리 시행계획에서 제시된 주요 목표/계획 실현을 위한 어떠한 성과들이 이루어졌는지 기술할 필요 ○ 15쪽 분량 준수 필요 ○ 10쪽 현지 맞춤형 행사의 개최와 관련하여 “문화 불모지인 사우디아라비아”의 표현은 부적절함. ○ ‘글로벌 혁신을 위한 미래대화’에서 사전 등록자 수(5배 증가, 1025명)를 강조하기 보다는 실제 참가자수(1.5배, 200명)의 의미가 중요함. ○ 현 정부의 외교 방점이 한미를 중심으로 한 우방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문화교류협력과의 특성을 생각할 때 중국, 러시아와의 협력이 부진하고 ‘우방’에 편향되었다는 점이 아쉬움. ○ 이민과 결혼을 통한 다문화 가정증가라는 한국의 문화환경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홍보할 문화교류 방안이 필요함.		
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4.83/5	○ 계획 수립의 적절성 우수함.	

	계획수립의 적절성		○ 성과관리 시행계획과 주요성과의 연계성 강화 필요. 성과관리 시행계획에서 제시된 주요 목표/계획 실현을 위한 어떠한 성과들이 이루어졌는지 기술할 필요 ○ 계획의 전략, 성과목표와의 연계성, 과제 추진의 세부 일정 제시 등 계획 수립이 전체적으로 적절함. ○ 2024년 46개 사업은 관리과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국의 다양한 문화컨텐츠와 긍정적 이미지 확산을 위한 계획이 유기적 잘 수립됨.
	1-2. 계획단계 소통환류	4.83/5	○ 계획 단계 소통 환류 우수함. ○ 제시된 내용에 대해 충실한 설명과 이행이 이루어짐. ○ 2023년 자체평가 및 2024년 계획수립 단계에 평가위원의 지적 사항이 반영되었음. ○ 검토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고자 함.
	2-1. 정책추진 노력	9.67/10	○ 정책추진 노력 우수함. ○ 모두 정상추진 ○ 계획 사업 45개가 정상 추진되었음. ○ 일정에 따라 충실히 수행함.
	2-2. 중간단계 환류	4.67/5	○ 중간 단계 환류 우수함. ○ 제시된 내용 모두 반영됨. ○ 상반기 자체점검에 대한 3명 평가위원의 의견이 반영되었음. ○ 검토의견을 적절히 반영함.
	2-3. 변화 대응성	13.17/15	○ 변화 대응성 우수함. ○ 기계화 및 현안에 대한 능동적 대응이 이루어졌으나, 추진 계획 및 업무 전반 차원의 대응노력(사이버 공간 등의 영역)은 불명확 ○ 정부 부처 및 기관, 민간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성과를 도출 ○ 한강의 노벨 문학상, 흑백요리사 등을 활용하여 재외공관에서 공공외교를 전개한 것은 변화 대응성에 잘 대처한 사례로 간주할 수 있음. ○ 일상적 대응업무를 무난히 수행함.
	3-1.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목표치의	25.17/30	○ 한국주간 행사, 주요외교계기 기념사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외 성과지표를 찾아보기를 권함. 만족도 조사는 상한선이 있어 적극적 목표 설정이 어렵고 또 달성하기는 더 어려움.

	적극성달성도		대사관 홈페이지 접속 건수, 만족 건수, 전화 문의 등 ○ 전반적으로 목표치 달성 ○ 제시된 목표치 모두 초과달성되었으나, 성과지표의 대표성은 다소 미흡하다고 평가됨. ○ 시행계획이 제시하고 있는 목표는 3가지임: 한국의 문화 콘텐츠 진출 지원을 위한 긍정적 이미지 확산, 문화선진국 위상에 걸맞는 선도적 공공외교 추진, 참여형 공공외교 사업의 체계화 ○ 한국주간 행사 관련 만족도 조사, 다양성 및 참여형 가중치는 상당부분 3번째 목표에 부합하는 성과지표로 보여짐. 주요 외교계기 설문조사를 통한 한국에 대한 호감도 상승 조사 등은 첫번째, 두번째 목표 측정을 위한 지표이긴 하나 지원 진출을 위한 실질적 투자 규모, 사업규모, 횟수 등도 복합적으로 평가될 필요. ○ 목표치의 적극성과 성과지표의 대표성은 상, 목표치의 달성 정도는 달성에 해당함. ○ 타 부처 및 기관의 협업을 통해 일정한 성과를 산출함. ○ 공공외교 결과가 친한 지지기반 강화로 이어졌는지 측정할 객관적 지표 개발이 필요함. ○ 특정 문화 아이콘을 활용한 행사가 한국의 문화교류협력 외교의 한 측면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지만. 특정 개인의 영향력에 의존하기 보다 문화교류협력과를 대표할 지속 가능한 시그니처 문화교류행사를 개발·추진해야 함.
	3-2 정책 효과성	27.5/30	○ 원래 계획했던 성과를 전반적으로 달성함. ○ 구체적 영역에 대한 정성평가가 이루어졌으나 시행계획 전반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과제 추진의 정책 효과성은 전반적으로 우수함. ○ 재외공관의 공공외교 행사, 글로벌 혁신을 위한 청년층 대상의 미래대화 등의 사업은 지속성을 갖고 추진해야 많은 기대효과를 창출할 수 있음. ○ 문화교류협력이 한국의 노래, 영화, 문학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고취를 넘어서 한국의 변화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도록 문화교류협력의 콘텐츠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평가결과	잘된 점	○ 한국의 정책공공외교의 과제는 '4강'에 한반도 이슈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수세적으로) 설명하는 차원을 넘어 글로벌 차원에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한국의 정체성을 널리 알리는 데 있다고 생각. 그래서 4강 위주의 정책공공외교와 남북한/한반도 문제 위주에도 불만이 있었는데, 올해 그에 대한 수정이 이루어져서 기쁘게 생각 ○ 우호적인 정책환경의 조성을 위해서 의제의 확대, 대상 대변화, 맞춤형 서비스 개발 등을 추진함. 특히 글로벌 사우스를 대상으로 한 정책공공외교의 추진이 눈에 띈. ○ 다양한 글로벌이슈로 의제 확대 ○ 정책공공외교 총괄·조정기능 강화 ○ 글로벌중추국가 이행을 위한 명확한 지향점을 기반으로 매우 짜임새 있는 시행 계획 수립과 이행이 이루어짐. 비우호국을 포함한 외교의 다변화를 위한 체계적 노력이 가시적 ○ 범부처 및 관련기관(KF 등)과의 유기적 협력도 매우 가시적 ○ 공공외교 의제 및 대상의 다변화는 글로벌 중추국가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음. ○ 지역별 맞춤형 정책공공외교의 추진은 우리의 외교정책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인식됨. ○ 타 부처와의 소통과 교류는 정책공공외교과의 총괄 및 조정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음. ○ 국민참여 확대, 한국인식 조사 및 만족도 조사 확대 실시등을 통해 공공외교 역량 강화 및 환류체계를 갖추는 등 실질적 공공외교 강화를 위한 노력이 긍정적으로 판단됨.
	개선할 점	○ 글로벌 사우스로의 아웃리치에 더 노력하기를 바람. ○ 정책의 홍보뿐만 아니라 현지 밀착 정책지식의 생성을 위한 준비 차원의 새로운 발상이 필요해 보임. 예를 들어, 디지털 빅데이터 환경을 좀 더 적극적으로 정책공공외교의 추진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됨. ○ 정책공공외교 파트에서 한일청년모의, 한일관계 전문가 세미나, 한일 공통과제 대응 포럼, 나고야 포럼, 오사카 포럼 등 일본에 치우친 행사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중립에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 실질 협력 중심의 정책공공외교의 강화와 관련하여 세미나, 포럼 등 총 109회의 공공외교 행사 개최를 축소하고, 실질적 효과를 산출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함. 특히 이들 세미나와 포럼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실제 정책에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가를 확인해야 함. ○ 정책 대상 다변화 목표에도 불구하고 공공정책 외교 대상국이 여전히 미국, 일본에 집중되어 있고, 특히 (한미관계에 집중된 한국 외교, 러우전쟁과 같은)

		환경적 제약을 고려하더라도 중국과의 정책 외교가 미진한 부분이 아쉬움.	
		○ 정책공공외교 자문회의 개최 건수 확대가 실질적으로 다양한 공공외교 정책에 반영되고 있는지 추적·측정할 방안 마련이 필요함.	
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수립의 적절성	4.83/5	○ 계획 수립의 적성 우수 ○ 글로벌중추국가 이행을 위한 명확한 지향점을 기반으로 매우 짜임새 있는 시행계획 수립과 이행이 이루어짐. 비우호국을 포함한 외교의 다변화를 위한 체계적 노력이 가시적 ○ 정책공공외교의 의제 및 대상의 다변화에 따른 계획 수립 ○ 정책 공공외교 주체로서 국민참여 확대를 위한 계획이 적절히 수립됨.
	1-2. 계획단계 소통환류	4.67/5	○ 계획 단계 소통 환류 우수 ○ 제시된 사항 모두 충실히 반영 ○ 2024년 성과관리 계획 수립에 평가위원의 지적 사항이 잘 반영되어 있음. ○ 검토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고자 함.
	2-1. 정책추진 노력	8.5/10	○ 정책 추진 노력 우수함. ○ 일부 사업 외 모두 정상추진 ○ 계획 사업 16 중 13개 사업이 정상 추진되었음(81.2%). 3개 과제는 25년으로 지연됨. ○ 일정에 따라 충실히 수행함.
	2-2. 중간단계 환류	4.67/5	○ 중간 단계 환류 우수 ○ 제시된 사항 모두 충실히 반영 ○ 평가위원의 지적 사항이 반영된 것으로 나타남. ○ 검토의견을 적절히 반영함.
	2-3. 변화 대응성	13.5/15	○ 변화 대응성 거의 달성 ○ 미 대선, 국제환경 변화에 대한 유기적 대응을 위해 전문가, 관계부처, 기관에 대한 능동적 아웃리치가 이루어짐. ○ 만족도 조사 지속 ○ 한미공공외교 포럼, 한미 공공외교 협의, 한중 공공외교 포럼 등 3개 사업의 2024년도 지연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함. ○ 미 대선이라는 변화에 대응한 방식이 대선이 없을 때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명하지 않음.
	3-1.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26.5/30	○ 목표치 모두 초과달성 및 적극성 충족. 그러나 단일 지표로서 한계 有

	목표치의 적극성달성도		○ 정부 정책의 세미나 성과의 만족도 85% 이상으로 나타남. ○ 여러 건의 정책공공외교 행사 개최가 이해 관계자들이 한국 정책을 이해하고 지지 확대를 가져오겠지만, 정량평가를 통해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음. ○ KF와 협업, 미국의 외교안보 전문가와의 회의 개최는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사업이고 정책공공외교과 외에도 다수 관련 부처와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임. ○ 새로운 방식, 내용을 가지고 보다 폭넓은 협업 대상을 발굴해 글로벌 차원에서 일어나는 공공외교의 외연 확대에 대응하는 정책공공외교과만의 외교가 마련된다면 보다 발전적일 것으로 판단됨.
	3-2. 정책 효과성	28.33/30	○ 당초 의도한 사업에 대한 효과 우수 ○ 부수적 효과와 기대효과도 거의 달성 ○ 의도효과, 부수적 효과, 기대효과 모두 충실히 작성됨. ○ 한·미공공외교 포럼, 한·미 공공외교 협의 등의 지연은 정책 공공외교의 목표 달성을 저해함. ○ 정책 대상의 다각화 및 정책의 일관성 유지는 외연 확대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여 기대효과를 창출할 수 있음. ○ 주요우방국을 대상으로 한 정책공공외교가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기여할수 있지만, 이를 실제 보여줄 지표나 사례가 불분명함. ○ 향후 기대효과와 관련해 법치, 인권, 민주주의등 다양한 글로벌 현안에 어떻게 효과적인 다자협력 환경을 추진할 것인지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평가결과	잘된 점	○ 디지털 공공외교의 가능성은 무한하지만, 소비자의 시간과 주목도는 유한. 갈수록 밀도가 높아지는 디지털 공간에서의 소비자의 주목을 다투는 어려운 임무를 잘 수행하고 있음. ○ KOREAZ 운영의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임. 매우 풍부하고 다양한 콘텐츠 생산 및 제공의 성과. 예산 삭감에도 구독자 증가와 퀄리티 향상을 이룬 성과가 눈에 띈. ○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홍보하는 GPS Korea 캠페인 추진. ○ 예산삭감 하에서도 AI 등 다양한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하여 생동감 부여. ○ 예산 삭감에도 불구하고 계획의 지속성 및 효율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짐. 외교 메시지 발신을 위한 자체 콘텐츠 제작 및 아웃리치를 위한 KOREAZ 운영의 지속 발전 등 가시적 성과가 잘 드러남. 특히, 예산 삭감에도 불구하고, KOREAZ 구독자 수가 31.3% 증가한 것은 매우 의미 ○ 글로벌중추국가 등 디지털공공외교의 명확한 목표와 대상 설정이 이루어짐. ○ 예산 감축에도 불구하고 'KOREAZ'의 콘텐츠 다양화 및 구독자 증가는 저비용, 고효율의 효과를 산출함. ○ 청년들의 공공외교 행사 참여의 유도 및 역량 강화는 디지털공공외교과의 전략적 공공외교 추진에 부합하고 있음. ○ 디지털공공 외교의 시그니처 사업인 KOREAZ 구독자와 조회수 증가, AI, VR 등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 등 해당과의 특성화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함.
	개선할 점	○ 향후 지표는 콘텐츠의 양보다 질을 반영하면 좋겠음. ○ 기존의 SNS 중심의 디지털 공공외교를 넘어서 디지털 전환의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디지털 외교 기법에 대해서도 고민 필요. 예를 들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디지털 공공외교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 ○ 글로벌 가치외교, 글로벌 중추국가 메시지 확산, 디지털 공공외교 네트워크 강화 등 시행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첨부 1)과 주요 성과 및 개선사항 문서의 연계성이 강화될 필요. 시행계획/목표 별 성과와 개선사항을 정리하면 더 짜임새 있는 자체평가 보고서가 될 수 있을 것 ○ KOREAZ 플랫폼을 관련 부처, 기관(예: KF) 등이 쌍방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 (예: 관련 콘텐츠 상호 리그램을 통한 아웃리치 강화, 콘텐츠 확산 효율화) ○ 15쪽 분량준수가 요구됨 ○ 3쪽 <표>의 4개 콘텐츠의 댓글 관련 긍정 의견이 다수라고 기술하고 있음. 콘텐츠 발전을 위해서는 부정적 의견도 수렴하여 콘텐츠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주포르투갈, 주네팔, 주온드라스 대사관 등 3개국의 디지털 공공외교 우수 사례를 다른 재외공관에 적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새로운 디지털 기술/ 매체 그리고 기존 매체의 새로운 이용법이 쏟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촬영영상 업로드를 중심으로 한 유튜브와 페이스북에 집중된 현행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KOREAZ 확산을 위해서는 수시 점검도 의미 있지만, 외교부 내 다른 부서와 협업을 통한 KOREAZ 홍보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언함.	
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수립의 적절성	4.67/5	○ 계획 수립의 적절성 우수함. ○ 글로벌중추국가 등 디지털공공외교의 명확한 목표와 대상 설정이 이루어짐. ○ 14개 과제의 계획 수립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 향후 계획에서는 재외공관 SNS서포터즈의 활동에 대한 구체적 계획과 활동점검방식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필요가 있음.
	1-2. 계획단계 소통환류	4.67/5	○ 계획 단계 소통 환류 우수함. ○ 제시된 의견 반영이 충실이 이루어짐.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도 상당부분 이루어짐. ○ 2023년 및 2024년 평가위원의 검토 의견을 계획에 반영하고 있음. ○ 수혜자와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계획에 반영하였음. ○ 검토의견을 적절히 반영함.
	2-1. 정책추진 노력	9.67/10	○ 정책 추진 노력 우수함. ○ 기계획된 일정 모두 정상 추진됨. ○ 계획된 14개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었음. ○ 계획된 일정을 대체로 충실히 추진함.
	2-2. 중간단계 환류	4.67/5	○ 중간 단계 환류 우수함. ○ 제시된 의견 반영이 충실이 이루어짐. ○ 4명 평가위원의 검토 사항을 계획에 반영하여 집행하였음. ○ 10대 20대의 KOREAZ에 대한 의견청취와 관련한 검토의견을 적절히 반영함.
	2-3. 변화 대응성	13.17/15	○ 변화 대응성 우수함. ○ 대면, 비대면 방식을 능동적으로 활용하여 변화 대응성 상당부분 충족 ○ 다만, 이러한 대응 요소들이 프로그램별 산발적, 분절적이란 인상. 보다 체계화, 정례화된 대응체계 공고화 노력 필요 ○ KOREAZ 채널의 다양한 의견 수렴, 용역업체의 점검,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 반영, 담당관 회의 개최하여 애로

			사항의 청취 및 사업 점검 등을 통해 변화 다양성에 잘 대처하고 있음. ○ 변화에 대응이라기보다 기존의 디지털공공외교과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임.
	3-1.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목표치의 적극성달성도	26.83/30	○ 101.9% 목표달성률로 대폭적인 초과달성은 아니지만 예산 삭감 대비 관련 성과를 감안할때 초과달성 및 목표치의 적극성이 모두 충족되었다고 평가됨. ○ 다만, 성과지표의 대표성 부분에서 고려할 점은 KOREAZ의 구독자 증가율, 콘텐츠 증가율이 관련 사업만의 일환이 아닌 점을 감안할 필요.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에 대한 관심 전반이 올라간 상황, 알고리즘의 효과 등을 감안할 필요. 관련 기관/전문가 등의 리그람/공유 횟수 등을 집계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 ○ 목표치 달성도는 101.9%로 초과달성이 아닌 달성(목표치 100~130%)에 해당함. ○ 목표치의 적극성과 성과지표의 대표성 등은 상 ○ 기존사업을 충실히 수행한 점은 매우 긍정적이나 KOREAZ 외 디지털공공외교 매체와 방식의 다변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 노력이 필요함.
	3-2. 정책 효과성	29.17/30	○ 당초 의도한 효과 달성 ○ 좀 더 구체적인 기대효과 모색 필요 ○ 예산 삭감에도 불구하고 당초 의도한 효과, 부수적 효과 등 충실한 결과 도출 ○ 콘텐츠 다양화의 결과 4개 플랫폼의 구독자 31.4% 증가는 KOREAZ의 적실성을 증명하고 있음. ○ 홍보 영상의 제작과 재외공관 배포는 공공외교 활동에 있어 이를 적극 활용하는 부수 효과를 산출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현재의 KOREAZ의 구독자 73만 명을 상회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콘텐츠 개발에 전력을 다해야 많은 기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 재외공관 사업만족도가 89.13%에서 89.63%로 0.5P%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이것이 의미있는 상승이라고 할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함.

평가결과	잘된 점	○ 외교관의 질적 수준은 외교력의 제1차적 지표임. 외교관 후보자 훈련과정의 강화에 전적으로 찬동하고 지지함. ○ 아웃리치 강화, 맞춤형 교육의 다양화 및 내실화, 실무역량의 실적 배양 등에 초점을 둔 사업 진행의 성과가 있음. ○ 외교관후보자 대상 영어/제2국어 1:1 코칭 클리닉 이수 필수화 ○ KF초청 외국외교관 한국어/문화연수 교육 ○ 국가 차원의 교육, 공공외교 기관으로서의 국립외교원의 위상 강화라는 방향성에 따라 체계적 계획이 수립 및 이행되었음. ○ 국내외 환경의 급변 속에서 핵심 외교인재 양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이 수립 및 이행되었음. ○ 신규 프로그램으로 주한 대사(3회)와 외신기자단(4회)을 대상으로 정책강연회 개최는 정부의 정책 홍보와 함께 친한 인사를 포섭하는 역할을 수행함. ○ 인재양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의 실현은 역량 강화, 소명의식의 정립, 실무교육의 강화 등 다양한 순기능을 창출할 수 있음. ○ 신규 경쟁시스템 도입 및 현장 실습 메뉴얼 내용 세밀화 등을 통한 교육의 질적 향상을 통해 외교관 후보자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한 점이 두드러짐. ○ 외신 기자단 대상 정책강연회를 통해 교육역량 및 공공외교의 외연확장에 기여함. ○ 인도태평양 지역의 글로벌 중요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동아시아지역 연수 확대와 아시아지역 언어역량 강화는 매우 긍정적 성과로 평가됨.
	개선할 점	○ 늘 지적하는 바이지만, 외교관 지망자의 전반적 수준 분석과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 외교관 후보자 시험의 응시율이나 커트라인이나 합격자 평균점수 등의 시계열 자료가 있으면 좋겠음. ○ 신기술 관련 이공계 교과목. 예를 들어 “외교관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AI”등과 같은 쉬운 강좌 개설이나 국내외정세에 개별 외교관이 대응한 ‘매력위기’ 관련 대응 매뉴얼 등 고려 필요 ○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됨. ○ 신규 공직자의 공직소명의식 영역에 대한 지속발전 요구 ○ 영어 외 기타 외국어 평가 방식도 필기에서 CBT 방식으로 개선 필요 ○ 글로벌리더십 국제관계 장기연수과정(10개월)이 국정 핵심 리더를 양성(08~24년 762명 수료)한다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 근거의 제시가 필요 ○ 15개 대학의 학부생과 대학원생(약 1천명)을 대상으로 국제문제 특강(27회 실시) 개최가 국민외교를 강화하고 있다는 근거는 무엇인가? 단지 추상적 표현인가 아니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데이터를 갖고 있는가?

		○ 개론 이상의 심도 있는 한국사 및 한국외교사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어야 함.		
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수립의 적절성	4.83/5	○ 계획 수립의 적절성 우수 ○ 국가 차원의 교육, 공공외교 기관으로서의 국립외교원의 위상 강화라는 방향성에 따라 체계적 계획이 수립 및 이행되었음. ○ 글로벌 중추외교 핵심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과 연수 및 아웃리치 강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외교관의 지식 및 실무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계획이 수립됨.	
	1-2. 계획단계 소통환류	4.67/5	○ 계획 단계 소통 우수 ○ 제시된 의견들에 대한 적극 반영 및 이행이 이루어짐. ○ 수혜자와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계획에 반영하고 있으며, 평가위원의 검토 의견 또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언어교육과 관련된 검토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됨.	
	2-1. 정책추진 노력	9.67/10	○ 정책 추진 노력 우수 ○ 기계획 모두 정상추진됨. ○ 관리과제(총 68개)에 대해 분기별 일정에 따라 정상 추진하였음. ○ 계획된 일정을 충실히 시행함.	
	2-2. 중간단계 환류	4.67/5	○ 중간 단계 환류 우수 ○ 제시된 의견들에 대한 적극 반영 및 이행이 이루어짐. ○ 상반기 점검 사항의 개선과 보완으로 평가위원의 검토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나타남. ○ 검토의견을 반영하고자 한 것으로 판단됨.	
	2-3. 변화 대응성	14.67/15	○ 변화 대응성 우수 ○ 코로나 19 이후 비대면 강의 방식 등 변화대응성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이루어짐. ○ 변화하는 수요자 측 의견이 체계적, 정례적으로 제시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이 요구됨. ○ 코로나19 상황, 재외공관 교육생의 안전상황, 언론 대응 교육, 한국어 및 문화 연수 등 6개 항목을 중심으로 변화에 대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음. ○ SNS, 유튜브등 미디어 대응 요령 교육강화는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실제 한국외교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는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3-1.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목표치의	27.33/30	○ 적극적으로 설정한 목표 달성 ○ 작년대비 성과에 1점 가점 ○ 적극성 우수	

	적극성달성도		○ 달성도 우수 ○ 목표치 초과달성 ○ 성과지표는 정량적 정석적 요소를 모두 포함하여 적극성 충족 ○ 다만, 목표로 제시한 신규 공직자의 공직소명의식 정립에 해당하는 성과지표의 대표성은 다소 미흡 ○ 목표치 달성도는 102%로 초과달성이 아닌 달성(목표치 100~130%)에 해당함. ○ 목표치의 적극성은 상, 성과지표의 대표성 상으로 평가함.
	3-2. 정책 효과성	29/30	○ 의도효과 발생 ○ 기대효과 좀 더 유발 필요 ○ 목표로 제시한 신규 공직자의 공직소명의식 영역에 대한 기술이 다소 미흡 ○ 교육생의 높은 만족도 표출은 교육의 긍정적 효과를 유발함. ○ 각 부처 및 기관과의 협업으로 강연회에서 효율적 교육을 실시함. ○ 주한외교단 및 외신기자단 대상 정책 강연회 개최가 외교관 후보생들의 언론 대응 자질 향상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해 볼 것을 제언함.

평가 결과	잘된 점	○ 서울외교포럼 직접 참관하였는데, 좋은 시도라고 생각 ○ 국제법 아카데미 지지 ○ 신흥 이슈 지역 연구 강화, 경제기술안보연구센터 신설, 연구외연 확대 등이 눈에 띄는 성과임. 특집 시리즈 발간 등은 시의적절함. ○ 경제기술안보연구센터 신설을 통한 경제안보 및 첨단기술 분야 관련 연구역량 확충 ○ 적시성 있는 연구결과물의 발간을 통해 정세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함. ○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국립외교원의 연구 및 학술교류 위상강화를 위한 체계적이고 다체적인 노력이 이루어짐. ○ 국립외교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규 센터설립(경제기술안보), 연구진간 공동 연구, 본부-연구소, 연구부-센터간 협업 강화에서 가시적 성과 ○ 전략지역을 중심으로 연구역량의 강화 및 다변화를 통해 연구의 외연 확대. 이벤트성 또는 일회성이 아닌 지속성 확보가 중요 ○ 협업 강화를 통한 연구소 성과물의 정책 활용도 제고. 즉 연구 결과물이 정책 결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함. ○ 글로벌 사우스 연구 역량 강화, 한미일 1.5 트랙 대화 및 세미나 간담회 활발한 개최는 외교 외연 확대에 의미있는 기여로 평가됨. ○ 본부- 연구소 간 협업, 연구부-센터간 공동연구 강화를 통해 외교·안보분야의 정책 수요에 학술적·실무적으로 기여하고자 한 노력이 돋보임.
	개선 할점	○ 연구 실적과 학술교류의 질적 평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음. ○ 경제기술안보연구센터의 실질적 활동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이 필요함. 내부 연구 인력과 학계 전반의 정책지식 연구 인력을 연계하는 접근이 필요함. ○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됨. ○ 성과지표 1 정책제언 및 연구역량 강화 부분에서 대통령실 등 정부 부처와의 협업 세미나 횟수, 1트랙 참가자 수 등도 함께 집계하면 국립외교원 위상강화, 정책기여 차원의 성과를 보다 가시적으로 나타낼 수 있을 것 ○ 2023년(134회) 대비 2024년 학술회의를 총 153회 개최하여 13% 증가를 강조하기보다는 학술회의에서 논의되었던 정책 제언들이 실제 외교정책에 어떻게 반영되었는가를 보여주는 정책 활용도 측면에 관심을 두어야 함. ○ 언론을 대상으로 외교현안에 대한 백그라운드 브리핑(3회 실시) 횟수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브리핑(1월, 2월, 5월)이 상반기에 집중되었다는 점에서 하반기에도 브리핑 실시가 추가되어야 함. ○ 외교관 후보자와 재직 외교관의 소통 및 협업 프로그램 강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다변화하는 외교환경을 감안할 때 외교·안보 국책 연구기관 및 기업 및 사설 연구기관과의 보다 활발한 연구협업 추진 방안 모색이 필요함.		
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수립의 적절성	4.83/5	○ 계획 수립의 적절성 우수함. ○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국립외교원의 연구 및 학술교류 위상강화를 위한 체계적이고 다체적인 노력이 이루어짐. ○ 전략, 성과목표와의 연계성, 구체적인 추진 계획의 일정 등 수립의 적절성을 갖고 있음. ○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계획에 적절히 반영함.	
	1-2. 계획단계 소통·환류	4.67/5	○ 계획 단계소통 환류 우수함. ○ 제시된 의견 모두 충실히 반영됨. ○ 2023년 평가위원의 의견, 2024년 성과관리계획에 평가위원의 검토 의견이 반영되어 있음. ○ 수혜자 및 이해 관계자의 의견(3건)을 시행계획에 반영 ○ 학계 및 연구기관과의 협업노력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음.	
	2-1. 정책추진 노력	9.33/10	○ 정책추진 노력 우수함. ○ 기계획된 일정 모두 정상추진됨. ○ IFANS-STEPI 학술회의, 3차 KNDA 열린정책대화 등 2건의 2025년 연기는 외생적 요인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 계획된 일정을 충실히 시행함.	
	2-2. 중간단계 환류	4.83/5	○ 중간 단계 환류 우수함. ○ 제시된 의견 모두 충실히 반영됨. ○ 4건에 대한 평가위원의 검토 의견이 반영되었음. ○ 검토의견을 대체로 잘 반영함.	
	2-3. 변화 대응성	14.83/15	○ 변화 대응성 우수함. ○ 코로나-19 이후 비대면/대면 방식의 지속 병행 노력 ○ 대통령실, 본부, 국책기관, 민간기관, 해외기관과의 소통 및 협업 활성화, 체계화 달성은 매우 가시적인 성과라고 판단됨. ○ 경제기술안보센터 신설 및 인태지역과의 교류·협력 강화는 미중경쟁속에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에 매우 시의 적절히 대응한 것으로 평가됨. ○ 과제 추진 과정에서 모니터링과 의견 수렴을 실시함. ○ 주변 4강 싱크탱크 관련 일정 또는 다른 기관 및 전문가로 변경	

	3-1.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목표치의 적극성달성도	26.83/30	○ 적극적으로 설정한 목표치 달성. 성과지표의 대표성 '중' (가점+1) ○ 어려운 문제임을 인정하나, 연구결과물의 발간 건수, 간담회 개최 건수 등 정량적 지표만으로 대표성이 높다고 할 수 없음. 질적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 예컨대 인용지수 등도 필요하지 않을까 고민할 필요가 있음. ○ 목표치 초과달성, 적극성 모두 충족 ○ 성과지표 1 정책제언 및 연구역량 강화 부분에서 대통령실 등 정부 부처와의 협업 세미나 횟수, 1트랙 참가자 수 등도 함께 집계하면 국립외교원 위상강화, 정책기여 차원의 성과를 보다 가시적으로 나타낼 수 있을 것 ○ 타 기관과의 협업 우수성을 고려하여 가점 1 부여 ○ 목표치는 초과달성이 아닌 달성에 해당 ○ 경제기술안보센터 신설 및 인태지역과의 교류·협력 강화 노력이 돋보임.
	3-2. 정책 효과성	29/30	○ 당초 의도효과 기대 ○ 부수적 효과 및 기대효과 있음. ○ 목표, 계획, 성과 등을 중심으로 충실히 기술되었으나, 평가서가 요구하는 당초 효과, 부수적 효과, 기대효과 영역으로 작성할 필요가 있음. ○ 전문 연구역량 확충과 능동적 경제안보외교의 추진을 위한 정책적 학술적 기반 효과를 파생 ○ 16쪽, IFANS 광화문 브리핑(2회) 개최, 6쪽에는 3회 개최? 무엇이 정확한 기술인가? ○ 새로운 다양한 노력은 돋보이나 그로 인한 2024년만의 새로운 정책적 효과가 있는지는 다소 불분명함.

평가결과	잘된 점	○ 세계정세가 갈수록 난세(亂世)가 되는 속에서 재외국민의 보호와 해외안전은 중요성은 한국처럼 대외적 노출이 큰 나라에 매우 중요함. 우리 외교부는 다른 나라보다 더 뛰어난 활동을 보인 것으로 평가함. ○ 예방활동 및 대응역량 강화, 실제 사건사고 신속 대응, 국민 친화적 수혜자 중심적 해외 사건사고 예방 대응 체계 공고화 등의 성과가 있음. ○ 해외안전정보 수요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홍보를 통해 우리 국민 안전의식 제고 및 사건사고 예방 ○ 해외안전상황실 관계부처 협업 강화 ○ 재외국민보호 및 해외사건시 신속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 정비, 정보제공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이루어짐. ○ 기계화된 프로그램 모두 정상추진, 목표 성과 충실히 달성 ○ 국민의 해외안전여행을 위한 플랫폼 개선으로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함. ○ 적시성과 전문성 갖춘 재외국민 보호 활동의 수행과 대응 ○ 다양한 매체 활용을 통해 여행자의 정보 확산성·접근성 제고 ○ 경찰청, 소방청과의 업무약정 체결을 통한 공동 신속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재외국민 보호에 포괄적 체계를 갖춘것은 주요한 성과로 판단됨. ○ 중동 체류 우리 국민의 안전확보 및 무사 귀국 지원을 성공적으로 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성과임. ○ 해외 체류 청년 및 유학생 대상의 안전 간담회 개최를 통해 재외국민 안전의식 고취에 기여함.
	개선할 점	○ 재외국민보호는 마치 축구 골키퍼처럼 평소 잘하더라도 단 하나의 실수로 비난 받는 어려운 임무임. 재외국민 보호의 3차원(영사적 보호, 외교적 보호, 정치적 보호) 중 늘 (영사부를 넘는 재외공관 전체 차원의) 외교적, 나아가 (국력, 특히 국가호감도를 통한) 정치적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이점에 대해 외교부 차원에서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 예, 학술회의나 심포지엄 등, 을 하면 어떨까 생각함. ○ 최근 국내외 정세 변화에 따른 갑자기 발생하는 해외여행객의 불편 및 방문국의 부당한 대우 등에 대응하는 방법도 고민 필요 ○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됨. ○ 재외국민보호 및 해외 신속대응 차원에서 해외 당사국, 국제사회와의 협업, 소통 강화 영역 증진 또는 관련 성과 가시화 방안 고려할 필요 ○ 해외 체류 청년과 유학생 대상으로 최초 안전간담회(상하이)를 개최했다면(총 7회), 지역, 참여 인원, 참석자의 만족도, 성과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할 필요가 있음.

		○ 해외에서 사건·사고 발생시 국민들이 해야 할 간단한 도식화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공항(게이트나 탑승구)이나 관공서등에 포스터, 명함등의 시각화된 홍보 자료를 마련해 게시하는 것을 고려해 볼 만함.																		
지표별 평가결과	<table> <tr> <th>평가지표</th><th>평가결과</th><th>평정근거 및 제언</th></tr> <tr> <td>1-1. 계획수립의 적절성</td><td>4.67/5</td><td> ○ 계획 수립의 적절성 우수함. ○ 세부 목표 및 계획 모두 체계적으로 수립됨. ○ 추진 계획이 과제의 주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전략, 성과목표와의 연계성, 구체적인 추진 계획의 일정 등 계획수립의 적절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됨. ○ 해외사건사고 예방 및 대응 방안을 시행계획에 적절히 수립 함. </td></tr> <tr> <td>1-2. 계획단계 소통·환류</td><td>4.67/5</td><td> ○ 계획 단계소통 환류 우수함. ○ 제시된 의견이 상당부분 반영되었음. ○ 2023년의 검토 의견과 2024년 성과관리계획에 평가위원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나타남. ○ 수혜자 및 이해 관계자의 의견(2건)을 시행계획에 반영하고 있음. ○ 정책대상자 및 수혜자의 실질적 수요 및 피드백을 파악하고 계획에 반영하려 함. </td></tr> <tr> <td>2-1. 정책추진 노력</td><td>9.67/10</td><td> ○ 정책추진 노력 우수함. ○ 기계획된 프로그램 모두 정상추진됨. ○ 관리과제(33개)의 계획은 일정에 맞추어 진행되었음. ○ 계획된 사업과 일정을 충실히 수행한 것으로 판단됨. </td></tr> <tr> <td>2-2. 중간단계 환류</td><td>4.83/5</td><td> ○ 중간 단계 환류 우수함. ○ 제시된 의견이 상당부분 반영되었음. ○ 상반기 성과관리에 평가위원의 검토 의견이 반영되었음. ○ 재외국민 보호 역량 강화와 정책수혜자의 피드백 수렴에 대한 검토의견을 시행과정에서 반영함. </td></tr> <tr> <td>2-3. 변화 대응성</td><td>14/15</td><td> ○ 변화 대응성 우수함. ○ 국제질서 변화에 따른 대응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짐. ○ 다만, 국제환경의 유동성 대비 제한/감소되는 인력을 고려 하면 해당 국가, 국제사회와의 즉시적 소통과 협력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판단됨. 이러한 노력에 대한 지속 발전 및 자체평가서에서 보다 부각할 필요가 있음. ○ 중동의 불안한 정세에 맞추어 재외국민의 보호 업무에 대처, 신흥 국가나 지역의 관련 새로운 정보를 제공, 해상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해수부와 협업하여 국민 안전을 </td></tr> </table>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수립의 적절성	4.67/5	○ 계획 수립의 적절성 우수함. ○ 세부 목표 및 계획 모두 체계적으로 수립됨. ○ 추진 계획이 과제의 주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전략, 성과목표와의 연계성, 구체적인 추진 계획의 일정 등 계획수립의 적절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됨. ○ 해외사건사고 예방 및 대응 방안을 시행계획에 적절히 수립 함.	1-2. 계획단계 소통·환류	4.67/5	○ 계획 단계소통 환류 우수함. ○ 제시된 의견이 상당부분 반영되었음. ○ 2023년의 검토 의견과 2024년 성과관리계획에 평가위원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나타남. ○ 수혜자 및 이해 관계자의 의견(2건)을 시행계획에 반영하고 있음. ○ 정책대상자 및 수혜자의 실질적 수요 및 피드백을 파악하고 계획에 반영하려 함.	2-1. 정책추진 노력	9.67/10	○ 정책추진 노력 우수함. ○ 기계획된 프로그램 모두 정상추진됨. ○ 관리과제(33개)의 계획은 일정에 맞추어 진행되었음. ○ 계획된 사업과 일정을 충실히 수행한 것으로 판단됨.	2-2. 중간단계 환류	4.83/5	○ 중간 단계 환류 우수함. ○ 제시된 의견이 상당부분 반영되었음. ○ 상반기 성과관리에 평가위원의 검토 의견이 반영되었음. ○ 재외국민 보호 역량 강화와 정책수혜자의 피드백 수렴에 대한 검토의견을 시행과정에서 반영함.	2-3. 변화 대응성	14/15	○ 변화 대응성 우수함. ○ 국제질서 변화에 따른 대응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짐. ○ 다만, 국제환경의 유동성 대비 제한/감소되는 인력을 고려 하면 해당 국가, 국제사회와의 즉시적 소통과 협력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판단됨. 이러한 노력에 대한 지속 발전 및 자체평가서에서 보다 부각할 필요가 있음. ○ 중동의 불안한 정세에 맞추어 재외국민의 보호 업무에 대처, 신흥 국가나 지역의 관련 새로운 정보를 제공, 해상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해수부와 협업하여 국민 안전을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수립의 적절성	4.67/5	○ 계획 수립의 적절성 우수함. ○ 세부 목표 및 계획 모두 체계적으로 수립됨. ○ 추진 계획이 과제의 주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전략, 성과목표와의 연계성, 구체적인 추진 계획의 일정 등 계획수립의 적절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됨. ○ 해외사건사고 예방 및 대응 방안을 시행계획에 적절히 수립 함.																		
1-2. 계획단계 소통·환류	4.67/5	○ 계획 단계소통 환류 우수함. ○ 제시된 의견이 상당부분 반영되었음. ○ 2023년의 검토 의견과 2024년 성과관리계획에 평가위원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나타남. ○ 수혜자 및 이해 관계자의 의견(2건)을 시행계획에 반영하고 있음. ○ 정책대상자 및 수혜자의 실질적 수요 및 피드백을 파악하고 계획에 반영하려 함.																		
2-1. 정책추진 노력	9.67/10	○ 정책추진 노력 우수함. ○ 기계획된 프로그램 모두 정상추진됨. ○ 관리과제(33개)의 계획은 일정에 맞추어 진행되었음. ○ 계획된 사업과 일정을 충실히 수행한 것으로 판단됨.																		
2-2. 중간단계 환류	4.83/5	○ 중간 단계 환류 우수함. ○ 제시된 의견이 상당부분 반영되었음. ○ 상반기 성과관리에 평가위원의 검토 의견이 반영되었음. ○ 재외국민 보호 역량 강화와 정책수혜자의 피드백 수렴에 대한 검토의견을 시행과정에서 반영함.																		
2-3. 변화 대응성	14/15	○ 변화 대응성 우수함. ○ 국제질서 변화에 따른 대응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짐. ○ 다만, 국제환경의 유동성 대비 제한/감소되는 인력을 고려 하면 해당 국가, 국제사회와의 즉시적 소통과 협력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판단됨. 이러한 노력에 대한 지속 발전 및 자체평가서에서 보다 부각할 필요가 있음. ○ 중동의 불안한 정세에 맞추어 재외국민의 보호 업무에 대처, 신흥 국가나 지역의 관련 새로운 정보를 제공, 해상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해수부와 협업하여 국민 안전을																		

			위한 업무를 수행 ○ 코로나 이후 여행증가와 여행지 다변화, 중동의 정세 변화에 따른 재외국민 및 우리국민의 안전문제 발생에 적절히 대응함.
	3-1.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목표치의 적극성달성도	25.83/30	○ 적극적 목표 달성, 우발성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가점 1점 ○ 목표치 및 성과지표 영역에서 해외국가, 국제사회와의 협력, 소통체계 등에 대한 노력이 요구됨. ○ 2건의 성과지표는 101.5%로 달성에 해당하지만 목표치의 적극성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음. ○ 2023년 2개 성과지표 실적치(56.7 ; 49.2) 평균은 52.9. 반면 2024년의 실적치는 각각 50.5, 50으로 평균은 50.2로 나타남. 2023년 대비 2024년의 하향 실적치의 원인 규명과 함께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음. ○ 중동 체류 우리 국민의 안전확보 및 무사 귀국 지원은 중요한 성과임.
	3-2. 정책 효과성	28.67/30	○ 당초 의도한 효과 기대 ○ 부수적 효과, 기대효과 있음. ○ 제시된 목표(국민 안전의식 제고 및 예방, 해외 사건사고 신속대응을 위한 정책 실현 목표)에 대한 달성여부, 부수적 효과, 기대효과에 대한 적시적 평가가 이루어짐. ○ 해외 사건사고 신속대응 차원에서 국외 당사국과의 협력에 대한 협력, 관련 지표화에 대하여 고려할 필요 ○ 맞춤형 홍보 및 해외 사건사고의 신속한 대처 활동을 수행함. ○ 부수적 그리고 기대 효과를 파생하고 있음. ○ 실제 정책수혜자의 평가를 수렴할 기회를 마련해 긍정적 피드백을 얻음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확인하고 나아가 정책에 대한 수혜자로부터의 신뢰확보 및 홍보효과를 부수적으로 얻은 것으로 판단됨.

평가결과	잘된 점	○ 상호 비자면제, 워킹 홀리데이 확대를 통해 국민의 대외진출을 활성화하려는 노력이 돋보임. ○ 편익 증진의 적극적인 영사정책 추진이나 재외국민 보호망 확대 및 홍보 강화, 영사분야 국제협력 강화 등의 성과가 있음. ○ 국민의 영사현안 해결을 위한 양자 영사협의회 개최 ○ 워킹홀리데이 참여가능 연령 및 대상국 확대 ○ 전반적으로 종합적, 체계적 목표설정이 이루어졌으며, 각 사항별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기획 및 이행됨. ○ 대한민국 국민들의 해외활동 지원을 위한 해당 당사국/국제사회 차원의 협력이 적극적으로 모색됨. ○ 영사분야 관련 영사협의회 개최(4회) 확대로 국제협력의 강화는 적극적인 영사정책의 추진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영사 업무의 효율화(사증용 영수필증 폐지, 수납방식 다양화), 재외공관 영사민원 서비스의 편익 증진을 추진 ○ 워킹홀리데이 대상국 확대와 참여 가능 연령의 상향으로(27개국, 34세) 청년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였음. ○ 우리 국민의 영사 현안 해결을 위한 양자 영사 협의회 개최는 해당국에 체류하거나 방문할 우리국민의 실질적 현안해결에 즉각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성과로 판단됨.
	개선할 점	○ 중국이 한국인 단기체류 비자 면제를 '일방적'으로 발표한 데 대해 국민의 관심이 큼. 그것이 '상호적'이면 중국인 불법체류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존재. 그러한 관심과 우려에 대한 외교부 차원의 설명이 아쉬움. ○ 최근 국내외 정세 변환에 대응하는 국가 이미지 훼손과 영사업무를 연계하여 진행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해 보임. ○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됨. ○ 재외국민보호과, 해외안전상황실 등 관련 실국과의 체계성, 소통, 협업 측면을 강화할 필요 ○ 국민들의 해외안전여행을 위한 캠페인(24년 3회)을 분기별로 1회, 총 4회의 캠페인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홍보 전략 마련 ○ 운전면허 상호인정 국가와 지역 확대는 해외 체류 국민들의 편익을 증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함. ○ 영사공공외교 활동과 관련한 홈페이지 자체에 대한 홍보가 필요함. ○ 워킹홀리데이에 참가하는 청년들이 이후 체류국 노동시장 및 국적법 등 해당국 특징에 따라 체류신분을 자신들의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전환하는 사례가 늘어

		나고 있다는 점에서, 워킹홀리데이 참여자의 수적 증가 방안 뿐 아니라, 이들에 대한 다양한 측면에서 현황자료 시스템을 통합적으로 구축하여 청년들이 장기적 안목에서 체류국을 선택하고, 자신들의 경험을 적용 확대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노력은 외교부가 한국의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운영하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수립의 적절성	4.83/5	○ 계획 수립의 적절성 우수함. ○ 전반적으로 종합적, 체계적 목표설정이 이루어졌으며, 각 사항별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기획 및 이행됨. ○ 전략, 성과목표와의 연계성, 구체적인 추진 계획의 일정,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계획수립의 적절성이 있음. ○ 국내외 영사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계획을 적절히 수립함.
	1-2. 계획단계 소통환류	4.17/5	○ 계획 단계 소통 환류 우수함. ○ 제시된 의견에 대한 반영보다는 추가 설명을 통해 관련 성과를 가시화하는 측면. 검토/평가 사전 단계에서의 소통, 환류가 요구됨. ○ 2023년 자체평가의 결과, 2024년 성과관리 등 2건의 평가 위원 검토 사항을 계획에 잘 반영하고 있음. ○ 검토의견이 반영됨.
	2-1. 정책추진 노력	9.83/10	○ 정책추진 노력 우수함 ○ 기계화된 프로그램 모두 정상추진됨. ○ 9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였음. ○ 일정을 계획대로 추진함.
	2-2. 중간단계 환류	4.17/5	○ 중간 단계 환류 우수함. ○ 제시된 의견에 대한 반영보다는 추가 설명을 통해 관련 성과를 가시화하는 측면. 검토/평가 사전 단계에서의 소통, 환류가 요구됨. ○ 성과관리 상반기와 관련하여 3명 평가위원의 검토 의견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검토의견을 적절히 반영함.
	2-3. 변화 대응성	13.17/15	○ 변화 대응성 우수함. ○ 영사 현안 해결을 위한 관련 조치들이 적시되어 있으나 변화하는 환경 전반에 대한 변화대응성 측면은 다소 미흡 ○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 사증면제 협정, 워킹홀리데이 협정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를 추진하고 있음.

			○ 영사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양자 영사협의를 개최함에 있어 관계 부처의 참여로 추진하고 있음. ○ 영사협의회를 다시 개최한 것은 의미있는 대응으로 평가됨. ○ 적극적으로 설정한 목표 달성
	3-1.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목표치의 적극성달성도	26.5/30	○ 목표치를 초과달성 하지는 않았으나 관련 영사업무, 협정 추진, 협의회 및 협의 이행 지수 향상은 영사분야에서의 실질적 개선 및 가시적 성과를 의미한다고 판단됨. 모든 영역에서 달성된 점도 유의미 ○ 차년도에는 4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상향할 필요가 있음.
	3-2. 정책 효과성	28.33/30	○ 당초 의도한 효과 우수 ○ 부수적 및 향후 기대효과 우수 ○ 관련 실국, 부처간의 협업 강화를 통한 효율화 모색 필요 ○ 영사협의회, 워킹홀리데이, 해외안전여행 홍보 등에서 추진 계획의 효과를 산출하고 있음. ○ 부수적 효과의 산출, 그리고 향후 기대효과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함. ○ 영사협정 추진과 관련한 목표 달성은 그 함의와 결과 모두에서 의미있는 성과로 판단됨. ○ 유튜브 조회수라는 양적결과를 질적 결과로 평가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음. ○ 부수 효과로 기재된 내용은 사실상 많은 면에서 영사외교과 직접적 성과목표이고 결과임.

평가결과	잘된 점	○ 여권 발급이라는 단순 업무를 계속 선진화하려는 노력이 돋보임. ○ 다양한 여권 업무 선진화, 여권 서비스 강화, 차세대 전자여권 안정화, 사용자 친화적 여권 업무 전상망 개선 등의 성과 ○ 여권 발급비용 인하 ○ 여권 재발급 신청서비스 민간개방을 통한 편의성 강화 ○ 여권서비스의 접근성 강화, 효율성 강화, 편의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개선과 정비가 이루어진 점이 매우 가시적. 민원 해소를 위한 노력도 매우 가시적. 작년 대비 다각도에서 개선과 보완이 이루어짐. ○ 여권서비스를 알리기 위한 노력도 돋보임. (인플루언서 협업 등) ○ 여권 재발급 서비스의 확대에 의한 접근성과 편의성 제고, 여권 발급 비용의 인하 등의 추진은 적극행정의 대표 사례로 인식할 수 있음. ○ 병역 미필자의 5년에서 10년 유효기간은 설정은 불합리한 차별 철폐의 사안, 재외공관의 신형 여권 사진 촬영기의 품질 개선은 국민의 편익을 배려한 조치로 판단할 수 있음. ○ API 서비스의 도입은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정책임. ○ 여권서비스 접근성 강화, 특히 재발급 신청 서비스 개방은 국민들의 여권과 관련한 일상에 의미있는 기여로 평가됨. ○ 외국적 공동 친권자 자녀 여권발급 개선은 이민자 및 다문화 가정 증가를 감안할 때 매우 의미 있는 여권서비스 개선임. ○ 여권정보 진위확인 서비스(API) 개방역시 매우 큰 변화로 국민여권서비스 품질 개선에 매우 중요한 성과로 판단됨.
	개선할 점	○ 국제교류기여금 인하라는 변화가 공공외교에 미칠 영향에 대한 여권과 자체의 평가, 대안 제시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추가로 발생하는 지속적인 여권 수요와 민원에 대응하는 적극적 노력을 지속할 것을 제언 ○ 해외여행이 보편화되어 있는 만큼 여권발급비용의 추가 인하여력은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며, 장기적으로 여권 발급수수료와 국제교류기여금 분리징수가 바람직함. ○ 국내 여권 사무대행 기관과 재외공관에 대한 방문 점검 시 중점 점검 사항에서 공통적으로 표출되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수립의 적절성	4.83/5	○ 계획 수립의 적절성 우수함. ○ 여권서비스 증진을 위한 다각도의 계획이 수립 및 이행됨. ○ 추진 계획이 과제의 주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전략, 성과목표와의 연계성, 구체적인 추진 계획의 일정 등 계획수립의 적절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됨. ○ 여권서비스 개선을 위한 다양한 계획이고 포괄적·유기적으로 수립됨.
	1-2. 계획단계 소통·환류	4.83/5	○ 계획 단계 소통 환류 우수함. ○ 제시된 의견에 대한 적극 반영이 이루어짐. ○ 2023년 평가 결과를 계획에 반영, 2024년 성과관리 시행 계획에 대한 평가위원의 의견을 반영, 수혜자 및 이해 당사자의 의견 또한 계획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검토의견이 잘 반영됨.
	2-1. 정책추진 노력	9.83/10	○ 일정에 충실함. ○ 정책추진 노력 우수함. ○ 계획된 프로그램 모두 정상추진됨. ○ 추진과제 34개를 정상적으로 추진하였음. ○ 일정을 계획대로 추진함.
	2-2. 중간단계 환류	4.83/5	○ 중간 단계 환류 우수함. ○ 제시된 의견에 대한 적극 반영이 이루어짐. ○ 상반기 성과관리에 관한 평가위원의 검토의견을 수용하여 계획에 반영하였음. ○ 일정을 계획대로 추진함.
	2-3. 변화 대응성	14.5/15	○ 여권발급시 부과되는 국제교류기여금의 인하가 KF를 통한 공공외교에 미칠 영향에 대해 여권과 나룸의 분석과 대안 제시 ○ 4개 안건을 중심으로 변화 대응성에 대한 조치는 적합함. ○ 변화 대응성 우수함. ○ 청년지원 확대, 민원해소를 위한 선제적 노력, 디지털 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지속 추진됨. ○ 변화하는 IT환경에 적절히 대응함.

	3-1.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목표치의 적극성달성도	27.33/30	○달성도 우수 ○적극성 우수 ○성과지표 목표치의 달성도는 100%를 상회하여 달성에 해당 ○목표치의 적극성과 성과지표의 대표성은 각각 상
	3-2. 정책 효과성	29.33/30	○ 여권과의 적극적 진보가 좋음. ○ 당초 의도 효과 달성 ○ 향후 기대효과 무난함. ○ 전자여권의 안정적 발급을 통한 국민의 해외여행 지원, 법령·지침·제도의 개선으로 여권 행정서비스와 국민권익의 향상, 여권 대행기관의 담당인력에 대한 역량 강화 등 3건은 당초 기획한 효과를 산출하고 있음. ○ 법령·지침·제도의 개선으로 여권 행정서비스와 국민권익의 향상 안건은 부수적 효과가 약함.

평가 결과	잘된 점	○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 러북 군사협력에 대하여 기민하게 대응하여 G7 등 유사입장국과 공동 대응하고 G20 정상회의에서도 상당수 유사입장국 정상들의 호응을 끌어낸 점이 돋보였음. ○ 우리에게 우호적인 여론 확산을 위하여 G7 정부뿐만 아니라 학계 주요 인사를 접촉해 美 CSIS 등이 G7 확대 제안을 한다든지 하는 성과를 도출한 점이 눈길을 끌었음. ○ 미·중 전략경쟁 등 지정학적 위험이 높은 상황에서 G7 등 가치를 공유하는 유사입장국과의 공조를 강화하였고, 특히 러·북 불법 군사협력에 대해서도 G7과의 공조를 통해 적절히 대처함. ○ 전략적 의제(AI, CFE 등) 선정을 위한 부처간 협업 및 선도 노력 ○ 러북 군사협력 등 예기치 못한 글로벌 환경 변화에 기민한 대응 ○ 전략성 확보를 위한 노력은 훌륭한 성과라고 생각함. - 다자경제협의체에서 4개의 구체적인 아젠다(무탄소에너지확대, AI 원칙, 플라스틱 감축, 재정 건정성)를 선정하여 주도적 논의를 통하여 G20 정상선언문에 채택된 점은 훌륭한 성과라고 생각함. - 유사입장국과의 연대 강화를 위하여 G7 학계에서 인식 변화를 유도한 점은 훌륭한 성과임.
	개선 할점	○ 다보스 포럼은 세계화가 강조되던 시기에는 중요한 논의의 장이었으나, 경제 안보가 강조되며 보호무역주의의 파고가 높아진 작금의 세계 정세에서 계속하여 외교부의 역량과 resource를 투입해야 할 장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보여짐. ○ 美 싱크탱크 접촉에 있어서는 수미 테리 사건의 파장을 고려하여 FARA의 준수에 관하여 신경을 쓸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 전 트럼프 행정부 입각 예정 인사 등과의 교류시에는 로건법 저촉 여부를 잘 살펴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 G7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 ○ G7 확대 전략의 지향점을 보다 명확히 하여 중장기 전략성 강화 노력 필요 ○ OECD에서 AI를 넘어 신기술 거버넌스 논의에 외교부의 역할 강화 필요 ○ 4개 아젠다의 지속적인 전략성 유지를 위해서는 외교부 단독의 수행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함. - 무탄소, AI, 플라스틱 감축, 재정 건정성과 관련된 정부 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업에 대한 노력이 좀 더 추가된다면 지속적 전략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함. ○ 성과지표에 외교부 노력이 평가될 수 있는 지표 개발이 있으면 좋겠음. - 수출이 중요한 대한민국에서는 다자경제협의체의 활용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함. 다자경제협의체를 포함한 국제사회 '참여의 시작'을 만드는 부서가 외교부라고 생각함.

		- 현재 지표인 참여, 기여도와 함께 '참여 후' '어떤 기여도 발생'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고민하면, 수행하신 노력을 지금보다 정확하게 평가받으실 것으로 생각함.		
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수립의 적절성	4/5	○ G7, G20 등에 중점을 둔 것은 이해가 되나 개도국과의 다자 차원에서의 경제협력 심화 부분은 계획에서만 반영된 것으로 보임. ○ 제시된 계획은 전략목표 달성과 연계성을 갖추고 있음. ○ 명확한 지향성을 가지고 적절하게 계획 수립 ○ 우리 주요 정책과 국익에 부합하는 입장 반영을 위한 구체성, 전략성 확보를 위한 계획은 적절한 것으로 생각함.	
	1-2. 계획단계 소통·환류	4.5/5	○ 자체평가 결과(의견)을 상당수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청년 행사 가중치 설정을 통해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도 어느 정도 반영한 것으로 사료됨. ○ 자체평가 의견을 정책 개선에 적극 반영하고 있음. ○ 모든 의견을 충실히 반영 ○ 4개 분야 선정을 위한 관련 부처와의 적극적인 소통은 모범 사례라고 생각함.	
	2-1. 정책추진 노력	9.5/10	○ 시행계획상 계획된 사업 13개 중 13개 모두를 정상 추진한 것으로 보임. ○ 중간 자체평가 점검결과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음. ○ 모든 계획된 일정을 충실히 수행 ○ 검토 의견이 충실하게 반영되었음.	
	2-2. 중간단계 환류	4.5/5	○ 자체평가위원 점검결과 검토의견을 상당수 반영한 것을 확인함. ○ 중간 자체평가 점검결과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음. ○ 모든 의견 적절히 반영 ○ 검토 의견이 충실하게 반영되었음.	
	2-3. 변화 대응성	14/15	○ G7 및 G20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러북 불법 군사협력을 규탄하는 유사입장국들과 적극적으로 공조하는 모습을 펼친 것이 인상적이었음. ○ 상황변화에 대한 충분한 모니터링 및 의견수렴을 통해 적절히 대처하고 있음. ○ 러북 군사협력 대응에 G20, G7을 적절히 활용 ○ 예상 하지 못한, 러북 군사협력에 대한 신속한 대응은 많은 노력을 한 사례라고 생각함. 실질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극소수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생각함. - 북한 관련 사항은 국민들이 체감하는 대형 불안 요소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함. 대국민 소통 지표에 해당되는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음.
	3-1.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목표치의 적극성달성도	24.5/30	○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주요한 다자협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러북 불법 군사협력 진행과 같은 돌발 변수에도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대응한 것이 돋보임. ○ 최근 3년 추세 수준의 목표치 설정으로 판단되어 적극성을 '중'으로 평가함 ○ 장기전략 지향을 위한 전문가 및 대국민 소통 우수 ○ 다자외교 무대간의 유기적 연계 대응 우수 ○ 현재 성과지표가 '업무 수행했음'만을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함. '업무를 어떻게 수행했고, 수행된 업무가 대한민국 정책과 국익에 이렇게 연결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고민하면 좋겠음.
	3-2. 정책 효과성	25.75/30	○ 플라스틱협약이 우리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외부 여건상 타결되지 못한 점을 고려. ○ G7과의 협력 강화, 러북 불법 군사 협력에 대한 효과적인 국제 공조 추진은 반영. ○ G20, OECD 등 논의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보이나, G7과의 공조 가능성 확대로 부수적·향후 기대효과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판단됨. ○ G20 등 다자협약체를 우리의 외교적 이익을 위해 적절히 활용 ○ G7+를 명확한 지향점으로 설정하고 추진하기를 희망 ○ 4개 분야를 선정한 점은, 구체성, 전략성을 중심으로 한 업무 추진은 정책의 효과성이 높다고 생각함.

평가결과	잘된 점	○ 경제협정체결 종합 매뉴얼을 처음으로 마련하여 경제협정 수요 발굴부터 체결 전반의 협정 추진 절차를 구축하는 등 업무를 체계적, 조직적으로 수행한 것이 인상 깊었음. ○ 상반기 점검시 자체평가위원이 제시한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부서 내 유관 업무 담당자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분쟁 예방-대응-규범 형성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 것도 매우 눈에 띄는 점이었음. ○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및 러시아의 이중과세방지협약 정지 등에 적극 대처하여 우리 기업의 이익을 보호함. ○ '경제협정체결 종합 매뉴얼'을 처음으로 마련한 점은 모범 사례로 생각함. ○ 업무 추진에 따른 효과를 구체적으로 추정한 점은 정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모범 사례로 생각함. ○ '경제협정체결 종합 매뉴얼' 마련을 통해 수요 발굴 및 체결 전반의 체계적 추진 ○ 대만과의 투자보장약정 체결 재추진		
	개선할 점	○ 투자보장협정의 경우 현재까지는 우리 정부를 제소하는 외국 투자자에 대한 대응이 주가 되었다면, 앞으로는 해외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이 주재국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적극적으로 제소할 수 있는 수단으로 투자보장협정을 더욱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의 라인야후, KT, 중앙아그룹과 같은 지원 사례를 향후 보다 더 많이 발굴하기를 희망함. ○ 모범 사례를 정확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성과지표가 제시되지 않은, 수행하신 많은 노력들이 정확하게 평가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은 큰 아쉬움으로 생각함. ○ 중장기 전략적 추진을 위한 중점 협정 수요 및 선제적 협정 수요 분야에 대한 로드맵 개발 권고		
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수립의 적절성	4.25/5	○ 경제협정체결 종합 매뉴얼을 마련하여 일관되고 효율적인 협정 추진 체계를 구축한 것이 인상적이었고, 경제적 추산 가능한 자료들을 활용하여 최대한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협정 체결의 기대효과를 제시한 것도 눈에 띄었음. ○ 제시된 계획은 전략목표 달성과 연계성을 갖추고 있음. ○ 구체적, 논리적 분석을 통한 계획이 수립되었다고 생각함. 정량화를 위한 노력이 매우 돋보임. ○ 적절한 계획임.	
	1-2. 계획단계 소통환류	4.5/5	○ 자체평가위원회의 검토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이 돋보였음. ○ 자체평가 의견을 정책 개선에 반영하고 있음.	

		○ 교민, 기업, 관계부처, 법무법인 등 업무 관련 다양한 의견 수렴을 한 것으로 생각함. ○ 모든 의견 충실히 반영함
2-1. 정책추진 노력	9.5/10	○ 시행계획상 계획된 사업 14개 중 14개를 정상 추진한 것으로 보임. ○ 추진 계획을 모두 정상 추진하였음. ○ 모든 일정 충실히 수행
2-2. 중간단계 환류	5/5	○ 상반기 점검시 자체평가위원들이 제시한 검토의견들을 매우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보임. ○ 중간 자체평가 점검결과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음. ○ 정량화를 위한 노력이 매우 돋보임. ○ 모든 의견 충실히 반영함
2-3. 변화 대응성	13.38/15	○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관련한 노력들은 평가할만 하지만, 러시아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비우호국 대상으로 취한 조치에 대해서는 국제정세로 인한 우리 대응방안의 한계는 있었겠지만 현지 진출 우리 기업들을 위한 보다 더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할 수는 없었는지 아쉬움이 있음. ○ 상황변화에 대한 충분한 모니터링 및 의견수렴을 통해 적절히 대처하고 있음. ○ 러우사태에 대한 고려 내용이 부족하다고 생각함. ○ 재외공관, 유관부처 및 기업들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한 위기 대처
3-1.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목표치의 적극성달성도	25/30	○ 경제협정 규범 확대, 개선 및 경제협정 관련 분쟁 대응, 예방 분야에서 목표치의 130% 이상을 달성한 것으로 보면 당초 목표치 설정이 너무 보수적이지 않았나 싶은 아쉬움이 있음. ○ 업무의 중요성에 비하여 대국민 홍보가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것으로 보임. ○ '국제경제규범 분야에서의 선도적 역할 수행' 지표의 달성률이 100%로 평균 기준 초과달성 수준이라고 보기 힘들. ○ 성과지표의 대표성에, 성과의 정량화 노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이 아쉬움. ○ 사전 예방을 위한 협의 및 활동 우수 ○ 대만과의 전향적 협력 재개 우수
3-2. 정책 효과성	26/30	○ 우리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을 수치로 환산하여 보여준 점이 매우 인상적이었음.

		○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투자보호 협정을 활용하여 상대국 정부를 제소하는 등의 업무를 보다 더 지원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 아쉬움이 있음. ○ 의도한 정책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었고, 긍정적인 부수·향후 기대효과도 존재한다고 판단됨. ○ 매뉴얼화를 추진한 것은 복잡한 경제 협정 체결 및 국제 규범 논의 시, 관련 부처, 기업에게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함, 지속적인 추진을 요청드립니다. ○ ISDS 관련 유기적 협업체계 구축 우수 ○ 과학기술분야 협력/협정에 관심 요망
--	--	---

평가결과	잘된 점	○ 2025 APEC 비공식고위관리회의(12.9.-11.)를 서울에서 예정대로 개최하여 비상 계엄 선포 및 해제 후의 상황을 APEC 회원국들에게 알려서 APEC의 성공적 개최를 뒷받침한 것이 매우 돋보였음. ○ APEC 개최도시 선정 관련 갈등을 잘 관리해 주었음. ○ APEC 지자체 유치 경쟁 갈등 관리를 통해 원만한 해결 ○ ECOTECH 의장 수임을 통해 핵심의제를 선도하고 이를 '25 APEC에 반영 ○ 재외공관 지재권 침해 대응 지원 강화 노력 우수 ○ 2025년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한 점		
	개선 할점	○ WTO의 기능이 사실상 정지된 상황이나 다름없는데 여전히 관성적으로 WTO 관련하여 우리 외교 역량을 투입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 '25년 APEC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지역 경제공동체와의 협력 강화 및 지역 내 리더십 확보를 지속 추진 ○ 러북 국사협력 규탄에 (어렵겠지만) 중국이 동참할 수 있도록 압박하는 노력을 '25년에 전개할 수 있으면 좋을 것임 ○ 2025년 APEC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다자경제협의체와 지역경제공동체와의 연계, 협력 관련 내용이 보다 많이 포함되었으면 하는 아쉬움.		
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수립의 적절성	4.25/5	○ 제시된 계획은 전략목표 달성과 연계성을 갖추고 있음. ○ APEC 의장국 수임 준비를 포함한 계획은 매우 적절 ○ 2025년 APEC 정상회의의 전략적 활용을 위한 전략이 반영되어 있음. ○ 지표의 가중치 조정은 적절한 활동으로 생각함.	
	1-2. 계획단계 소통·환류	4.25/5	○ 나름 자체평가 결과를 반영했으나 미흡함. ○ 자체평가 의견을 정책 개선에 적극 반영하고 있음. ○ 모두 충실히 반영함 ○ 의장국 트로이카 면담 추진등 노력을 하였음.	
	2-1. 정책추진 노력	9.5/10	○ 21개 모두를 정상 추진함. ○ 추진 계획을 모두 정상 추진하였음. ○ 계획한 모든 일정을 충실히 수행함 ○ 일정의 정상적 추진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	
	2-2. 중간단계 환류	4.5/5	○ WTO 관련해 APEC과의 시너지 제고 방안을 모색한 것은 평가할만함.	

			○ 중간 자체평가 점검결과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음. ○ 모든 의견을 충실히 반영 ○ APEC-WTO 간 시너지 제고 방안 모색은 모범적인 사례로 생각함.
	2-3. 변화 대응성	13.75/15	○ APEC 미유치 도시에 대한 배려가 돋보임. ○ 상황변화에 대한 충분한 모니터링 및 의견수렴을 통해 적절히 대처하고 있음. ○ APEC을 활용하여 러-북 군사협력을 규탄 ○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역내 경제 협력 강화 제안을 통해 아태지역 공동번영과 경제발전에 기여한 점은 훌륭함.
	3-1.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목표치의 적극성달성도	25.25/30	○ 목표치 달성을 위한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 다만 목표치를 너무 보수적으로 잡은 것이 아쉬움. ○ '2025 APEC 의장국 수임 준비' 및 'WTO 회의 및 통상/지재권 관련 회의 내 우리 입장 반영 및 우리 기업 이익 보호 활동 건수' 달성률이 100%로 평균 기준 초과달성으로 보기 힘들. ○ APEC 의장국 수임 준비가 원활히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 지재권 보호 활동은 더욱 강화되어야. ○ 3개 성과지표를 유지하고 가중치를 조정한 점은 우수함. ○ 부처내(예 다자경제기구과) 협업을 나타낼 수 있는 지표에 대한 고민을 하면 좋겠음.
	3-2. 정책 효과성	26.25/30	○ 당초 의도한 효과를 거의 달성함. ○ 다만 부수적 효과 및 향후 기대효과는 미흡함. ○ 의도한 정책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었고, 매우 긍정적인 부수. 향후 기대효과도 존재한다고 판단됨. ○ APEC 개최지 갈등 관리 우수 ○ 재외공관 지재권 대응 역량 강화 노력 우수 ○ APEC 의장국으로 준비 등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생각함.

평가결과	잘된 점	○ 마침 일본과의 관계 복원을 활용하여 양국 간의 경제협력 위상을 강화한 것은 시의적절해 보임. ○ 민관 협업 활동의 일환으로 요소 얼라이언스 구축 등을 추진. ○ 한·일관계 복원에 걸맞은 경제 협력 위상 강화 활동은 모범 사례임. ○ 미·중 갈등 상황에서 한·중 협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한 점은 모범 사례임. ○ 민관협업 채널 구축을 통한 민·관 협력외교 전개 ○ 중국 진출 기업의 애로사항 다수 해결 지원		
	개선할 점	○ 서방에서 중국 포위망이 점점 굳어지는 상황임에도 종래의 관성 때문인지 대중 외교에 너무 많은 자원을 동원하는 것 같아 안타까움. ○ 공급망 안정성 확보를 위해 요소 이외에도 핵심광물, 첨단산업 등에서도 민관 협업 활동을 지속 확대할 필요 ○ 한·일 관계는 많은 개선 노력을 통하여 다양한 협력 관계가 구축되었다고 생각함. 그러나, 라인사태, 사도광산 건 등에서 외교적 기여도가 높지 않았다고 생각함. 향후 이러한 상황 변화에 적극적 대응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중국의 한국 문화/기업활동에 대한 재제가 지속되고 있는 현실: 보다 적극적 대응 필요 ○ 재외 기업 및 국민에 대한 적극적 소통 의지는 높이 평가하나, 한 걸음 더 나아가 재외 기업/국민이 부담 없이 찾아오는 소통 방안 모색 권고		
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수립의 적절성	3.5/5	○ 중국과 포괄적 경제협력 관계를 확대할 상황일지 의문임. ○ 제시된 계획은 전략목표 달성과 연계성을 갖추고 있음. ○ 포괄적 한·중 경제적 협력 관계 확대, 복원된 한·일 관계에 적절한 계획이 수립되었으나, 한국 기업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사태에 대한 계획의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함. ○ 적절하게 계획 수립	
	1-2. 계획단계 소통·환류	3.5/5	○ 유사입장국의 대중 정책을 참고한 점은 평가할만함. ○ 자체평가 의견을 정책개선에 반영하고 있음. ○ 중국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 많은 노력이 진행되었음. ○ 대체로 충실히 반영하였으나, 중국 리스크 관리 미흡	
	2-1. 정책추진 노력	9/10	○ 시행계획상 계획된 사업 자체가 너무 부족해 보임. ○ 추진 계획을 모두 정상 추진하였음. ○ 5년만에 개최된 한일중 정상회의 추진 등 정책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였음.	

		○ 계획된 일정 모두 충실히 수행
2-2. 중간단계 환류	4.25/5	○ 너무 긍정적인 평가에만 편승한 것 같아 아쉬움. ○ 중간 자체평가 점검결과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음. ○ 한일중 정상회의, 3차례의 한일 정상회의를 통한 논의를 강화한 점은 노력하였음.
2-3. 변화 대응성	12.5/15	○ 일본 및 중국 진출 우리 기업들을 위한 지원 노력이 돋보임. ○ 상황변화에 대한 충분한 모니터링 및 의견수렴을 통해 적절히 대처하고 있음. ○ 중국의 요소 수출제한(6월) 등의 조치에 대해 재외공관 및 관계기관, 민간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예측 가능성이 매우 어렵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전략적 접근 방법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중국 리스크 대응에 있어서 수동적 자세
3-1.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목표치의 적극성달성도	22.75/30	○ 목표치를 너무 보수적으로 잡은 것 같음. ○ 성과지표의 대표성이 미흡해 보임. ○ 평균 기준 지표 달성률이 거의 130%에 달하므로 초과달성으로 평가되나, 목표치의 적극성은 조직개편을 감안하더라도 낮은 것으로 판단됨. ○ 크게 중, 일, 기타 동아시아로 구분하여 경제안보 외교 활동을 대표지표로 설정하면 어떨까 합니다. ○ 관계 부처 및 기업인들과의 소통 노력 우수
3-2. 정책 효과성	26.5/30	○ 당초 의도한 효과는 어느 정도 발생한 것으로 보임. ○ 부수적 효과 및 향후 기대효과도 평균치는 달성한 것으로 보임. ○ 의도한 정책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었고, 긍정적인 부수·향후 기대효과도 존재한다고 판단됨. ○ 5년 만에 개최된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중 협력 관계의 적극적인 회복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함. ○ 이를 계기로, 세계 수출량의 약 21%를 차지하는 한일중은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의무에서 자유롭지 않음. 이를 계기로 기후변화시대 한일중의 새로운 협력 관계를 모색하는 부수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함. ○ 대중 / 대일 협력 및 대응에 있어서 소극적 자세 ○ 공급망 안정화를 넘어 중국 리스크에 적극 대응하는 자세 필요

평가결과	잘된 점	○ 대선 직후 미 대내외 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한 것이 인상적임. ○ 미국 대내외 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였고, 한미 경제협력·기술동맹 강화 및 국내 투자여건 마련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다양한 통로를 통한 유관부처 및 민간과의 상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인상적인 노력을 전개 ○ 바이오 안보 전략을 수립하고 신기술의 안보화에 선제적 대응 ○ 예측이 매우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대선 전·후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다양한 활동들이 추진됨. - 유관부처와의 상시 협업체계 구축, 우리 기업 투자 지도 제작, 캐나다·멕시코 관세 부과 방침에 대한 선제적 대응 ○ 바이오 분야의 안보 전략의 간사 부처로 활동한 점은 대한민국에 바이오 산업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생각함.		
	개선할 점	○ 한국 첨단산업의 전략적 위상 등을 레버리지로 삼기 위해 1.5트랙 대화 등을 보다 적극 활용할 필요 ○ 추가적 로비회사 고용뿐만 아니라 중장기 대미 협력의 기반 구축을 위해 재미 한인 네트워크를 활용한 미국 양당 핵심(잠재적) 정책결정자와의 친밀한 네트워크 구축 사업 시행 권고 ○ 대중 고(高)의존 광물 문제는, 이차전지를 포함한 대한민국 12대 전략기술 확보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생각함. 동시에, 향후 대미 경제외교의 핵심 사항이 될 것으로 생각함. 외적 요인이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나,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 대한 고민이 보다 필요한 것으로 생각함.		
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수립의 적절성	4.5/5	○ 모두 적절한 것으로 보임. ○ 제시된 계획은 전략 목표 달성과 연계성을 갖추고 있음. ○ 적절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성과목표를 적극적으로 설정 ○ 미국과의 경제안보, 기술동맹 강화, 미중 전략 경쟁 하 경제 입법 현안 조기 대응 등 목표와 연관성이 적절함.	
	1-2. 계획단계 소통·환류	4.5/5	○ 충실히 자체평가 결과를 반영하였음. ○ 자체평가 의견을 정책 개선에 반영하고 있음. ○ 검토의견을 충실하게 반영하였음.	
	2-1. 정책추진 노력	9.25/10	○ 일정을 충실하게 따른 것으로 보임. ○ 추진 계획을 모두 정상 추진하였음.	

		○ 모든 계획된 일정을 충실히 수행하였으나 보다 도전적인 활동 기대 ○ 일정을 포함하여, 대미 로비 강화 등 충실하게 시행하였음.
2-2. 중간단계 환류	4.5/5	○ 자체평가 결과를 잘 반영한 것으로 보임. ○ 중간 자체평가 점검결과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음. ○ 검토의견에 충실히 답변함.
2-3. 변화 대응성	13.75/15	○ 대체로 잘 대응한 것으로 보임. ○ 상황변화에 대한 충분한 모니터링 및 의견수렴을 통해 적절히 대처하고 있음. ○ 트럼프 2기 가능성에 민첩하게 대응 ○ 신 행정부 관심사항이면서 우리가 강점을 가진 조선 및 방산 등 분야로 협력 확대를 모색은 미래 국익에 핵심 사항이 될 것으로 생각함.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은 높이 평가함.
3-1.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목표치의 적극성달성도	26/30	○ 성과지표를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은 것으로 사료됨. ○ 목표치를 달성하기는 하였음. ○ 평균 기준 지표 달성률은 130%에 다소 못미치나, 목표치의 적극성 및 대표성은 매우 높은 수준으로 평가됨. ○ 협력과 규제대응은 성과지표로서 대표성 충분 ○ 보다 적극적인 목표 설정 기대
3-2. 정책 효과성	27.75/30	○ 당초 의도한 효과를 어느정도 발생시킨 것으로 사료됨. ○ 부수적 효과는 약간 미흡함. ○ 의도한 정책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었고 긍정적인 부수효과도 존재한다고 판단되나, 트럼프 행정부 경제정책 변화로 기존 정책의 효과가 지속 발생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함. ○ 예측할 수 없는 미국 대선에의 향방에도 불구하고 크게 선방 ○ 미국은 상수이고 정권교체 또한 상수이기에 보다 장기적/전략적 대미 경제외교 방안(접근방법)이 아쉬움. ○ 예상하지 못한 많은 변화가 발생한 지역이라고 생각함. 이런 상황에서도 적극적이고 선제적 대응을 하였다고 생각함. 이런 대응으로 바탕으로 예상하지 못한 변화를 예상가능한 변화로 대응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함.

평가결과	잘된 점	○ EU 회원국과의 경제대화체를 활성화한 점은 평가할만함. ○ 능동적 경제외교 강화 및 우리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외교체제 정비 등은 유럽 지역 국가와의 경제협력 확대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 ○ 실질적인 경제협력, 협업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중추적이고 활발한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함. ○ 재외공관의 적극적인 우리 기업 지원 활동 (특히, 1:1 상담회) 및 성과 ○ 중기부 산하기관들과 협력하여 재외공관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체 구축을 통한 적극적 활동		
	개선할 점	○ 방산 분야 관련해서는 향후 방산 협력의 상대국이 교전국이 될 가능성에 대비해 우리 기업과 정부에 대한 도덕적인 비난이 가해질 가능성을 낮추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임. ○ 대한민국 수출의 약 10.8%를 차지하는 유럽임. 유럽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다양한 규제를 만들고 시행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방산, 원자력 분야의 활발한 협력과 함께 유럽의 기후변화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활동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함. ○ 기초과학 역량이 뛰어난 유럽 각국 및 Horizon Europe 준회원국 가입을 고려하여 중소기업 및 방산 수출 지원뿐만 아니라 한-EU 과학기술 협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노력 필요		
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수립의 적절성	3.75/5	○ 너무 기존의 업무 관련해서만 고식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보여 아쉬움. ○ 제시된 계획은 전략 목표 달성과 연계성을 갖추고 있음. ○ 한-EU 경제 안보 현안 대응 등 목표와 세부 계획간 높은 연관성을 고려한 계획 수립이 되었음. ○ 매우 적절한 활동 계획을 수립함. ○ 나름 열심히 노력한 것으로 보임.	
	1-2. 계획단계 소통·환류	4.5/5	○ 자체평가 의견을 정책 개선에 적극 반영하고 있음. ○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기후변화 동향 파악 및 우리 기업 입장 반영 對EU 협의 강화 등 관련 계획이 반영되었음. ○ 평가 의견을 모두 충실히 반영함. ○ 특히,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체 통합 운영은 바람직한 조치	
	2-1. 정책추진 노력	9.25/10	○ 일정은 충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보임. ○ 추진 계획을 모두 정상 추진하였음.	

		○ 정책추진을 위한 성실한 추진이 되었음. ○ 대부분 일정을 충실히 수행하였으나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함. ○ 노력하였으나 부족해 보임.
2-2. 중간단계 환류	4/5	○ 중간 자체평가 점검결과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음. ○ 검토 의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음. ○ 유관부처와 협업하여 협의체 공동 운영 ○ 상당히 노력한 것으로 사료됨.
2-3. 변화 대응성	13.5/15	○ 상황변화에 대한 충분한 모니터링 및 의견수렴을 통해 적절히 대처하고 있음. ○ '재외공관-외교부-유관부처 간 방산 수출 협업'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강화한 점은 높은 변화대응성이라고 생각함. ○ 러-우 전쟁을 기회로 급증하는 방산 수요에 긴밀하고 적극 대응
3-1.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목표치의 적극성달성도	25.25/30	○ 목표치를 달성한 것은 평가할만함. ○ 다만, 목표치를 너무 낮게 잡은 것은 아닌가 싶음. ○ 지표 달성률이 101%로 초과달성 수준이라 보기 힘드나, 목표치의 도전성 및 대표성은 매우 높은 수준으로 평가됨. ○ 유럽지역 국가와의 경제 현안 개선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성, 적극성, 달성도가 포함된 성과지표라고 생각함. ○ 적극성은 매우 높다고 판단됨. ○ 성과지표의 대표성은 적절하고 충실히 목표 달성 ○ 경제안보의 지평을 넓혀 유럽국과의 폭넓은 범위의 협력 포트폴리오를 발굴하고 전략적인 접근 필요
3-2. 정책 효과성	26.75/30	○ 당초 의도한 효과는 상당히 발생한 것으로 보임. ○ 부수 효과 및 향후 기대효과 관련해서도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 의도한 정책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었고, 긍정적인 부수·향후 기대효과도 존재한다고 판단됨. ○ CFE의 주도적인 추진으로 기후변화 대응의 주도적 위치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원자력 발전의 유럽 진출의 긍정적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함. ○ 방산, 원자력 산업과 CFE의 협력 전략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함. ○ 수요지향적 외교를 적극적으로 수행 ○ 범부처 협력을 적극적으로 수행

평가결과	잘된 점	○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다변화를 위한 국제협력을 주도한 것이 돋보임. ○ 긴밀한 민관 협력을 통해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 관련 중요 의제 등을 발굴한 점 ○ MSP 의장국 수임을 통해 주도적 의제설정 리더십 발휘 ○ EWS 구축을 통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 강화 ○ '능동적 경제안보외교' 추진을 위한 신설과임에도 불구하고,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다변화를 위한 범부처 협업, 에너지 안보를 파트너십 구축 등 많은 노력을 하였음.		
	개선할 점	○ 경제안보외교센터 관련 對국민 홍보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어보임. ○ 지속적으로 민관 협업을 확대하여 핵심광물 이외에도 전략적으로 중요한 여타 품목에 대한 경제안보 외교활동을 강화할 필요 ○ 경제안보외교 자문위의 상시 자문 기능 강화를 통한 전략성 강화 노력 필요 ○ 경제력과 안보를 동일한 수준으로 보는 것이 현재 국제 상황이라고 생각함. 이런 상황에서 '능동적'이라는 단어의 효과적인 실천 전략에 대한 고민을 통한 구체적 업무 분야의 설정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함.		
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수립의 적절성	4/5	○ 신생과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임. ○ 제시된 계획은 전략 목표 달성과 연계성을 갖추고 있음. ○ 경제안보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 ○ 경제안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정의하여 종합적인 전략을 고민하여야. ○ 에너지·자원 안보 제고가 중심 계획으로 되어 있음. 조직 신설에 따른 북미경제외교과와 동아시아경제외교과의 업무 이관에 따른 것으로 생각함. 그러나 '경제안보'는 국제 정세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으로 생각함. 에너지, 자원을 포함한 외교부의 '경제안보' 업무 정체성을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1-2. 계획단계 소통·환류	3.75/5	○ 나름 자체평가 결과를 상당히 반영했음. ○ 자체평가 의견을 정책 개선에 반영하고 있음. ○ 대체로 충실히 반영함. ○ 중국 리스크에 대한 고민이 필요	

		○ 경제안보 분야는 기술적 지원이 매우 필요한 업무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제과학기술규범과의 협력 등 기술적 전문성 지원을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1. 정책추진 노력	7.75/10	○ 일정은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노력은 했으나 미흡함. ○ 조직개편 등으로 일정 추진율이 70%를 기록(4점)하였으나, 타부서 이관 과제를 제외하면 모두 정상추진임을 감안 가점 2점 부여 ○ 조직 개편으로 인한 업무 이관 외에는 모두 충실히 추진함 ○ 신설과임에도 불구하고 이관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였음.
2-2. 중간단계 환류	4.25/5	○ 여러가지 노력을 경주하는 점은 평가할만함. ○ 조직개편 이후 몇몇 과제 지연 우려에 대한 평가위원 의견 반영 결과를 충분히 제시하지 않음. ○ 조직개편에도 불구하고 일관된 정책집행을 위한 부서간 상시 협의 및 논의 노력이 수행되고 있음. ○ 대체로 충실히 반영함.
2-3. 변화 대응성	13.75/15	○ 본부-재외공관-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하는 점이 돋보임. ○ 상황변화에 대해 민간을 포함 다양한 정책수요자로부터의 의견수렴 내용이 제시되지 않음. ○ EWS 구축은 큰 성과 => 지속적으로 작동하여 양질의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노력 지속 ○ 산업부와 적극적인 업무 협력 노력은 돋보임.
3-1.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목표치의 적극성달성도	22.25/30	○ 목표치를 달성한 것은 평가할만함. ○ 다만, 목표치를 너무 보수적으로 산정한 것 같아 아쉬움. ○ 평균 기준 달성률이 130%를 초과하고 있으나, 목표치의 도전성은 조직개편을 고려하더라도 '중' 수준에 비해 낮다고 판단됨. ○ 적극적인 우리의 입장 개진 노력 우수 ○ 모니터링 건수는 기초적 업무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표성 미흡 ○ 업무 조정의 상황에서도, 성과지표를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적극적으로 달성한 점은 우수함. ○ 우리 입장 개진 비율과 공급망 모니터링 건수 모두 성과 지표로써 대표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모니터링 건수를 외교부 단독 차원에서 모니터링 하는 것보다는 산업부와 협업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실질적 기여도가 반영된 지표로 하는 것이 대표성이 있다고 생각함.
3-2. 정책 효과성	25.5/30	○ 당초 의도한 효과를 상당히 발생시킨 것으로 보임. ○ 부수 효과 및 향후 기대효과도 적절히 발생시킨 것으로 사료됨.

			○ 의도한 정책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었고, 긍정적인 부수·향후 기대효과도 존재한다고 판단됨. ○ EWS 구축 및 MSP 의장국 수임 등 소기의 목표 달성 ○ 중국 리스크, 트럼프 리스크, 지역 분쟁 리스크 등 폭넓은 경제안보 포트폴리오를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접근하여야. ○ 신설과이면서도 핵심광물자원 관련 주요 업무를 수행한 점은 모범 사례임. 해당 업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나아가야 할 '경제 안보' 방향성을 확보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생각함.
--	--	--	---

평가결과	잘된 점	○ 기후변화 대응 선진 규범 수립 논의에 기여한 점은 평가할만함. ○ GCF 이사회 선거 관련 부처간 협업으로 성과를 보인 점, 2030 NDC 국제감축분 확보 기반 마련 등 ○ CFE 이니셔티브에 대한 국제사회 관심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낸 점 ○ 2030 NDC 국제감축분 확보를 위한 양자 기후변화협력 협정을 달성한 점 ○ 선진-개도국 교량 역할을 자임하는 '녹색사다리' 전략 ○ CFE Initiative 의 적극적 추진 및 지원		
	개선할점	○ 트럼프 2.0에 대한 대응책은 미흡해 보임. ○ 미국 트럼프 행정부 2기에 따른 글로벌 기후변화 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미리 대비할 필요 ○ 국제감축분 확보를 위한 협정은 체결하여, 공동위 추진까지 한 점은 대한민국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함.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적극적인 국내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함. 국제감축분에서는 외교부의 역할이 중요하며, 동시에 기술적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동북아 환경협력회의에서 미세먼지 의제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함. ○ 기후변화와 녹색환경 이슈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밀접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시너지 효과 제고 차원에서 통합 방안 모색 권고		
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수립의 적절성	4/5	○ 트럼프 2.0의 가능성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 아쉬움. ○ 제시된 계획은 전략 목표 달성과 연계성을 갖추고 있음. ○ CFE, 해외 감축분 관련 계획이 충실하게 수립되어 있음. ○ 연례평가임을 감안하면 여전히 현실적인 목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1-2. 계획단계 소통·환류	4/5	○ 나름 노력한 것으로 보임. ○ 자체평가 의견을 정책 개선에 반영하고 있음. ○ 평가 검토 결과를 충실하게 반영한 것으로 생각함. ○ 기후변화대응은 외교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 전부처의 협력과 협업이 필요한 분야임. 지금도 협업을 충실하게	

		있으나, 외교부 차원에서의 부처 협의체에 대한 고민을 제안드립니다. - 이런 점에서 환경부와외 협력 지표에 가중치 2를 부여한 점은 바람직함.
2-1. 정책추진 노력	10/10	○ 검토의견을 충실히 반영함 ○ 정상적으로 추진했다고 판단함. ○ 추진 계획을 모두 정상 추진하였음. ○ 성실하게 추진되었음. ○ 모든 계획된 활동을 차질없이 수행하고 공격적으로 신규 활동을 추진함.
2-2. 중간단계 환류	4/5	○ 상당히 노력한 것으로 보여짐. ○ 중간 자체평가 점검결과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음. ○ 기후에너지협력센터의 역할의 활성화에 대한 고민을 하면 좋겠음. ○ 검토의견을 충실히 반영함.
2-3. 변화 대응성	13.25/15	○ 의견수렴 등은 충실했던 것으로 보임. ○ 상황변화에 대한 충분한 모니터링 및 의견수렴을 통해 적절히 대처하고 있음. ○ 기후변화대응은 대국민 소통도 매우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함. 기후에너지변화센터의 '기후에너지포커스'로는 대국민 소통이 다소 부족할 것으로 생각함. 외교부는 대한민국의 국제 업무 출발점이라고 생각함. 기후변화대응에서 G10 경제력 대한민국의 국제 기여도, 대한민국 국익을 위하여 '한 일'·'하고 있는 일'·'할 일'을 홍보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특별한 상황 변화는 감지하지 못함 (화상회의는 뉴노멀)
3-1.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목표치의 적극성달성도	24.63/30	○ 성과지표 목표치는 달성한 것으로 보임. ○ 다만 질적인 면에서 평가할만한지는 의문임. ○ 평균 기준 달성률이 110%대를 기록하고 있으며, 목표치는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최근 3년 추세 수준으로 설정한 것으로 판단 ○ 성과지표 '우리 입장 개진 비율'은 대표성, 적극성, 달성도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생각함. ○ '범부처 기후환경 정책 정합도 제고율'도 범국가 대응이 필요한 기후변화 정책에서 필요한 성과지표라고 생각함. ○ 다수의 협정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둠. ○ 부처 간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함.
3-2. 정책 효과성	27.75/30	○ 의도한 효과는 어느 정도 달성한 것으로 보임. ○ 부수적 효과 중 원자력 수출 우회 지원, 향후 기대 효과는

			평가할만하다고 사료됨. ○ 의도한 정책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고 있으며, CFE 이니셔티브 국제 확산, 민간 참여 제고 활동 등 부수적 효과도 매우 긍정적이라 평가됨. ○ 29차 COP 회의에서 대한민국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 CFE에 대한 국제호응도 향상은 매우 의미 깊은 일이라고 생각함. 이를 통해, 대한민국이 보유하고 있는 원자력을 포함한 신재생 발전 기술의 세계 진출의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함. ○ 녹색사다리는 적절한 우리의 기후변화 전략으로 여겨짐. ○ CFE 추진은 우리 원자력 수출의 기반이 될 것임.
--	--	--	--

평가결과	잘된 점	○ GGGI를 통한 우리 정부의 '녹색 사다리' 비전을 추진한 것은 돋보였음. ○ INC-5 성공적 개최를 통해 한국의 국제규범 수립 기여도 증진 ○ 이상협 GGGI 사무총장 선출 ○ INC-5 의 성공적 개최 ○ 유엔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 회의를 개최하고 적극적인 조율·중재 역할을 수행 한 점 ○ GGGI 사무총장에 한국인을 선출함으로써, GGGI와 적극적으로 긴밀한 협력 기반을 마련한 점 ○ 물·환경산업 해외 진출의 적극적 지원을 한 점		
	개선할 점	○ 외부요인도 있었겠지만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플라스틱 협약이 체결되지 못한 것은 아쉬움. ○ 글로벌 차원에서 생물다양성 (Biodiversity) 에 대한 이슈도 급부상 => biodiversity 에 대한 외교적 관심도 준비할 필요 ○ 녹색환경외교과의 북극관련업무를 기후변화외교과로, 기후변화외교과의 미세먼지 업무를 녹색환경외교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두 과의 협의가 필요함. - 북극은 기후변화에 가장 민감한 지역이므로 기후변화와 미세먼지보다는 기후변화와 북극의 연관성이 높다고 생각함.		
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수립의 적절성	4.5/5	○ 전반적으로 적절했던 것으로 사료됨. ○ 제시된 계획은 전략 목표 달성과 연계성을 갖추고 있음. ○ 후쿠시마 방류에 대한 후속 조치 지속 우수 ○ 유관부처와의 협업 노력 우수 ○ 전략 성과 목표와 관리 과제 간 연계성을 갖추고 있음.	
	1-2. 계획단계 소통·환류	4.5/5	○ 충실히 소통한 것으로 보여짐. ○ 자체평가 의견을 정책 개선에 적극 반영하고 있음. ○ 이해당사자들과의 소통 노력 우수 ○ 유엔플라스틱 협상 관련하여, 환경부의 주 정책 방향인 '순환 경제 구축' 관련된 내용의 전략적 반영에 대한 계획이	

		보완되었으면 하는 아쉬움.
2-1. 정책추진 노력	9.5/10	○ 일정대로 모두 완수하였음을 확인함. ○ 추진 계획을 모두 정상 추진하였음. ○ 모든 일정을 정상적으로 추진함 ○ 신규추진 6건을 포함하여 세부 계획을 충실하게 시행하였음.
2-2. 중간단계 환류	4.25/5	○ 자체평가 결과를 잘 반영하였음. ○ 중간 자체평가 점검결과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음. ○ GGGI 효과성 용역을 발주하는 등 상당한 노력 ○ 환경부와의 적극적인 의견 조율을 통한 입장 정립을 바람직함.
2-3. 변화 대응성	13.25/15	○ 플라스틱 협약 협상에 노력했으나 결국 체결되지 못한 점을 반영하여 평가했음. ○ 상황변화에 대한 충분한 모니터링 및 의견수렴을 통해 적절히 대처하고 있음. ○ 녹색환경에 대한 차세대와의 소통 노력 우수 ○ 유엔플라스틱 협상 협상과 관련하여, 총회 개최국으로 지속적인 협력과 토론을 통하여 세계 선도적 위상 및 국내 정책 반영도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반영하였음.
3-1.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목표치의 적극성달성도	26/30	○ 목표치 달성도 측정 산식을 합리적으로 설정한 것으로 사료됨. ○ 성과지표도 충분히 대표성이 있다고 보여짐. ○ 평균 기준 달성률이 130%를 초과하고 있으나, 최근 2년 증가율에 비해 낮은 목표치를 설정하고 있어 적극성은 '하' 수준이라고 판단 ○ 다양한 다자/소다자/양자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 ○ 보다 전략적인 녹색환경 외교 포트폴리오를 고민하여야.
3-2. 정책 효과성	28.38/30	○ 당초 의도한 효과가 잘 발생한 것으로 보여짐. ○ 플라스틱 협약 체결에 실패함으로써 해당 목표를 재설정하게 된 것이 아쉬움. ○ 의도한 정책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고 있으며, INC-5 성공 개최에 따른 부수적 효과도 매우 긍정적이라 평가됨. ○ '녹색사다리'를 우리의 지향점으로 설정한 것은 높이 평가 ○ CFE initiative 의 적극적 추진은 높이 평가하나 그 실효성에

			있어서는 아직 미흡한 것으로 사료됨. ○ 석유화학산업은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주역이었음. 최근, 탄소 관련하여 석유화학산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런 대한민국의 현 상황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여, 대한민국 석유화학산업의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협상 전략·조율이 그 어느때보다 필요한 시기임. 유엔 플라스틱 협약 개최국 위치의 효과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전략 수립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함. ○ 대한민국 석유화학산업이 기후변화시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국가적 전략 마련의 틀이라고 생각함. 관련 업계와의 적극적이고 밀접한 소통과 협력의 계기로 활용되어야 함.
--	--	--	---

평가결과	잘된 점	○ AI 서울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국제 AI 규범 형성을 선도한 점은 높이 평가할만함. ○ AI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등을 통해 국제 AI 규범 형성에 기여한 점 ○ AI 서울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서울 선언'을 도출하여, 국제 AI 규범 형성에서의 선도적 위치를 확보한 점 ○ AI Seoul Summit 의 성공적 개최 ○ 과기외교자문위 운영을 국제과학기술규범과로 통합		
	개선할 점	○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위해 노력한 점은 높이 평가할만하나, 보다 더 노력하면 좋겠음. ○ AI, 우주 등 과학기술, 산업 분야 부처와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함. 부처와의 업무 협력 양해 각서를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업무 협약 후, 실질적인 협력 부서의 업무 분장에 대한 고민이 많이 필요함. ○ 과기외교자문위의 실효성 있는 운영에 더 많은 노력(예: 상시 자문 체계 수립 등) 필요 ○ OECD/CSTP 내에 Space Forum 이 글로벌 우주협력의 think-tank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관심과 모니터링 필요		
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수립의 적절성	4.25/5	○ 충실하게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보임. ○ 제시된 계획은 전략 목표 달성과 연계성을 갖추고 있음. ○ 연계성·체계성을 제시하고 있음. ○ 중점 추진 내용을 잘 선별하여 계획함. ○ 기술주권의 관점에서 좀더 체계적인 개념적 프레임워크를 고민하여 전략적 포트폴리오 (중점 추진 활동)를 제시할 수 있으면 좋을 것임.	
	1-2. 계획단계 소통·환류	4.25/5	○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임. ○ 자체평가 의견을 정책 개선에 반영하고 있음. ○ 점검 결과에 충실하게 대응을 함. ○ 범부처 협력에 적극적 자세를 견지	
	2-1. 정책추진 노력	9/10	○ 외부 사정으로 정상 추진되지 못한 것이기는 하나 대안 마련 노력을 하지 못한 점이 아쉬움.	

		○ 추진 계획을 모두 정상 추진하였음. ○ 미국 대선 결과로 영향을 받은 회의 이외 계획에 맞춰 추진되었음. ○ 계획된 활동을 충실히 이행함. ○ 일부 개최국 사정으로 연기된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철저한 준비 필요
	2-2. 중간단계 환류	4.5/5 ○ 관계부처와의 협력 노력이 인상적이었음. ○ 중간 자체평가 점검결과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음. ○ 점검 결과에 대하여 상세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AI 디지털 정책협의회를 통한 부처 간 협업 노력 우수
	2-3. 변화 대응성	14.25/15 ○ 나름 열심히 노력한 것으로 보임. ○ 상황변화에 대한 충분한 모니터링 및 의견수렴을 통해 적절히 대처하고 있음. ○ 대한민국의 미래, 12대 전략기술과 연관성이 높은 부서임. 이와 관련하여 인공지능, 퀀텀 등에서 대한민국의 기술 확보 전략에 활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대응이 시행되고 있음. ○ 급변하는 AI 기술 지형에 유관부처와 함께 민첩히 대처하여 AI Seoul Summit을 성공적으로 개최 ○ 트럼프 2기에 대한 Plan B 수립 노력 우수
	3-1.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목표치의 적극성달성도	27/30 ○ 목표치를 상당히 상회하여 달성한 것이 인상적임. ○ 세부 지표별 실적을 잘 정리하였음. ○ 지표 달성률이 130%에 근접하고 있어 가점 1점을 부여하였으며, 목표치의 적극성도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판단됨. ○ AI Seoul Summit 등 파급효과 있는 외교활동을 유관부처와 협업하여 성공적으로 개최 ○ 기술주권의 관점에서 보다 체계적인 활동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이들 중 중점 추진 과제를 선별하는 노력 필요
	3-2. 정책 효과성	25.25/30 ○ AI 서울 정상회의의 관련해서 외신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이 눈길을 끌었음. ○ 부수적 효과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아쉬웠음. ○ 의도한 정책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었고, 긍정적인 향후 기대 효과도 존재한다고 판단되나, 부수효과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보통' 수준으로 평가함.

			○ 해당 부서는 12대 국가전략기술과 관련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함. 12대 전략기술 확보는 국가 미래에 매우 중요함. 따라서, 12대 전략 기술별로 업무를 세분화하여 추진하는 것이 업무를 보다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함. - 내년 평가보고서는 12대 전략 기술별로 실적을 구분하여 보고서를 준비하는 것을 제안드림. ○ AI 분야 글로벌 리더십 확보에 큰 전기 마련 ○ AI Seoul Summit이 우리나라 AI 역량 함양에 어떤 파급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하는 노력 필요 ○ 또한 기타 신기술의 글로벌 거버넌스 변화에 대한 추적/대비/선도를 위한 전략 마련 필요
--	--	--	---

[붙임] 2024 전략목표
성과분석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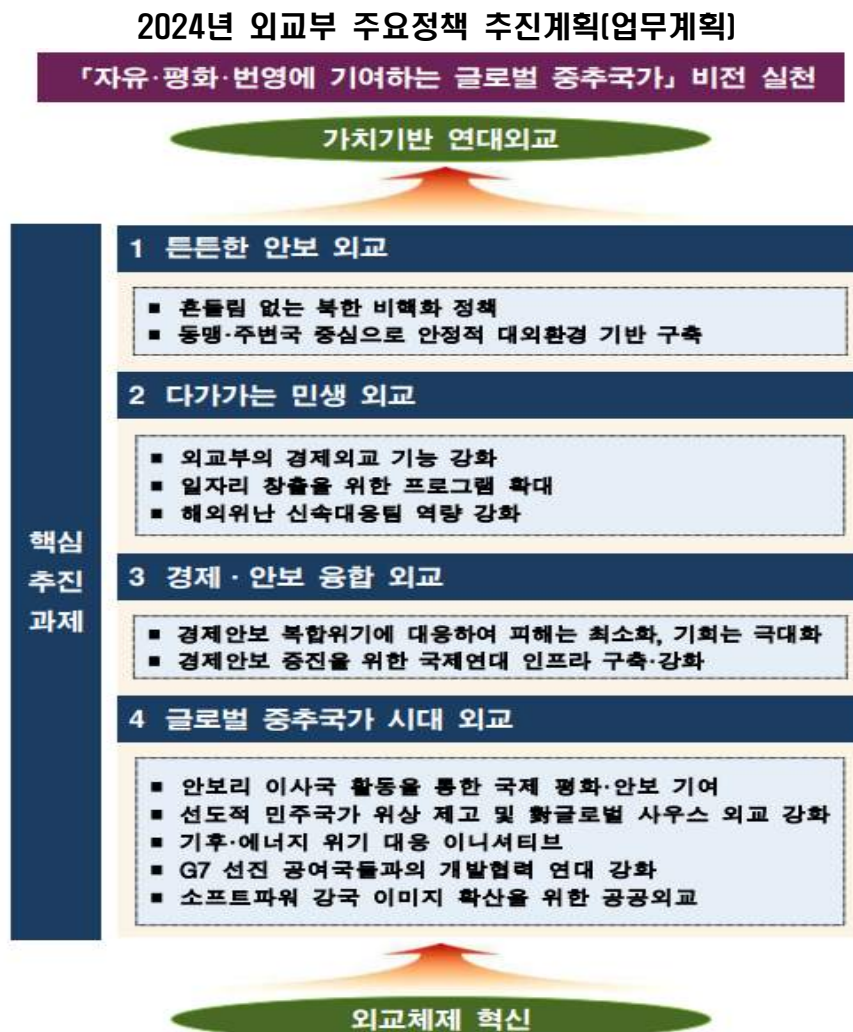
1. 기관 사무 및 핵심 기능

□ 기관사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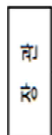
- 외교, 경제외교 및 국제경제협력외교, 국제관계 업무에 관한 조정, 조약 기타 국제협정, 재외국민의 보호·지원, 국제정세의 조사·분석에 관한 사무 관장(정부조직법 제30조)

□ 핵심기능 (2024년 외교부 주요정책 추진계획)

- 외교부는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2024.3.7.)을 통해 외교체제 혁신에 기반, 12가지 핵심 추진 과제를 이행함으로써 가치기반 연대 외교를 달성하고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실천에 경주



9



2. 전략적 목표체계

임무	북한 비핵화의 진전과 역내 및 국제사회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한편,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보편적 규범·가치에 입각해 국제협력을 추진하고,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로 국익을 증진하며, 국민을 보호한다.
비전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전략목표	I. 북한 비핵화의 진전 및 동북아의 평화·안정·번영에 기여한다.	II. 함께 번영하는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III.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 등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고 개발협력을 증진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역할을 강화한다.	IV. 글로벌 중추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고, 외교역량을 강화하며, 재외국민 보호 및 동포 지원 강화를 추진한다.	V.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를 추진한다.
성과목표	북한 비핵화 및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 준비를 위한 외교적 노력 강화	동남아 국가와의 한·아세안 상생협력 강화	국제 평화안보, 인권, 민주주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기여 확대	국가 브랜드 제고를 위한 공공외교 확대	지속적 경제성장 환경조성을 위한 경제안보외교 강화
	한·미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의 심화·발전	다양한 네트워크 활용을 통한 對중남미 실질협력 강화	사이버·테러 등 안보 위협 대응, 군축비확산 및 수출통제·제재 외교 강화	외교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연수 및 외교안보정책 연구	양자 경제협력 강화 및 경제현안의 안정적 관리
	평화와 번영을 위한 동아시아·인도태평 양 협력 도모	유럽 및 유라시아 지역과의 포괄적 협력 강화	외교정책의 합법성·민주적 정당성 제고 및 국제규범 형성에의 적극적 참여	재외국민 안전·편의 제고 및 영사정책 적극적 추진	에너지·기후변화· 녹색성장 등 글로벌 경제 이슈 선도
	동북·중앙아 국가와의 전략적 협력 강화	외교다변화 차원에서 아중동 국가와의 포괄적 협력 강화	선진국형 국제개발협력 추진		

3. 전략목표별 성과보고

(전략목표 I) 북한 비핵화의 진전 및 동북아의 평화·안정·번영에 기여한다.

성과지표

한반도 및 아태·동북아 지역 평화 증진 기여도

□ 성과지표 개요

〈 지표명 〉

- 개념 : 한반도 정세 유동성과 주변국들의 전략적 대응에 따른 불예측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서도, 한반도 및 아태·동북아 지역 평화 증진을 위한 노력 정도를 측정
- 측정산식 : △비핵화 진전의 토대 및 통일 한반도 비전 실현 환경조성 △한미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의 심화·발전 성과 △평화와 번영을 위한 동아시아·인도태평양 협력 도모를 위한 협의 및 해결 △동북·중양아 국가와의 전략적 협력 강화 등 4개의 성과지표로 세분화하여 평가

□ '24년 측정결과

- ‘비핵화 진전의 토대 및 통일 한반도 비전 실현 환경조성 지수’의 2024년 실적은 1,439로 목표(1,120) 대비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 북한 비핵화 환경 조성을 위해 주요국과의 소통을 강화하였습니다. 북한 도발 시마다 미·일과 북핵대표 협의(24회)를 개최하여 긴밀히 공조하였습니다. 북핵·북한 문제 관련 중국의 건설적 역할 견인을 위한 소통(외교장관회담 3회, 북핵대표 대면협의 2회 등)을 확대하였습니다. 러북 불법 군사 협력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 규탄 여론을 견인하는 한편, 러측에도 우리측의 단호한 입장을 분명히 제기하였습니다. 대북 독자제재 대상 자체 발굴 및 우방국 정보공유로 제재 공조를 강화하였고, 독자 제재를 9차례 발표하였습니다. 한편, 주요국과 양·다자 협의 시마다 북핵·북한문제를 제기하여, 국제사회에서 ‘북한 비핵화·북핵 불용’ 메시지 공개 발신을 주도하는 등 우리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 기반을 확대하였습니다.

- 북한인권외교를 강화하여 핵심 우방국들과 북한인권 관련 공동 성명을 채택하고, 한·미(4.15), 한·캐(5.31), 한·미·캐(10.8) 등 북한인권 전담 협의체를 확대하여 유례없이 강력한 북한인권 공조 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동시에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10주년 기념 北인권 국제포럼」(5.30) ▲「한미 북한인권 대사와 세대간 대화」(2.15) 개최 등 전방위적 소통 노력을 통해 북한인권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민·관 협력의 지평을 대폭 확대 하였습니다.
-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국제사회의 공감대와 지지를 확대했습니다. 탄도미사일 발사, 오물·쓰레기 풍선 등 북한의 각종 긴장 조성 행위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주도하였으며, 북한의 도발 중단과 대화 복귀를 촉구하는 등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 해외 탈북민 보호 강화를 위해 관련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였으며,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전년 대비 20% 많은 탈북민을 국내로 이송 하였습니다.
- 한미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의 심화·발전에 관한 지수의 실적은 당초 목표치를 모두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 첫째, 약 27회의 한미·한미일 간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통해 한미동맹의 포괄적 협력을 견인하고 한미일 협력의 외연을 확대했습니다. → 지난해 실적은 총 18점(만점)으로 목표치인 18점을 달성하였고, 장관급 고 위급 협의 목표는 모두 초과달성 하였습니다.
- 둘째, 북미지역 여론주도층 내 우리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 하고 친한 네트워크를 강화하였습니다. → 지난해 실적은 총 14점으로, 전년대비 측정 기준을 강화하고 목표치를 상향했음에도 불구하고 목표치인 13점을 초과 달성했습니다.

- 셋째, 적극적인 한미 안보협력 추진을 통해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협력을 강화하고, 한미 안보협력 심화·외연 확대 노력을 지속함으로써 우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보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 지난해 실적은 18점(만점)으로, 목표치인 16점을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 넷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의 원활한 운영 및 안정적 현안 관리를 통해 한미동맹의 발전을 도모하였습니다. → 지난해 실적은 392.5점으로, 목표치인 350점을 초과 달성했습니다.
- 평화와 번영을 위한 동아시아·인도태평양 협력 도모를 위한 협의 및 해결의 2024년 실적은 93건으로 목표(75건) 대비 초과 달성(약 124%)하였습니다.
- 한일관계의 경우 정상 및 외교장관 등 각급에서 총 22회에 걸친 활발한 교류를 통해 한일관계의 긍정적 모멘텀을 유지·발전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 특히 이시바 내각 출범(10.1) 직후에도 정상회담(10.10)을 통해 그간 한일관계의 긍정적 흐름을 지속해 나가자는 공감대를 빠른 시점에 재확인하였습니다.
 - ※ **(정상)** ▲한일중 정상회의 계기 기시다 총리 방한(5.26.) ▲NATO 정상회의 계기(7.10.) ▲기시다 총리 방한(9.6.)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계기(10.10.) ▲APEC 정상회의 계기(11.16.)
 - ※ **(외교장관)** ▲G20 외교장관회의 계기(2.21.)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계기(7.26.) ▲APEC 각료회의 계기(11.14.)
-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고위급 교류 및 양자 협의를 적극 실시하였으며, 특히 ‘글로벌 사우스’ 대표국인 인도 및 가치 공유국인 호주, 뉴질랜드와의 전략적 소통 강화를 강화하였습니다.
- 또한 서남아·태평양으로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을 위해 민생외교를 추진하여, 기업 지원 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 한-태도국 관계 정상급 격상 모멘텀 유지를 위해 「2023 한-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 후속조치를 충실히 이행하는 한편, 태도국과 긴밀한 고위급 교류도 이어나갔습니다.
-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약 4년 반만의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5.27.)를 통해 3국 협력을 성공적으로 복원·정상화 하였습니다.
- 성과목표 I-4 ‘동북·중앙아 국가와의 전략적 협력 강화’의 2024년도 실적은 157건으로 목표치인 111건을 약 40% 초과 달성 하였습니다.
- 한중 고위급 교류, 1.5트랙, 실질협력 대화체 등 활발한 한중간 교류를 전개한 결과, ‘중국 정부와의 교류·협력 강화를 통한 주요 현안 협의 및 진전’ 건수는 총 16건으로 목표치인 10건 대비 약 60%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 지방정부 고위급 교류 재개, 각종 한중 정부·민간 간 교류협력 등 양국 간 소통을 활성화 한 결과 ‘한중간 인적·인문교류, 우호정서 및 민감 현안 관리’ 건수는 총 23건으로 목표치인 16건 대비 약 30% 초과 달성 하였습니다.
- 중앙아시아·몽골과도 정상의 중앙아 3개국 순방 등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통해 중앙아시아·몽골과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기업 수주지원, 공급망 협력 강화 등 세일즈외교를 적극 전개한 결과 실적은 118건으로 목표치를(85건) 약 38%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 성과분석

- 억제, 단념, 대화·외교의 총체적 접근을 일관되게 견지하며 북한의 비핵화 대화 복귀를 위한 전략적 환경 조성 노력을 전방위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 한미 ‘핵억제 핵작전 지침’ 서명, 핵협의그룹(NCG), 국방·외교당국 간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등을 통해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한미일 안보협력을 확대하였습니다. 북한 도발 시 한미일 각급에서 신속히 협의하고 단호히 대응하는 등 공조를 강화하였습니다.
- 중국과의 고위급 소통을 강화하여 중국의 건설적 역할 견인 노력을 지속하였습니다. 또한 서방과 러시아 간 소통 단절되어 있는 데 반해, 우리는 러시아와 고위급 접촉을 이어가면서,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러북 군사 협력에 대한 엄중한 우려와 경고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하였습니다. 러북 불법 협력에 대응한 국제사회의 단합되고 단호한 대응(각급 공동성명 발표 20회 이상)을 견인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정부가 북한군 대러 파병 정보를 공개(10.18)한 이후에는 국제사회의 신속한 규탄 여론 조성 등 관련 국제공조를 주도하였습니다.
- 북한 핵·미사일 개발 주요 불법 자금원을 차단을 위한 국제공조 확대를 주도하였습니다.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 대응을 위한 한미·한미일 실무그룹 회의를 각 2차례 개최하고,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세탁을 주제로 한미 민관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습니다. 아울러, 북한 노동자 추방 및 신규 접수 금지를 위한 외교적 교섭을 적극 전개하고 국제사회의 철저한 안보리 결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습니다. 북한의 불법 해상활동 정보공유 및 정책 공조를 위해 한미 범정부 협의체 ‘강화된 차단’ T/F를 출범시킨 데 이어, 한미일 공동으로 역량 강화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해운업계의 자발적 조치를 독려하였습니다.
- 우리 자체적으로 독자제재 대상을 발굴하고, 관련 정보를 미국 등 우방국에 공유하여 국제사회의 동사후속 제재를 유도하는 등 제재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주도하였습니다. 북한의 불법 사이버, 해상활동 및

러북 불법 군사협력 대응을 포함, 올해 독자제재를 총 9회 지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ICBM 발사(10.31)에 대응하여 「고체 추진 미사일 분야 북한 맞춤형 감시대상품목」(15개)을 세계 최초로 발표하여 국제 사회의 주의를 환기하고 유사 조치를 전인하였습니다.

-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유사입장국과의 연대 및 협력 강화를 바탕으로, 국제무대에서 북한인권 문제 공론화를 주도했습니다.
 - 유사입장국과 북한인권 논의의 질적 심화를 위해, ▲북한인권을 단일 주제로 한 한미일 3자 고위급 협의 및 공동성명을 최초(10.18) 추진하였으며, ▲제2차 한미 북한인권 협의(4.15)에 이어 한-캐나다 협의 출범(5.31) 및 한미캐 3자 협의를(10.8) 최초로 개최하였습니다.
 - 또한, 북한인권 문제 인식 제고 및 민·관 소통 확대를 위해 제작한 SNS 콘텐츠(인스타, 유튜브)가, 이례적으로 높은 조회수(1087만 이상)를 기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북한인권 외교의 지평을 확대하고 시너지를 창출하였습니다.
- 우리 통일 비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폭넓은 지지를 확보해 나갔습니다. 북한의 각종 위협 및 도발 행위에는 신속하고 단호히 대응하였고,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한 외교적 여건 조성을 위해서도 계속 노력하였습니다.
 - 미, 일 등 유사입장국과 아세안,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글로벌 사우스 국가 정상의 통일 지지를 확보하고, 국제사회의 여론주도층을 대상으로 한반도 통일 비전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했습니다.
 - 탄도미사일 발사, 쓰레기 풍선 살포, GPS 교란 등 북한의 복합 도발에 대해 주요국과 국제기구의 규탄을 전인하였습니다.
- 2024년 총 236명(전년 대비 20% 증가)의 해외 탈북민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국내로 이송하였으며, 제도 개선 등을 통해 해외 탈북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 해외 보호 탈북민의 수요를 적극 반영한 맞춤형 의료 지원과 심리·진로

상담을 대폭 확대하여 해외 탈북민의 체류 여건을 개선하였습니다.

- 중국에 탈북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강제 복송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각급에서 계속 엄중히 제기했습니다. 특히, 우리 정부 최초로 중국·북한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UPR)에서 탈북민 문제를 제기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강제송환금지원칙 준수를 촉구했습니다.
- 국회에 법 개정 필요성을 수년간 적극 제기해온 결과, 2024년 「북한 이탈주민법」에 외교부의 해외 탈북민 국내 입국에 관한 활동 근거 조항을 신설하여, 법적 안정성을 강화했습니다.

○ 빈번하고 긴밀한 한미간 고위급 교류를 통해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을 강화하고, 포괄적 분야의 협력을 심화했습니다.

- ▲ 정상(2회) ▲ 외교장관(5회) ▲ 외교차관(4회) 등 고위급 교류를 통해 양국 간 신뢰와 유대를 심화하고 한미동맹 및 주요 글로벌 이슈에 대한 긴밀한 양국 공조를 이뤄냈습니다.
- 또한, 군사·안보를 넘어 ▲경제안보 ▲첨단기술(반도체, 공급망, 우주, 쿼텀, 인공지능) ▲문화인적교류 ▲글로벌 공조 분야로 양국 협력의 범위를 전방위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 「워싱턴 선언」 제도화 노력을 통해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협력을 강화하고, 동맹 협력의 외연을 우주·사이버 영역으로 확대했습니다.

- 한미 핵협의그룹(NCG) 출범 1년 만에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마련('24.7월)하고, ▲제5차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개최('24.9월) ▲제1차 NCG 모의연습(TTS, '24.9월) 참여 등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방안을 속도감있게 구체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 또한, 3년 반만에 제6차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 개최('24.10월) 및 정례화 합의를 통해 고위급 전략 소통을 제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 특히 제6차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 공동성명에서 한미상호방위 조약의 우주·사이버 영역 적용을 선언함으로써 진화하는 안보 위협에 맞서 한미동맹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켰습니다.

- 구체적인 협력사업 관리를 통해 한미일 협력 제도화를 심화하고 협력의 외연을 확대했습니다.
 - '23년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간 약속한 고위급 협의 연례 개최 공약을 모두 이행하여, 장기적으로 3국 협력을 견인할 고위급 교류를 제도화했습니다.
 - ▲정상(1회) ▲외교장관(2회) ▲외교차관(2회), ▲재무·산업장관(신설) ▲국가안보실장(1회) 간 회의 등 각계 각급에서 고위급 교류를 진행했습니다.
 - 북핵·미사일 위협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안보 협력의 체계적·안정적 추진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 ▲3국간 외교·국방당국 고위급 정책 협의 활성화 ▲한미일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 지속 가동 ▲3자 훈련 정례 시행 및 3국간 최초의 다영역 훈련인 프리덤 엠티 최초 실시('24.6월)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TSCF) 협력각서 서명('24.7월) 등 3국 안보협력의 제도적 동력을 마련하였습니다.
 - 한미일 협력의 외연을 ▲경제안보/첨단기술 ▲지역·글로벌 현안 ▲인적교류 등으로 확대하여 한미일 3국 차원의 ▲경제안보대화('24.3월, 11월) ▲청년 글로벌 리더십 서밋('24.7월) 개최 등 각급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한미일 사무국('24.11월 출범)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협력 사업을 점진·조율하면서 3국 협력의 지속 발전을 도모할 것입니다.
- 미 대선을 대비하여 빈틈없는 대응 체계를 운영하고, 차기 미 행정부와의 긴밀한 협력 기반을 조기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 그 결과, 트럼프 후보의 당선 확정 즉시 우리 정상-당선인간 전화 통화가 성사되었으며, 양국은 조선업 등 신규 협력분야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또, 우리 정책에 대한 미 조야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우리의 대미 정책 추진에 우호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미 여론 주도층과 활발하게 소통하였습니다.
 - (연방 의회) 미 상하원 주요 의원단 방한시마다 정상·장관 등 고위급에서 적극 접촉하고,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에 대한 초당적 지지를 확인했습니다.
 - (주정부) 조지아, 텍사스, 미시간, 노스다코타, 아칸소 등 핵심지역의 주지사 방한시마다 미국 내 대규모 투자를 통해 미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국의 핵심적 역할을 지속 홍보하고, 양국간 협력을 심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학계) 미국의 주요 싱크탱크와 폭넓게 소통하며, 우리 정책에 대한 미측의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 한반도 역내 평화·안정을 위한 AUKUS, 유엔사회원국* 등 유사입장국과의 협력도 지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 * 독일 유엔사 신규 회원국 가입(24.8월), 유엔총회 계기 외교장관 주최 유엔사회원국 대사 초청 오찬(24.9월) 등
-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의 선제적 타결 및 비준을 통해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마련하고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며 ▲우리 주한미군 근로자 권익 보호에 기여하였습니다.
 - 지자체의 다양한 지역 개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전국 잔여 미군기지 반환을 위한 범정부 협의 및 대미 협의를 지속하였습니다.
 - 5차례의 정상회담 및 3차례의 외교장관회담 등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통해 엄중한 국제정세 하에서도 지역·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해 한일·한미일 공조 강화 및 미래지향적 양국관계 발전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하였습니다.
 - 15년 만의 국방장관 방일, 국장급 2+2 외교안보대화 5년 만의 재개 등 국방당국간 신뢰구축 및 양국 협력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 한일수소협력대화 출범(6.14.), 한일 교육분야 협력각서(6.15.), 재외 국민보호협력각서 체결(9.6.) 등 실질적인 협력분야에서도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한일관계 개선 및 긍정적 흐름 속에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 입수 및 관동대지진 희생자 추념식 등 과거사 현안의 진전도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 또한 지정학적·전략적 중요성을 지닌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의 네트워크 강화 및 고위급 교류 지속을 통해 우리 외교지평을 확대하고 실질 협력을 심화하였습니다.

-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 주요 국가들과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경제안보·국방 등 주요 분야에서의 협력을 심화하였습니다.

* 제10차 한-인도 외교장관 공동위(3.6.), 한-호 정상회담(10.11) 및 제6차 한-호주 외교국방 (2+2) 장관회의 한-뉴질랜드 정상회담(9.4) 등

- 올해까지 3년 연속 인태파트너 국가(IP4, 한·일·호·뉴)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역내 가치공유국들 간의 국제사회의 주요 현안에 대처하기 위한 연대와 공조를 강화하였습니다.
- 제53차 태평양도서국포럼(PIF) 정상회의 계기 대화상대국회의(8.28.)에 본부 고위급 인사(차관보)가 참석하고, 태도국 정상(통가, 사모아 총리)과의 면담 등 적극적인 고위급 교류를 통해 우리의 협력 강화 의지를 시현하였습니다.
- 아울러, 유사입장국간 대태도국 협의체인 푸른태평양동반자(PBP) 차원의 협력사업*에도 적극 참여하여 유사입장국과의 대태도국 정책 공조를 지속·심화하였습니다.

* 태평양 사이버 보안 역량 및 공조 컨퍼런스(P4C) 등

○ 4년 반만의 한일중 정상회의(5.27.) 개최를 통해 한일중 3국 협력 재개를 성공적으로 견인하였으며, 동 계기 일·중측과 6대 분야*를 아우르는 국민체감형 실질 협력사업 이행에 합의하는 등 3국 정부 간 협력도 재활성화하였습니다.

* ①인적교류 ②기후변화 대응 등을 통한 지속가능발전 ③경제통상 ④보건고령화 ⑤과학기술협력 디지털전환 ⑥재난안전

- 3국 협력 모멘텀의 지속을 위해 한일중 고위급회의(SOM)(10.28.)를 포함해 외교당국 간 긴밀한 협의를 이어나갔습니다.
- 한일중 3국 협력의 상징인 3국 협력 사무국(TCS)의 활동을 지원하여 3국 간 협력 증진 기반을 강화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 한일중 3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역내 주요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2023 동아시아협력포럼」(10.31.)을 개최하여 저출생·고령화, 기후 변화 등 동아시아 공동 위기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대통령-리창 총리 회담(5.26.)으로 한중관계 개선의 물꼬를 트고, APEC 정상회의 계기 시진핑 주석과 2년 만에 정상회담(11.15.)을 개최하기까지 한중간 각급 소통·교류를 확대하여 국제규범과 규칙에 입각하여 상호존중·호혜·공동이익에 기반한 건강하고 성숙한 한중 관계를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 장관의 5월 방중을 시작으로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세 차례(5.13./7.26./9.28.)에 걸쳐 회담을 개최하고, 한중 외교안보대화(6.18.) 및 한중 외교차관 전략대화(7.14.) 등 양국 간 차관급 회담을 두 차례 개최하는 등 외교·안보 분야에서의 전략적 소통을 활성화하였습니다.
-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지방정부 고위급 교류를 재가동하여 중앙 차원의 고위급 교류 흐름과 연계하였고, 지방정부 외사 담당 국장급·처장급 인사 초청사업 재개를 통해 현지 교민·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 (24년) 라오닝성 당서기 방한(4.22.-25.) → 한중 외교장관 회담(5.13.) 및 대통령-리창 총리 회담(5.26.) → 장쑤성 당서기 방한(6.19.-20.) → 다자 계기 한중 외교장관 회담(7.26.) 등, 2019년 이후 중단되었던 중앙지방정부 간 고위급 교류의 유기적 연계

- 그 외에도, ▲차관보 방중 계기 고위급 회담 및 학계 인사와의 면담
▲기재부·산업부 등 타부처의 중국과의 고위급 교류·협력 적극 지원
▲한중 의원외교 적극 가동 등 한중 고위급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하였습니다.

○ 역사·문화왜곡, 사적지 문제, 불법조업 등 우리 주권·정체성과 연관된 현안들을 원칙과 국익에 입각하여 관리해 나가는 동시에, 위 사안들이 한중관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중측과도 적극 소통하였습니다.

- 역사문제가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관련된 사안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업하였고, 중국의 역사왜곡 시도에 대해서 단호히 대응하고, 시정 요청하였습니다.

※ 장쑤성 당서기 방한 및 국무총리 접견(‘24.6월) 등 계기 장쑤성 내 전장 임시정부 활동전시관 조속 재개관 요청 → 활동전시관 재개관(‘24.12월)

- 불법조업 문제를 포함하여 해양환경, 해상안전 등 우리 해양주권·안보 사안에 대해 엄중한 우려 및 단호한 입장을 전달하였으며, 나아가 범정부적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해수부, 해경) 및 재외공관과 긴밀히 협의하였습니다.

※ 한중 해양문제 관련 부국장회의 개최(‘24.9월), 중국지역 조업질서 담당관회의 개최(‘24.12월)

- 한중간 긴밀한 전략적 소통을 통해 양국 내수 진작 및 우호정서 증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인적교류 활성화 조치 시행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결과, 양국간 인적교류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였습니다.

- 한중간 원활한 고위급 교류로 한중관계의 긍정적 흐름을 형성한 결과, 중측은 이에 호응하여 최초로 한국인 대상 일방적 비자면제 조치를 발표(11.1.)하는 등 양국은 상호 입국 편리성 제고 및 한중간 항공편 증편 가속화에 합의하였으며, 영화·게임·음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간 문화콘텐츠 교류를 확대하였습니다.

- 인적교류 활성화에 힘입어 對中 이해 제고를 위한 우호정서 증진 활동을 적극 추진하였고, 한중 청년교류사업*, 한중 기자단 교류사업 등을 통해 양국 민간 간 교류 정례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상기 노력 결과 '24년 對中 감정온도**는 '20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 '24년 한국 청년대표단 50여 명 방중(8.19.-24.) / '25년 중국 청년대표단 50여 명 방한 예정

** ('20년) 31.7도 → ('21년) 26.7도 → ('22년) 25.0도 → ('23년) 26.2도 → ('24년) 27.7도

- 고위급 회담을 통해 형성된 한중 경제협력 방향성을 바탕으로, ▲본부·주중공관·유관기관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중국 내 우리기업 진출 및 활동지원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양국간 안정적 공급망 관리 노력에 합의하는 한편, ▲중국의 수출통제 등 경제안보 관련 정책의 면밀한 모니터링 및 對中 소통을 지속하였습니다.

- '22년 G20 계기 한중 정상회담 합의사항인 「한중 우호미래포럼」(10.17.)을 개최함으로써 9년 만에 한중 1.5트랙 대화체제를 복원하는 등 한중 학계·전문가 그룹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對中 외교정책 전문성을 제고하였습니다.
- 정상의 중앙아시아 3개국(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6.10.-15.) 순방 및 키르기스스탄 대통령 방한(12.2.-4.) 등을 통해 교역·투자, 공급망, 환경, 디지털 등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공고히 하였습니다.
 - 중앙아 3개국을 국빈방문 하여 에너지·인프라 등 전통적 협력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디지털·교육·보건·환경 등 미래지향적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철 수주(우) ▲ 비료플랜트(투) 수주 ▲ 공급망 대화(우, 카) 창설 합의 등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였습니다.
 - 키르기스스탄 대통령 공식 방한(12.2-4.)계기 정상간 공동성명을 통해 수교 32년 만에 양국 관계를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여 양국 관계의 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한 확고한 토대를 구축하였습니다.
- 또한, 우리나라 최초의 對중앙아시아 특화 전략인 「한-중앙아시아 K 실�크로드 협력 구상」을 발표하고, 동 구상의 구체적 이행과 최초로 한국에서 개최될 한-중앙아 정상회의에 대한 5개국의 지지를 확보하였습니다.
- 이외에도 장관급 포럼인 제17차 한-중앙아 협력 포럼을 개최하여, 양측간 협력 가능성이 높은 공급망, 환경, 디지털, 관광 총 4개 분과에서 유망사업 발굴을 적극 모색하였습니다.
 - 포럼 계기 국가별 홍보 부스를 설치하고 SNS에 중앙아 홍보 영상을 업로드하는 등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우리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서도 노력하였습니다.

□ 향후 추진계획

- 미 실행정부 출범, 러북 군사협력 지속 등 북핵 문제를 둘러싼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북한의 비핵화 진전을 위한 국제사회와 공조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북한 인권 개선과 한반도 평화 통일 비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도 계속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복귀할 수밖에 없는 전략적 환경을 조성하고, 비핵화 진전을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 인류 보편 가치로서의 북한인권을 증진하기 위해, 양·다자 외교 무대에서 북한인권 국제 공론화를 주도하여 국제사회의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 한반도 통일 비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대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실현에 우호적인 외교적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 한국행을 희망하는 탈북민은 전원 국내로 이송한다는 원칙 아래, 관련국·국제기구와 긴밀히 협조하면서 해외 탈북민에 대한 보호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미 실행정부와도 고위급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이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미국 내 주요 여론주도층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특히 금년 1월 개원한 119대 의회 대상으로 적극적인 아웃리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확장억제 실행력 지속 강화 및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 태세 유지 등을 바탕으로 우리 국민이 더욱 안심할 수 있는 안보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한미간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 주한미군 기지 반환을 지속 추진하고, SOFA 현안들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 일본과는 각급 교류 및 소통을 통해 양국간 신뢰관계를 심화하는 가운데 한일관계 개선·발전의 긍정적인 흐름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 이를 통해, 한일·한미일간 안보·경제·글로벌 공급망·기후 변화 등 다양한 지역 및 글로벌 이슈 대응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 또한, 민감한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가운데, 주권·과거사 문제에 있어서는 단호한 목소리를 계속 내겠습니다.
- 아울러 인도·태평양 국가들과의 우호협력관계를 지속 강화하고, 역내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기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 ‘글로벌 사우스’ 대표국이자 국제무대에서 영향력이 증대되는 인도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고, 경제안보·과학기술 등 핵심분야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가치 공유국인 호주, 뉴질랜드와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국방·방산, 공급망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지속 심화해나가겠습니다.
 - 「2023 한-태도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격상된 태도국과의 고위급 교류를 지속하는 한편, 대태도국 협력사업도 적극 발굴해나가겠습니다.
 - 올해(2025년) 신설된 한-인도양 협력기금 활용 및 IORA 각료회의 참석 등을 통해 역내 주요 지역협의체와의 소통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 성공적으로 복원된 한일중 3국 협력의 모멘텀이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도록 각급에서 관련국들과 긴밀한 협력을 계속해나가겠습니다.
- 한일중 정상회의·외교장관회의의 정례적 개최를 위해 일·중측과 긴밀히 소통해나가겠습니다.
 - 3국 협력의 재개가 우리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일중 3국 정상회의(5.27.) 후속조치도 충실히 이행해나가겠습니다.
- 한중 고위급 간 활발한 교류·소통의 모멘텀을 이어나가 상호존중·호혜·공동이익을 기반으로 한중관계를 보다 성숙하고 건강하게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 ▲2025 경주 APEC 계기 시주석 방한 등 정상급 교류 추진 ▲국회의장 중국 공식방문 추진 ▲외교장관 소통 모멘텀 지속 ▲각급 전략적 소통채널(외교안보 대화, 차관급 전략대화 등) 활성화 등을 통해 인태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한중관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한중 우호정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양안관계, 해양문제, 역사왜곡, 문화논쟁 등 주권·정체성 관련 현안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하고 왜곡 시정 요청 등 대중국 소통을 지속하겠습니다.
- 양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인문교류 등 분야에서 실질협력 성과를 쌓아나가고 양국간 신뢰를 증진해 나가겠습니다.
- 정상의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한-키르기스스탄 정상회담, 한몽 총리회담 등 고위급 교류 후속조치를 충실히 이행하는 한편, 중앙아시아·몽골과의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통해 전략적 소통을 지속 강화해나가겠습니다.
- 중앙아시아 5개국 및 몽골과 에너지·인프라 등 전통적 협력 분야를 넘어 디지털, 보건, 관광, 교육 등 미래지향적인 분야에서 실질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이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지속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전략목표 Ⅱ) 함께 번영하는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성과지표

협력 네트워크 구축 지수

□ 성과지표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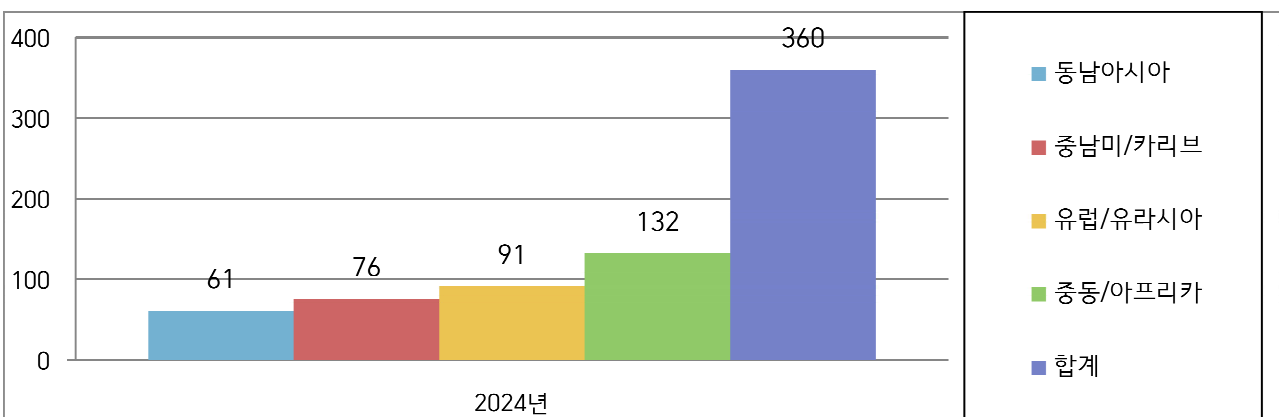
〈 지표명 〉

- 개념 : 방문·방한 행사 또는 다자회의 계기 우리 대통령, 국무총리, 장·차관과 협력 네트워크 대상국 고위급(정상·장차관급) 인사와의 교류 횟수 및 맞춤형 협력
※ 대상국: 유럽·유라시아, 동남아시아, 중남미·카리브, 중동·아프리카 지역 국가
- 측정산식 : 협력 네트워크 구축 대상 지역 정상급·장차관급 교류 횟수 및 협력 건수 정량 평가

세부측정방법	방문·방한, 다자회의 계기 정상회담 등 고위급 인사 간 면대면 접촉(면담) 건수				
기준	110회 이상	100-109회	90-99회	80-89회	79이하
점수	100	95	90	85	80

□ '24년 측정결과

- 협력 네트워크 대상국 고위급 인사와의 교류 실적은 총 360건으로 당초 '24년도 목표치(110건)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 지역별로는 ▲ 동남아시아 61건, ▲ 중남미·카리브 76건, ▲ 유럽·유라시아 91건, ▲ 중동·아프리카 132건이었습니다.



□ 성과분석

- 아세안과 최고단계 파트너십인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CSP)’를 수립하였으며, 아세안에 특화된 지역 정책인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을 착실히 이행하는 한편, 동남아 국별 맞춤형 협력을 통해 아세안과의 상생연대를 강화하였습니다.
- ▲필리핀·싱가포르 국민방문(10월) ▲말레이시아 총리 공식방한(11월) ▲베트남 서열 1-3위 최고지도자 모두와의 정상외교(연중) ▲캄보디아 총리 공식방한(5월) 등, 10개 아세안 국가 중 9개국(미얀마 제외)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빈틈없는 고위급 교류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말레이시아·필리핀·캄보디아와 ‘전략적 동반자관계’로의 격상 ▲2025년 한-라오스 재수교 30주년 계기 ‘포괄적 동반자관계’ 수립 합의 ▲태국 신임 총리 출범 한달여 만에 한-태국 정상회담 개최 등 해양동남아 및 대륙동남아 국가들과의 전략적 협력 관계 발전을 위한 기반을 공고화하였습니다.
- 민생·경제외교 차원에서는 2019년 첫 협상을 시작한 한-필리핀 FTA가 12.31자로 발효되어 자동차 분야를 포함한 우리 제조업계의 수출 증가 및 기업진출 촉진이 기대됩니다. 아세안내 교역국 3위인 말레이시아와는 조속한 FTA 협상 재개 및 타결을 추진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우리 기업 최다 진출국(10,000여 개)인 베트남내 우리 진출 기업 보호를 위해서는 ▲한국 수출가공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0” 세율 적용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 체결’ 등을 위해 적극 교섭하였습니다. 태국과는 경제동반자협정(EPA) 협상 개시(3월) 이후 3번에 걸친 협상 등 교역·투자 확대를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해 나가면서, 우리 기업의 태국 전기차 생산 시장 최초 진출이라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 한-아세안 정상회의(10월) 계기 아세안측의 명시적 지지를 바탕으로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 수립 공동성명’을 채택하여 한-아세안 관계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하였습니다. 또한, ▲한-아세안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KADIF)(3,000만불 규모) 등 對아세안 중장기

핵심 협력사업 착수 ▲아세안 사무총장 방한(5월) ▲2년 연속 ‘한-아세안의 날’ 개최(11월) ▲한-아세안 국방장관회의 최초 대면 개최(11월) 등 KASI 8대 중점 추진 과제에서 모두 성과를 거두는 한편, 전방위적 홍보와 소통*을 통해 우리 아세안 정책에 대한 국내외 대중의 이해를 제고하였습니다.

*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계기 홍보영상(10월)은 외교부 KOREAZ 유튜브 채널 창설 (2013년) 이래 5번째로 높은 조회수(40만회) 기록

○ 한·쿠바 수교, 중남미-카리브 국가들과의 고위급 교류 활성화 등을 통해 우리 정부의 對중남미 외교 및 맞춤형 실질 협력 기반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 쿠바와의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의 결과로 쿠바와 외교관계를 수립 (2.14)하고 후속조치를 추진하여 대중남미 외교지평을 확장하였습니다. 특히 ▲한-쿠바 양자협약(6.12), ▲수교 이후 최초 한-쿠바 외교장관회담(9.24)을 개최하여 양국간 실질협력 방안을 모색하였고, ▲상호 상주공관 개설 추진, ▲교류협력 확대 등 수교 후속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대중남미 외교 지평이 확대되었습니다.

- 중남미 유일 「포괄적 전략 동반자」인 페루를 공식방문(11.16)해 중남미 최대 방산협력 파트너와 방산·인프라 등 전략적 협력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방산 관련 MOU 3건을 포함해 총 8건의 문건을 서명하고 정상 간 합정 명판 서명식을 개최해 양국 간 방산협력을 지속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 과테말라(1.14), 엘살바도르(6.1), 파나마(7.1), 도미니카공화국(8.16), 멕시코(10.1) 대통령 취임식 계기 특사를 파견, 최고위급 면담을 통하여 신정부와의 신뢰를 구축하고 동포사회를 격려하였습니다. 또한, 특사 파견 계기 부처 간 협업을 통하여 인프라, 디지털 등 중남미 각국 맞춤형 협력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 경제안보 강화를 위해 우리 기업의 리튬 등 핵심광물의 개발 ·

투자활동과 함께 교통·인프라·방산 분야 중남미 시장 개척 활동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페루 육해공군과의 파트너십 체결(4월~11월), ▲아르헨티나 포스코 리튬 프로젝트 1단계 생산 공장 준공식 개최(10.24), ▲과테말라의 한-중미 FTA 가입 의정서 서명(1.8), ▲멕시코 취임식 특사의 현지 언론 인터뷰(10.1)를 통한 한-멕 FTA 협상 재개 여건 조성을 통한 공급망 다변화 논의 등 경제안보 협력 기반 확충을 위한 노력을 전개하였습니다.

※ 우리기업 진출 지원 현황

- **(핵심광물)** ▲포스코, 아르헨티나 리튬 1단계 생산공장 준공(10월), ▲페루 핵심광물 MOU 체결(11월), ▲제5차 한-칠레 자원협력위원회 개최(5월), ▲한-칠레 핵심광물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 개최(6월)
- **(교통·인프라)** ▲에콰도르 쿠엥카-과야킬 고속도로사업 사전 타당성 조사 체결(11월), ▲국토교통부-파나마 국가철도사무국 철도 협력 MOU 체결(9월)
- **(방산)** ▲페루 해군 함정 건조 등 전략적파트너 계약(4월), ▲페루 육군 장갑차 수출 등 전략적파트너 계약(5월), ▲페루 FA-50 부품 공동생산 MOU(7월), ▲페루 KF-21 부품 공동생산 MOU(11월)
- 한-중남미 미래협력 포럼(6.10), 한-카리브 고위급포럼(11.5), 한-중미 특별라운드테이블(11.29), 한-중미 통상투자포럼(11.28)를 개최하여 중남미 장·차관급 고위인사 및 주요 국제기구 인사를 방한 초청했습니다. 특히 중남미 7개국과의 외교장관회담 개최* 등을 통해 대중남미 협력 유망 분야를 모색하고 호혜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농업, 디지털, 환경 등 분야에서 중남미 협력 수요에 기반한 민관합동 경제협력 사절단을 파견하여 맞춤형 협력 파트너십을 강화하였습니다.

* 브라질, 아르헨티나, 페루, 온두라스, 쿠바, 에콰도르, 가이아나

※ 중남미 농업토지협력사절단(5.19.-25. 자메이카, 온두라스), 디지털정부 협력사절단(10.26.-11.3.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환경협력사절단(12.1.-8.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파견

- 유럽 및 유라시아 국가와의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통해 포괄적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이슈 논의에 앞장서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에 기여하였습니다.

- 자유민주주의, 인권, 법치 등 가치를 공유하는 EU 및 유럽 주요 국가들과 활발한 양·다자 고위급 교류를 통해 가치외교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외연을 확장하였습니다.

※ **(정상 방한)** ▲루마니아 대통령 공식 방한 및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공동성명 채택('24.4월) ▲대통령 체코 공식 방문('24.9월) 계기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공동성명 및 행동계획(25-27년) 채택, 총 56건의 MOU·문건 체결 ▲슬로바키아 총리 공식 방한 및 양국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24.9월) ▲한-폴란드 수교 35주년 계기 폴란드 대통령 국빈 방한('24.10월) ▲라트비아 대통령 방한('24.11월) 등

※ **(다자 계기 정상회담)** ▲다보스 포럼('24.1월) 계기 한-슬로바키아 총리회담 ▲NATO 정상회의('24.7월) 계기 10개국 정상회담(영국, 독일, 체코, 폴란드, 네덜란드,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및 우크라이나-IP4 정상회담 ▲G20 정상회의('24.11월) 계기 영국과 정상회담 등 총 11회

※ **(외교장관 방한)** ▲스위스('24.2월) ▲루마니아('24.4월) ▲리투아니아('24.4월), ▲슬로바키아('24.5월) ▲룩셈부르크('24.7월) ▲알바니아('24.7월) ▲체코('24.9월) ▲영국('24.10월) ▲EU('24.11월) 등 총 9회

※ **(다자 계기 외교장관회담)** ▲G20 외교장관회의('24.2월) ▲NATO 외교장관회의('24.4월)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24.7월) ▲REAIM('24.9월) ▲유엔총회('24.9월) ▲G7 외교장관회의('24.11월) 계기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네덜란드 등과 외교장관회담 총 24회

- EU 및 영국과 장관급 전략대화를 개최하여 정책 공조를 심화하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였습니다.

※ **(EU)** '23.5월 채택한 한-EU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따라 최초로 한-EU 전략대화를 개최('24.11월), 2025년 15주년을 맞이하는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차원에서 한-EU 안보방위 파트너십 및 러북 군사협력 규탄 성명 채택

※ **(영국)** 제9차 한-영 외교장관 전략대화 개최('24.10월)를 통해 「다우닝가 합의」 이행 점검 및 전략대화의 주요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 및 러북 군사협력 규탄 성명 채택

- 유럽국가와 방산, 원전 등 전략적 분야 협력을 통한 대규모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였습니다.

※ **(방산)** ▲(폴란드) 천무 2차 이행계약(16.4억불) 체결('24.4월) ▲(루마니아) K9 자주포 수출 계약(1.38조원 규모) 체결('24.7월)

※ **(원전)** 한수원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사업(24조원 규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최종 계약 체결 지원

- 러시아에 북한군 파병 등 러북간 군사협력, 러북조약 체결과 같은 안보 우려에 대한 우리의 엄중한 입장 전달하고,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역할 촉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기업·국민 보호를 위해 러측과 필요한 소통을 이어갔습니다.

※ ▲루덴코 러 외교부 아태차관 방한('24.2월)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계기 한러 외교장관 약식회담('24.7월) 등

- 우크라이나 평화공식 관련 각종 국제사회 논의 참여,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에 따른 우크라이나 인도적, 재건 지원 등 우크라이나 평화 회복 및 재건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에 적극 동참하였습니다.
- 코카서스 지역 국가들과 정책협의회 개최, 고위급 교류를 진행하고, 주요 양자협정 체결 추진, 인프라 세일즈 지원, 개발협력 추진 등 실질협력 기반을 강화 노력을 전개하였습니다.

※ ▲제9차 한-조지아 정책협의회('24.3월) ▲제5차 한-아르메니아 정책협의회('24.3월) ▲아제르바이잔 대통령 특사 방한('24.8월)

- 중동 국가들과의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통해 전략적 협력을 심화시키고 경제 성과를 도출하여 ‘제2의 중동붐’ 모멘텀을 강화하였으며, 중동지역 이슈 논의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에 기여하였습니다.

* UAE 대통령 국빈 방한(5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6월) 계기 모리타니아·모로코·알제리·튀니지·리비아 등 마그레브 5개국 모두와 최고위급 교류 성사 등

- UAE 대통령 국빈 방한 등 고위급 교류를 통해 ▲전략적·미래 협력 강화 및 우리 기업 수주 지원(사우디·UAE·카타르), ▲투자 약속 확보 및 이행(UAE), ▲정상급 전략협의체 신설(사우디) 등 다각적인 경제안보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 ▲UN 총회 계기 한-이란, 사우디 외교장관 회담 ▲위기 상황 발생시 외교부 입장 발표 ▲UN 안보리 공동 성명 발표 등을 통해 역내 안정과 평화 구축에 기여하였습니다.

- 또한, 제8차 한-EU 중동문제 국제회의 개최(8월, 서울), 제20차 한-중동협력포럼 개최(11월, 서울) 등을 통해 중동지역 이슈에 관한 국내외 전문가와의 소통을 강화하였습니다.
- 우리 정부 역대 최초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개최(6.4.-5.)하여 미래 성장의 동력인 아프리카 국가들과 호혜적 파트너십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 34명의 정상급 인사(AU집행위원장 포함)를 포함 아프리카 48개 국가 및 4개 국제기구 등 초청한 52개 대표단 모두 참석하였으며, 정상회의에 참석한 장관급 이상 수석대표와 모두 양자회담을 개최하여 정상회담 26회, 총리회담 8회, 외교장관회담 17회 개최하는 등 아프리카 국가와의 최고위급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습니다.
- 한-아프리카 양측은 정상회의 결과문서인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공동선언」을 채택하였으며, 정상회의 3대 의제인 ▲동반성장(상호 호혜적 경제협력) ▲지속가능성(글로벌 도전과제 공동 대응) ▲연대(국제평화·안보협력)를 바탕으로 협력 강화에 합의하였으며, 정상회의 계기 비즈니스 서밋 및 비즈니스 상담회를 개최하여 아프리카 17개국 55개 기업과 47건의 계약·MOU를 체결(1억 87만달러 상당의 계약 추진액 달성)하여 동반성장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대국민 홍보 행사를 개최하여 국민들이 아프리카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제공하고 ▲온라인 이벤트(총4회, 7,300여명 참여) 실시 ▲사진·영상 공모전(2개 주제 총 112팀 참여) ▲「아프리카 문화 페스티벌」(광화문광장, 5.10.-12.) 등 국민 참여 행사를 다수 개최하여 아프리카에 대한 인식 제고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 향후 추진계획

- (아세안) ▲한-아세안 CSP 수립에 따른 후속조치 및 주요 협력사업 지속 이행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말레이시아와의 협의·협력 강화 ▲한-라오스 재수교 30주년 계기 포괄적 동반자관계 수립 추진 ▲메콩 국가들과의 양·다자 차원의 협력 강화 등을 통해 아세안과의 호혜적·실질적·전략적 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 (중남미) 양·다자 차원의 고위급 교류를 지속 활성화하여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역내 현안에 대한 한-중남미 협력을 주도하겠습니다. 또한, 주요국 및 소지역별 맞춤형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주요 자원·에너지, 식량안보 분야 협력으로 우리 경제안보를 강화하는 한편, 對중남미 FTA망 확대에 우리기업 진출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유럽) 유럽·유라시아 지역 국내외 정세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활발한 고위인사 교류 및 다양한 협의체 개최를 통해 협력 모멘텀을 지속 유지하겠습니다. 또한 對유럽 지역 대상 중장기 외교정책을 수립하고 국가 그룹별 맞춤형 외교를 실시하여 국민·국익을 위한 선제적·능동적 외교 실천에 기여하겠습니다.
- (중동·아프리카) 중동지역 국가들과 고위급 교류를 통해 달성한 경제적 성과 유지 및 협력 지평 확대에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계기 구축된 양측간 협력 모멘텀을 지속 유지하고, 경제 등 우리 국익에 직결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한-아프리카 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략목표 Ⅲ) 자유민주주의, 인권, 법치 등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고 개발협력을 증진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역할을 강화한다.

성과지표1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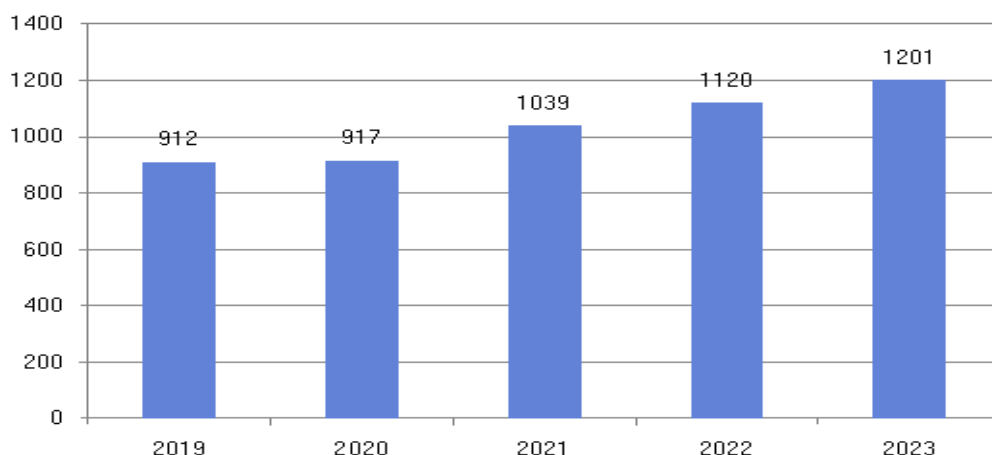
□ 성과지표 개요

〈 지표명 〉

- 개념 : 매년 말 기준 국제기구 실무급(P급) 이상 직위에서 근무중인 우리 국민의 수를 조사하여 전반적인 진출 규모 파악
- 조사기관 : 외교부
- 조사대상 : 국제기구 실무국(P급) 이상 직위에서 근무중인 우리 국민
- 조사방법 : 각 국제기구 소재 우리 공관을 통한 조사 결과 집계
- 측정산식 : 유엔 체제 및 금융기구, 기타 지역협의체, 국내소재 국제기구 본부 등 주요 국제기구에 근무 중인 우리 국민의 진출 현황 파악

□ '24년 측정결과

-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은 1991년 유엔 가입 이래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24년 진출 실적은 해당 공관 및 국제기구별로 정확한 통계를 취합 중입니다(2023년 진출 실적 : 1,201명(2023.12월 기준)).



□ 성과분석

- 외교부는 국제사회에서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국제기구 진출 프로그램 및 관련 설명회 등 온·오프라인 홍보 등을 적극 추진하여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 규모를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 특히, 국제기구초급전문가(JPO) 제도는 2024년 기준 파견 종료자 233명 중 196명이 파견 종료 직후 국제기구에 진출하는 등 효과적인 국제기구 진출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외교부는 청년들의 국제기구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2024년 JPO 선발 규모를 2023년 25명 대비 30명으로 확대하고 지원 기간도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여, 우리 청년들의 기대에 적극 부응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우리 국민을 국제기구 현장 사무소에 청년 또는 전문 봉사단원으로 파견하는 유엔봉사단(UNV) 규모도 확대하여, 2024년에는 60명(전년 대비 5명 증가)의 UNV가 다양한 국제기구에서 현장 경험을 축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외교부는 제17차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를 서울, 인천, 부산 3개 도시에서 개최(7.15-17)하여, 우리 국민에게 국제기구 진출 방안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 제17차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에서는 총 7개 주요 국제기구 인사 담당자를 초청하였으며, 전년 대비 설명회 참석자 60% 증가, 모의면접 지원자 30% 증가, 외교부 유튜브 채널 스트리밍 누적 조회수 2배 증가 등 많은 청년들의 관심 속에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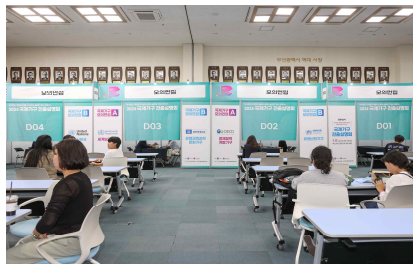
- 동 설명회 계기 참석자들에게 1:1 모의면접을 포함하여 생생한 국제기구 채용 노하우 및 맞춤형 면접 피드백을 제공하였으며, 설명회 만족도 조사 결과 참석자들은 국제기구 진출 관련 정보 및 국제기구측 인사담당자와의 상담 기회 제공 등에 크게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설명회 이후 실시한 설문조사(7.15-17)에서 응답자의 약 87%가 '만족' 또는 '매우 만족'으로 답변

<제17차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 (7.15-17 / 서울, 인천, 부산) 개최>



설명회 현장 (7.15, 서울)



UNESCO, UNICEF 등
국제기구 인사와 1:1 모의면접



취업 상담 제공

- 한편, 2024년에는 국내 공공기관, 연구소 및 대학의 국제교류 담당 직원과 국제기구 진출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인사 초청 채용정보 간담회」를 개최하여, 우리 국민의 OECD 진출 방법을 소개하고 OECD와 국내 기관과의 협력 강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 이외에도 △유엔사무국 출신 인사 초청 간담회(3.25) △국내대학 및 공공기관 등 대상 국제기구 진출 관련 강연(총 9회) 개최

- 또한, 국제기구 인사센터를 운영하여 국제기구 공식 정보 제공, 전화·이메일·화상 상담 및 이력서·커버레터 첨삭을 수시로 진행하였습니다.

※ △대국민 국제기구 진출 상담(대면 10건, 유선·이메일 각각 200건 이상) △국제기구 근무 우리 국민과 해당 국제기구 진출을 희망자 간 1:1 멘토링 서비스 제공(상시) △국제기구 인사센터 홈페이지 운영(채용정보 등 공지사항 400건, 공식정보 750건, 상담게시판 80건 이상) △국제기구 진출 가이드북 배포 등

□ 향후 추진계획

-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JPO 및 UNV 파견 및 대국민 홍보 활동을 활발하게 수행하고, 프로그램 참여자 대상 만족도 조사를 강화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할 예정입니다.
- 앞으로도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 및 간담회 개최, 국제기구 진출 관련 데이터 수집·관리 및 공식 정보 제공 등을 통해 우리 국민 국제기구 진출을 위한 체계적 지원을 위해 노력 하겠습니다.

성과지표2

양자 무상원조 규모

□ 성과지표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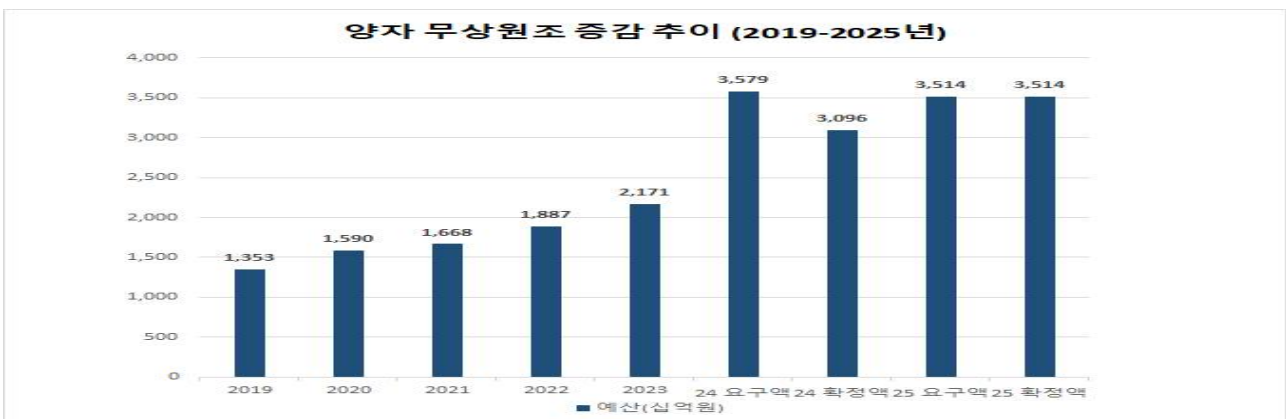
〈 지표명 〉

- 개념 : 양자 무상 ODA 예산(편성액) 규모
- 조사기관 : 외교부
- 조사대상 : ('24년 기준) 93개국 대상, 46개 기관, 1,645개 사업
- 조사방법 : 당해 연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상 양자 무상원조예산(확정액 기준) 확인
- 측정산식 : 양자 무상원조 예산(편성액) 확인 (단위: 십억원)

□ '24년 측정결과

- 2023년 대비 2024년 양자 무상원조 규모는 요구액 기준 64.86%(3조 5,790억원), 확정액 기준 42.62%(3조 962억원) 증가*하였으며,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약 18.1% 증가하였습니다.

* 외교부 심의에서는 '24년 양자 무상원조 규모(요구액)를 대폭 확대(64.86%)하였으나, 기획재정부 및 국회 예산심의에서 삭감되어 확정액 증가율이 낮아짐.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요구액	확정액	요구액*	확정액**
예산(십억원)	1,352.6	1,590.1	1,667.9	1,886.5	2,170.9	3,579	3,096.2	3,514.3	3,514.3
증가율(%)	1.73%	17.56%	4.89%	13.11%	15.08%	64.86%	42.62%	13.50%	13.50%

* 자료출처: 제50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안건(제50-1호) 「'25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요구액 기준)」(2024.6월, 관계부처 합동)

** 제51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25.2월 예정)에서 「2025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확정액 기준)」 의결 이후 변동 가능

□ 성과분석

- 우리 국격에 걸맞은 수준으로 공적개발원조 규모를 확대하고 내실화 하였으며, 대외전략과 개발협력 정책의 연계를 강화하였습니다.
 - (ODA 예산 지속 증액) 글로벌 복합위기로 국제 ODA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한국의 국제적 위상 강화에 따른 국제사회의 기대 증가를 반영하여 ODA 예산 지속 확대
 - (무상원조 사업 확대) 무상원조 주관기관으로서 역대 최대 규모의 2025년도 무상원조 후보 사업(1,905건, 약 4조 2천억원)을 심사·조정 (2025년도 3조 9,724억원 1,637개 사업 승인)
 - 사업 발굴·집행·점검 등 사업 추진 전 과정에서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 ※ 각 시행기관의 충실한 사업 발굴 및 집행관리를 위해 ▲사업시행계획 작성지침 배포(2월) ▲1:1 기관 간 협의회(4월) 및 분과협의회(5월) 및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5월) 개최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6월) 개최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 집행관리 분과회의 분기별 개최(6월, 7월, 10월, 12월), ▲2026년 사업 발굴을 위한 지침 배포(7, 10월) 및 주관 기관-시행기관 협의회 개최(11월)
 - ※ ODA 사업의 현장성 및 효과성 강화를 위해 ▲재외공관-수원국 간 정책대화 개최(19개국, 32회 이상) ▲재외공관 개발협력담당관회의 개최(2회) ▲재외공관 장 주재 ODA 현지협의회 개최(118회) ▲모니터링 확대 실시(68개 공관, 325개 무상원조사업 / 연초 계획 기준) 등
 - (전략적 무상원조 추진)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2월, 6월)를 통해 ▲무상원조 사업 집행관리 강화방안 ▲개발건설탕사업 가이드라인 등 ODA 효과성 제고 위한 지원책 마련
 - (주요 외교정책 연계) 인태전략 등 우리 정부의 주요 외교정책이나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한-ASEAN 정상회의, 한-중앙아시아 K 실크로드 협력 구상 등 정상 및 고위급 외교시 공표된 주요 공약·구상 등과 연계된 ODA 사업 추진
 - ※ ▲아프리카 디지털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Tech4Africa」 발표 ▲한-중앙아시아 K 실크로드 협력 구상 내 중앙아 국가 대상 개발협력 방향 포함 ▲한-아세안 정상회의 의장성명에 통합 연수 브랜드(이음*) 포함 등
- * 이음(IEM Inclusive Education Models): 성장 사다리가 되는 '포용적 교육을 제공하는 다양한 모듈형 사업

- 글로벌 인도적 위기 복합화 및 심화 속 역대 최대 규모(7,401억원)의 인도적 지원을 실시하여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다자개발기구 및 글로벌 보건기구와의 파트너십 또한 강화하였습니다.
- **(인도적 지원)** ▲우크라이나(2억불 규모) ▲가자지구(3,800만불), 시리아·주변국(2,600만불), 미얀마·로힝야 난민(2,300만불) 등 만성재난 지역 지원 ▲남부 아프리카 4개국 가뭄 피해(300만불), 베트남 태풍 피해(200만불), 레바논 무력 충돌(300만불) 등 긴급재난 발생 시 신속 지원
- **(다자개발)** 다자개발기구와 정책협의회* 개최 및 고위급 교류** 등을 통해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측 기여의 가시성 제고
 - * ▲한-UNICEF(2.14., 12.5.), ▲한-UNFPA(2.15.), ▲한-OCHA(2.16., 12.9.), ▲한-WFP(4.18.) 등 정책협의회 개최
 - ** ▲외교장관, UNDP 총재 2회 면담(9.27., 10.16.) ▲외교장관, WFP 사무총장 면담(7.31.), ▲외교장관, UNFPA 사무총장 면담(3.6.), ▲글로벌다자조정관, IFRC 사무총장 면담(5.10.) 등
 - ※ 외교부 및 UNDP 서울정책센터(USPC), 한국의 개발 경험 공유 및 주요 개발 이슈 논의를 위한 '서울담화' 공동 개최(10.16. / 외교부 2차관 및 UNDP 총재 참석)
- **(글로벌 보건)** 주요 글로벌 보건기구에 대한 기여를 통해 글로벌 보건 체계 강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 중
 - * ACT-A 1억불('23-'25 연 1억불 공약) ▲글로벌펀드 2,500만불('23-'25 총 1억불 공약) 등 지원
- 개발협력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발협력 파트너십을 다각화 하고 시민사회와의 협력 강화를 실시하였습니다.
- **(해외 파견 인재 확대)** 해외봉사단 및 국제개발협력인재 파견사업을 통해 개발협력 과정에 국민 참여 확대 및 청년 인재 해외진출 교두보 마련
 - ※ (파견인원 추이) 2021년도 2,407명(원격봉사활동 1,664명 포함) → 2022년도 3,398명(원격봉사활동 1,029명 포함) → 2023년도 3,895명(원격봉사활동 104명 포함) → 2024년도 5,050명(잠정)
- **(국회와의 협력)** 장관, 국회 글로벌 지속가능발전·인도주의 포럼 창립 총회 및 특별세미나(8월)에 참석하여 ODA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

확산과 참여 증진을 위한 정부-국회 간 협력 기반 마련

- (학계·전문가와의 협력) ▲민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제17회 서울 ODA 국제회의(9월) ▲국제개발협력학회와의 공동 학술대회(12월) 개최하고 ▲글로벌 지속가능발전포럼(GEEF, 3월) 참석 등 국내외 개발 협력 전문가와 소통 강화
- (시민사회와의 협력)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 증진을 위해 파견 인력 체재비 현실화, 중소 NGO와의 컨소시엄 관련 중소 NGO 측 분담 비율 완화 등 시행
- 선진공여국과 협력을 증진하고 주요 국제개발논의에 적극 참여하였습니다.
- (공여국) 미국, 일본, EU, 프랑스, 영국 등 주요 선진공여국과 수시 협의를 통해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 ※ ▲한미 무상원조 주관기관 고위급 간 화상회의(3월) ▲한미 과장급 화상회의(10월) ▲한미일 과장급 화상회의(10월) ▲한-EU 개발협력 정책협의회(3월) ▲한-프랑스 개발협력 정책협의회(11월) ▲한-영국 개발협력 정책협의회(11월) 등
- (국제개발논의) 6년 만에 우리 개발협력 정책 전반에 대한 OECD 선진공여국 간 상호점검인 동료검토를 수검(24.3월)하고, 국제사회 개발 협력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 가속화에 대한 우리의 기여 의지 표명
 - * ▲아태지속가능발전포럼(2월) ▲제4차 군소도서개발국총회(5월) ▲지속가능발전 고위급 정치포럼(HLPF)(7월) ▲제4차 개발재원총회 준비위원회(7월, 12월) ▲동북아 지속가능발전 이해관계자 포럼(10월) 등

□ 향후 추진계획

- 외교부는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 경제 규모에 걸맞은 ODA를 추진하고,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기여해나갈 계획입니다.

(전략목표 IV) 글로벌 중추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고, 외교역량을 강화하며, 재외국민 보호 및 동포 지원 강화를 추진한다.

성과지표1

공공외교 주요사업 참여자 만족도

□ 성과지표 개요

〈 공공외교 주요사업 참여자 만족도 〉

- 개념 : 5개 공공외교 주요사업 참여자의 만족도를 수치화한 지표
- 조사기관 : 자체조사
- 조사대상 : 공공외교 사업 참여자
- 조사방법 : 행사 결과보고서, 공관 보고전문,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등
- 측정산식 : ①주요외교계기 기념행사 ②퀴즈 온 코리아 예선전 ③재외공관 문화 공공외교 행사 ④국내 정책공공외교 행사 ⑤재외공관 디지털 공공외교 사업 만족도 평균 (100점 만점, 2024년 목표치 90점)

□ '24년 측정결과

- 2024년 공공외교 주요사업 참여자 만족도 결과는 91.2점으로, 2023년 사업 만족도 결과(91.06점) 상회, 금년 목표치(90점) 달성
- ①주요외교계기 기념행사: 93.9점, ②퀴즈 온 코리아 예선전: 90.85점, ③재외공관 문화 공공외교 행사: 92.75점, ④국내 정책공공외교 행사: 88.58점, ⑤재외공관 디지털 공공외교 사업: 89.94점

□ 성과분석

- (주요외교계기 기념행사) 2024년 18개국 19개 공관에서 45건 이상의 수교 및 주요외교계기 기념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하여 한국의 문화, 지식, 정책을 폭넓게 소개하고 양국 간 이해 및 우호 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동 행사 참석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갤럽) 결과, ▲주요 외교계기 기념사업 관련 행사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93.9점, ▲한국에 대한 호감 상승 정도 89.3점, ▲한국 이해 제고에의 도움 정도 91.5점으로 평균 91.5를 기록하여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 한-네팔 수교 50주년 기념 우호 트레킹 등반 기념행사는 양국 전문 산악인이 참여하여 네팔 총리가 직접 등반대 대상 등정에 앞서 양국 국기를 전수하고 양국이 함께 신루트를 개척하는 상징적인 행사를 통해 양국의 유대 강화 및 산악 관광에 있어 교류 확대에 이바지하였습니다.
- 자이툰 부대 이라크 파병 20주년 계기 개최한 행사에 참석한 쿠르드 대통령은 한국 정부의 20년간 파트너십에 감사를 표하여 앞으로 이라크 재건을 위한 과학기술, 교육, 인프라 건설, 문화 등 양국이 협력하여 발전해나갈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혀 양국 협력 관계 확대 및 미래 협력 파트너로서의 관계 구축에 이바지하였습니다.
- (퀴즈 온 코리아) 외교부는 현지인을 대상으로 한 온·오프라인 참여형 퀴즈쇼인 「퀴즈 온 코리아」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동 프로그램은 TV에서도 방영되어 참가자 및 시청자들에게 사회, 역사, 문화 등 다방면의 한국 관련 지식을 제공하고 한국에 대한 홍보 효과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 특히 올해는 ▲결승전 참가자들의 한국 탐방 이야기, ▲최종 우승자의 한국 사랑 비하인드 스토리 등을 담은 후속 다큐멘터리를 제작·방영하였고,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와 교류가 활발하지 않은 지역의 행사를 지원하여 한국 관련 지식을 보급하는 등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재외공관 문화공공외교 행사) 글로벌 트렌드에 민감한 재외공관을 통해 우리의 외교 정책에 부합하는 다양한 문화공공외교 행사를 개최하며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확산에 기여하였습니다.
- ▲ 정부·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협지(이스라엘, 엘살바도르 등)를 포함하여 150여개 공관에서 현지 맞춤형 공공외교 한국주간행사 개최
 - ▲ 태권도, 바둑 등 공관장배 스포츠대회 개최 ▲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이슬람 국가 최초 K-Pop 페스티벌 개최 ▲ 국외 친한 단체가 추진하는 행사 및 활동 지원, ▲ 한국의 뛰어난 예술작품 및 문화재를 재외공관에 전시 등을 지원함으로써 현지 대중의 한국문화에 대한 접근성과 호감도를 높이는데 기여하였습니다.
- (국내 정책공공외교 행사) ▲ 인태전략, ▲ 에너지·방산 협력, ▲ 기후 변화, ▲ 여성·청년, ▲ 한국·미국·인도 3자 협력 등 다양한 이슈를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세미나 등을 개최해 우리 정책 공공외교의 지평을 넓히고 실효성을 강화하였습니다.
- 특히 ‘한국-미국-인도 1.5트랙 대화(11월, 서울)’를 최초 개최해 인태전략 핵심 파트너인 미국 및 인도와의 소다자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제9차 한-체코 미래 포럼(11월, 서울)’ 계기
 - ▲ 고속철·방산 협력, ▲ 에너지·원자력 개발 등 양국 간 미래 협력에 대한 구체적 논의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 또한 ‘신진 한반도 전문가 연구모임’, ‘한일청년 양자 모의 회담’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기존 한반도 전문가 외에 차세대 대상 정책 공공외교를 강화하였습니다.
- (재외공관 디지털 공공외교) 총 54개 공관에서 56개 현지 맞춤형 디지털 공공외교를 실시하여, 해외 온라인 공간에서 글로벌 중추국가 위상을 강화하고 한국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였습니다.
- (주요 사업) ▲ 현지 인플루언서가 우리 정부 외교행사에 대한 스페인어 홍보 숏츠 영상 제작(주온두라스대사관) ▲ 현지 환경 NGO와 ‘국제 연안

정화의 날' 캠페인 행사 영상 제작(주포르투갈대사관) ▲수교 50주년 기념 영상 제작(주네팔대사관) 등 현지인들의 공감을 얻는 사업 전개

- (상세 점수) ▲ 전반적 만족도 90.74점 ▲ 한국 이해 증진 정도 90.41점
▲ 향후 재참여 의향 93.78점 ▲ 외교부/공관 온라인 소통 평가 84.84점
→ 4개 부문 평균 89.94점

□ 향후 추진계획

- 우리 국력과 위상에 부합하는 역할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와 우리 문화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제2차 공공외교 기본 계획(2023-27)」 및 「2025년도 공공외교 종합시행계획」을 기반으로 정책·지식·문화·디지털 공공외교를 지속 추진하여 대한민국에 대한 외국 국민들의 이해와 신뢰를 증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 이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체계적 공공외교 추진을 통해 공공 외교 저변을 국내외 대상으로 더욱 확대하고 다양한 공공외교 주체들 간 시너지 효과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아울러, K-문화 콘텐츠를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소프트파워 위상을 강화하는 한편, 전세계적 디지털 소통 증가 추세 하에서 공공외교 SNS 영문 채널 「KOREAZ」를 통해 고품질의 정책·문화·지식 콘텐츠를 확산하여, 한국에 대한 해외 대중의 관심과 이해를 지속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 성과지표 개요

〈 지표명 〉

- 개념 : 전략목표 성과지표 측정을 위해 국민만족도 조사를 실시, 국민의 관점에서 평가 결과를 반영
- 조사기관 : 국무조정실 및 리서치기관(한국행정연구원 등)
- 조사대상 : 일반 국민(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만2천 명)
- 조사방법 : 국내 만 19세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면접 설문조사(대표성 확보를 위해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실시)(온라인/대면)
- 조사표 구성 : 조사표는 조사대상자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과제 설명부문과 평가부문으로 구성되며, 설명내용은 담당부서의 검토 및 협의 하에 최종 확정
- 평가항목 구성 (각 항목에 대해 1점~7점까지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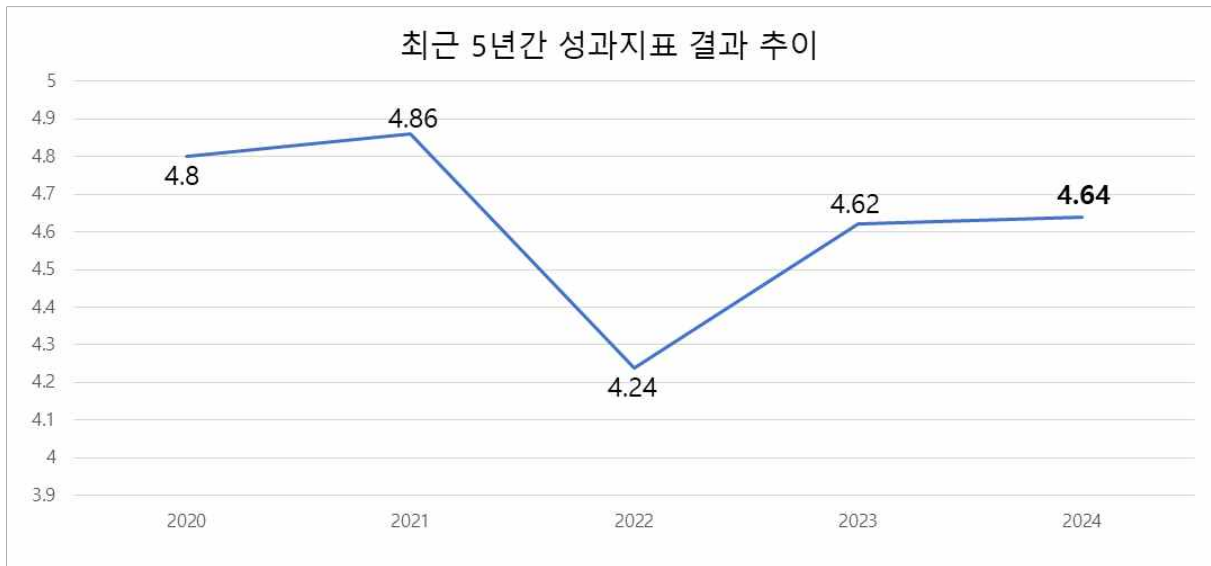
항목명	설문
정책만족도	위 과제는 우리 국민의 삶에 필요하다.
	위 과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내용이 적절하다
	위 과제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위 과제의 추진과 성과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위 과제는 다른 정책보다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위 과제에 대해 만족/불만족 하시거나, 정부가 어떤 부분을 특히 노력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위 과제의 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소통만족도	정책소통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정보가 유용하다.
	정부는 다양한 통로를 통해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한다.
	과제 수행과정에서 정부의 정책소통 노력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보다 나은 정책소통을 위해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해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측정산식 : 7점 만점 기준, 일반 국민 대상 일대일 개별 면접 조사
- 항목별 점수화 : 모든 항목 만족도는 7점 만점을 기준으로 7점 척도를 활용함

매우불만족	불만족	약간불만족	보통	약간만족	만족	매우만족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 '24년 측정결과

- 2024년 성과지표는 4.64점으로 전년대비 0.02p 증가



□ 성과분석

- 재외국민 안전 위협 요인이 다양화·복잡화되는 글로벌 복합위기에 대응해 전문성·적시성 있는 재외국민 보호 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 중동 정세가 악화되어 이스라엘-레바논 접경 지역에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하고, 신속대응팀 및 군수송기를 파견하여 레바논 체류 우리 국민과 가족 97명의 귀국을 지원하였습니다.
- 파리올림픽 계기 우리 국민 여행객 증가를 대비하여 경찰청·소방청 등이 참여하는 정부합동 신속대응팀을 파견하고 임시영사사무소를 운영함으로써 사건·사고 예방활동을 하였습니다.
- 해외안전상황실을 24시간 365일 상시 가동하며 주요 해외 사건사고 및 위난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아이티·뉴칼레도니아 소요사태 등 해외위난상황 발생 시 신속대응팀을 파견하여 적극 대처하였습니다.
- 영사콜센터 무료전화 앱과 위치기반서비스 기능 개선 등을 통해 해외 출국 우리국민의 영사콜센터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고 서비스 안정성을 강화하였습니다.

- ▲사건사고 대응 시 협력하는 관계국 및 국제기구 당국자, ▲주한 공관 대사 및 총영사, ▲해외 치안·재난 관계자 등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영사 분야 양자·다자 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 한-일 외교부 간 제3국 내 재외국민보호 협력 각서 체결하여 제3국에서 위기 상황 발생 시 우리 국민 보호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 정부합동 신속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부·경찰청과 재외 국민보호 협력 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약정을 체결*하고, 해양수산부와 핫라인을 개통하였습니다.
- * 외교부-경찰청 업무약정 체결(7.5), 외교부-국방부 업무약정 체결(7.22.)
- ▲선교단체·여행업계, ▲재외국민, ▲청년 등 재외국민보호 정책수혜자와 현장 소통 행사를 지속 개최하여 양방향 소통 기회를 마련하고, 우리 정부의 노력을 홍보하였습니다.
- 코로나19 이후 해외 방문·체류하는 우리 국민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 정보 전달을 위해 오프라인·온라인 홍보, 뉴미디어·기존 대중매체 홍보를 병행하는 맞춤형 홍보전략을 시행하였습니다.
- * (오프라인) ▲우리국민 출국자 대상 인천공항·서울역 공항철도 해외안전여행 캠페인, ▲공항철도 역사 광고, ▲아시아나항공기 기내 스크린 광고, ▲「서울국제관광전」 계기 영사콜센터 홍보 부스 운영 등
- ** (온라인) ▲파리올림픽 계기 인플루언서 활용 홍보 동영상, ▲해외안전여행 YTN 유튜브 콘텐츠, ▲
- *** (대중매체) ▲YTN 「해외안전여행정보 방송」, ▲국민일보 「해외선교·성지순례 안전 기상도」, ▲파리올림픽 계기
-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해외안전여행 콘텐츠 개발을 위해 경찰청과 함께 「제4회 해외에서 겪은 사건사고 경험담 공모전」을 개최하였습니다.
- ※ 대상작(외교부장관상) “까망콩싹의 전신마비 이야기”는 유튜브 조회수 147만 뷰 달성

- 워킹홀리데이 참여 가능 연령 및 대상국을 확대하여 우리 청년의 해외 진출 및 글로벌 인재로의 성장을 지원하였습니다.
 - 「청년기본법」 상 규정된 청년 연령 범위(19세 이상 34세 이하)에 워킹홀리데이 참여 가능 연령이 일치하도록 덴마크(4.3) 및 독일(12.30.)과 양해각서 및 공동성명을 개정(18세 이상 30세 이하 → 18세 이상 34세 이하)하였습니다
 - 룩셈부르크(7.3.)* 및 라트비아(7.31.**)와 신규 양해각서 및 협정을 체결하여 우리 청년들이 워킹홀리데이를 참여할 수 있는 국가를 다양화하였습니다.
 - * 룩셈부르크 : 18-35세의 양국 국민 각 100명 참여 가능
 - ** 라트비아 : 18-34세의 양국 국민 각 100명 참여 가능
- 양자 영사협의회 개최를 통해 영사 분야 현안 전반에 대해 논의하고 양국 영사 분야 실질 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 ▲ 제6차 한-태국 영사국장회의(2.22., 서울) ▲ 제11차 한-몽골 영사협의회(5.9., 울란바타르), ▲ 제11차 한-베트남 영사협의회(7.9., 서울), ▲ 제2차 한-인도 영사협의회(8.28., 뉴델리) 개최
- 우리 국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해외여행 지원을 위한 여권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였습니다.
 - 여권 재발급 신청이 지자체 여권사무 대행기관 및 공공 웹·앱(정부24)에서 뿐 아니라 국민은행 모바일앱(KB스타뱅킹)에서도 가능하게 되어 민원인의 편의성·접근성을 제고하였습니다.
 - 여권정보 진위확인 서비스를 민간에 공개하여 여행사 등 기업에서 고객 여권 정보의 실시간 검증으로 잘못된 정보 입력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방지하였습니다.
- 여권 발급시 납부하던 국제교류기여금이 인하를 통해 여권 발급 비용을 인하(3~5천원)하여 우리 국민 약 200만 명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 여권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여권 발급 서비스에 대한 평가 및 여권업무 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한 개선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 2023년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라, ▲여권 사진 검증 절차 개선, ▲신원확인수단 다변화, ▲여권안내 홈페이지 콘텐츠 강화 등 2024년 여권 업무 정책에 국민들의 목소리를 여권정책에 반영 하였습니다.
-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알림서비스를 통해 여권 민원 업무의 편의성을 향상시켰습니다.
- 장기 미수령으로 인해 폐기되는 여권 권수가 매년 증가하는 문제해결을 위해 여권 발급일 기준 4개월 경과 시점에 미수령한 여권 명의인에게 장기 미수령 여권 수령 안내 알림서비스(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세지) 시행하였습니다.
-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알림을 국민비서를 통해 민원인이 선호 하는 플랫폼으로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안내 알림을 신청할 수 있어 민원 편의성을 제고하였습니다.

□ 향후 추진계획

- 2025년 제2차 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향후 재외국민 보호 정책의 기본원칙과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보다 촘촘한 재외 국민보호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 해외에 있는 우리 국민을 신유형 범죄 및 사건·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재외국민보호체계를 고도화하고, 외국·관계부처·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 영사콜센터 상담시스템내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을 통해 해외 사건·사고 및 위난 1차 접수창구로서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재외국민 보호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워킹홀리데이협정 개정 및 신규 체결국 확대를 통해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영사협력을 통해 해외 방문·체류 우리 국민의 안전과 편익을 증진하겠습니다.
- 우리 여권의 안정적 발급, 지속적인 여권 법제 개선 및 다양한 여권민원 서비스 발굴 등을 통해 우리 국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해외여행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성과지표

국정과제(98) 종합만족도 조사 결과

□ 성과지표 개요

〈 지표명 〉

- 개념 : 국정과제에 대한 일반국민/정책수요자의 만족도를 조사
- 조사기관 : 한국행정연구원 (한국리서치)
- 조사대상 : 일반국민 (12,000명)
- 조사방법 : 설문조사 (온라인/대면)
- 측정산식 : 7점 척도 (1점: 매우 부정, 2점: 부정, 3점: 약간 부정, 4점: 보통, 5점: 약간 긍정, 6점: 긍정, 7점: 매우 긍정)

□ '24년 측정결과

- 국정과제(98번)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 추진」 정책만족도는 4.46점을 획득하였습니다.
- 2023년도 국정과제 98번 정책만족도는 4.53점이었습니다.

□ 성과분석

- (1) G7, G20, APEC, OECD 등 다자 경제협의체 주도적으로 참여 및 경제협정 체결을 통해 우리 경제에 우호적인 대외환경 조성
 -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G7·G20·OECD 등 다자경제협의체에서 △식량안보, △기후변화, △디지털·AI 등 주요 국제현안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했습니다.
 - 2024년 리우 G20 정상회의(11.18.-11.19.)에서 채택된 정상선언문에 우리 중점 추진 의제 4개(무탄소 에너지, 인공지능 거버넌스, 플라스틱 감축, 재정건전성 등)가 반영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회의를 계기로

‘글로벌 기아빈곤 퇴치연합(GAAHP)’에 가입을 선언하며, 국제사회에 대한 우리의 기여를 강조하고 국격을 제고하였습니다.

- 올해 G7 의장국인 이탈리아의 초청으로 우리 외교장관이 제2차 G7 외교장관회의(11.25.-11.26.)에 참석하였습니다. 동 회의에서 러북 군사협력과 관련한 G7과의 공동 대응을 포함한, 한-G7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OECD에서는 인공지능(AI) 관련 국제규범 형성 논의에 적극 참여하였습니다. OECD 각료이사회(5.2.-5.3.) AI 관련 세션에 참석하여 우리 입장을 설명했으며, OECD 글로벌전략그룹회의(GSG)(10.15.-10.16.) AI 관련 세션에 선도발언국으로 초청받아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 2024년 페루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해 아태지역의 공동번영 및 경제협력 강화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2025년 APEC 의장국 수임을 위한 기반을 다졌습니다.
 - 2024년 페루 APEC 정상선언문에 우리 관심사(우리 주도 역량강화 사업 확대, 무탄소 및 탄소중립 자원 활용, 2025년 APEC 의장국 수임 기대 표명 등)를 반영하고, 각료급회의 및 고위관리회의에서 우리 사업 및 이니셔티브를 제안하며 APEC에 대한 우리 기여를 강화하였습니다.
 - 2025년 APEC 의장국으로서 APEC 장기비전 등을 고려하여 주제 및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서울에서 개최한 2025년 APEC 비공식 고위관리회의(ISOM)(12.9.-12.11.) 계기 주제 및 중점과제를 발표하여 회원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 *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Building a Sustainable Tomorrow) : 연결(Connect), 혁신(Innovate), 번영(Prosper)
-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준비위원회를 국무총리급으로 격상하고, △경상북도 경주시를 정상회의 개최지로 최종 선정 △「2025년 APEC 정상회의 준비 기본계획」을 의결하여 2025년 APEC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항공, 사회보장, 세관 분야 경제협정의 제·개정을 통해 우리 국민·기업의 해외 진출 및 실질적인 혜택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2024년 경제협정 서명·발효 성과>

구분	내용
서명(5건)	▲(투자) 바레인(12.26), ▲(이중과세) 키르기즈스탄 개정(12.3) ▲(항공) 짐바브웨(6.2), 가이아나(12.5) ▲(사회보장) 모로코(6.2),
발효(9건)	▲(이중과세)튀르키예(7.21), 르완다(12.19) ▲(항공)에스토니아(6.7), 페루(12.13) ▲(사회보장) 노르웨이(6.1), 필리핀(4.1), 베트남(1.1) ▲(세관)우즈베키스탄 개정(2.24) ▲(경제협력) 투르크메니스탄(1.27)

- 아울러,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제도(ISDS) 개혁, OECD 투자논의 등 국제경제규범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 국익 반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 양자 경제협력 심화를 통한 경제안보 협력 기반 조성

- 급변하는 대외경제환경 속 우리 기업과 국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며 수출·수주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 정상외교 및 고위급 교류를 활용하여 원전, 방산, 인프라 등 분야 우리 기업의 실질적인 수출·수주 성과를 전인하였습니다.
- 경제 6단체 순회 면담 등 전례 없이 긴밀한 현장 소통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애로를 적극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였습니다.
- 외교부 내 대외 경제정책 추진의 컨트롤타워인 ‘수출·수주 외교 지원 TF’를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원전·방산·인프라 등 분야별 맞춤형 지원을 체계화하고, 수출·수주 현황 및 성과를 점검하였습니다.
- 아울러, ▲재외공관장과 기업인 1:1 상담회 개최(4.25.) ▲해외진출기업 지원 사례집 발간(4월, 98건) ▲경제정보 접근성 개선* 등 현장 중심 지원 정책을 지속 강화하였습니다.

* (경제동향·입찰정보 홈페이지 게시) 2023년 387건 → 2024년 1,025건

- 또한, 재외공관에서 해외진출 우리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기업지원 활동강화사업 ▲현지 법률 상담을 위한 법률 자문서비스 ▲해외진출기업 CSR 지원 사업 등을 내실화하였습니다.
- 특히, 전 세계 17개국 25개 재외공관에 「중소벤처기업 지원 협의체」를 신설(5월)하여 애로사항 해소, 현지 정보 제공 및 네트워크 구축 등 우리 중소기업의 글로벌시장 진출을 지원하였습니다.
- 미국, 일본, 유럽국가 등 주요 우방국들과 공급망, 핵심기술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중국과도 안정적 공급망 관리를 위한 소통을 강화하였습니다.
- 美 대선 전후 대외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에 빈틈없이 대비하고자 유관부처·업계와 상시 소통체계를 구축하여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선제적으로 분석하고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모색하였으며, 우리 대미 투자 기업이 계속해서 안정적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미측과 긴밀히 협의하며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습니다.
- 한일 고위급 교류(5월, 11월 등) 및 고위경제협의회(12월) 등을 계기로 미래지향적 경제협력 기반 강화를 지속해나가는 동시에, 민간협력을 견인하여 실질 협력 확대를 지원하였습니다.
-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EU와의 공동위(3.21.) 및 체코(5.23.)·폴란드(9.10.)·스페인(11.27.)·포르투갈(11.29.)과의 경제공동위 개최를 통해 경제 실질 협력을 심화하고, 주요 EU 경제입법에 대해 사안별 우리 입장을 적극 개진하여 우리 기업의 이익 보호 및 애로사항 해소에 기여했습니다.
- 한중 고위급 교류(5월, 11월 등) 및 경제공동위(12월) 등 다층적 협력 채널 가동을 통해 중국과의 공급망 안정화, 무역·투자 확대 등 경제협력 강화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였습니다.
- 캐나다와는 제1차 한캐 국장급 경제정책대화(5.3.) 및 외교·산업 2+2 국장급 경제안보대화(7.24.)를 개최하여 주요 경제안보 현안을 논의하고 양국간 실질 경제협력 확대를 지원하였습니다.

- 또한, 최초로 한-영국 경제·사이버 안보대화(9.6.) 및 한-네덜란드 경제안보대화(6.21.)를 개최하여 유럽 주요국과 공급망 등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 재외공관 조기경보시스템(EWS)을 통해 경제안보핵심품목 중 1등급 품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적시 대응 및 전파를 통해 공급망 위험을 조기에 파악하면서 교란 발생 시 신속 대응하고 있습니다.
- 경제안보외교센터(CESFA) 운영을 통해 정책 분석 보고서 발간, EWS 모니터링, 민관협력 및 국제협력 사업 진행 등 능동적 경제안보외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청정에너지 전환 및 첨단산업 발전에 필수적인 핵심광물의 글로벌 공급망 강화를 위해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의장국으로서(7월~) 국제적 협력을 주도하고, MSP 사업 확대 및 촉진 등 가시적 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가 워킹그룹 의장국으로서 주도중인 탄자니아 마헨게(Mahenge) 흑연 채굴 사업은 포스코 투자 계약 체결(9.3.)에 이어 '25.3월경 착공식을 계획 중으로, MSP 출범 이래 구체 진전에 이른 최초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3) 기후변화·환경·과학기술 등 글로벌 이슈 협력 제고

- AI·퀀텀·바이오 등 핵심신흥기술 분야에서 적극적인 과학기술 외교를 통해 국제규범 형성을 선도했습니다.
- "AI 서울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AI 분야 유일한 정상급 합의문인 「서울 선언」을 도출하고 안전·혁신·포용 의제를 제시하며 국제 AI 규범 형성을 선도했습니다.
- '퀀텀개발그룹'에 참여하여 미국 등 유사입장국과 퀀텀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 'AI-바이오과학 협력써밋'에 참여해 AI-바이오 선도국과의 체계적인 협력의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 UN 기후협상 및 양·다자 협의체에 참여해 파리협정 국제탄소시장,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 등 기후변화 대응 선진 규범 수립 논의를 선도했습니다.
-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 정상회의(11.13), G20 정상회의(11.19.) 등 정상급 회의 계기 우리 주도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에 대한 적극적 아웃리치를 통해 지지국을 11개국으로 확대하고, CFE 이행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글로벌작업반 출범에 기여했습니다.
- 주요 개도국과 양자 기후변화 협력 협정 체결 및 既체결 협정 이행을 통해 양자 기후협력 확대 및 우리나라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국제감축분 확보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 특히, UAE(5월), 모로코(6월), 페루(6월), 라오스(10월), 키르기스스탄(12월) 등 5개국과 협정 신규 체결 및 방글라데시(3월), 조지아(6월) 등 2개국과 가서명으로 협정 체결 대상국을 확대했습니다.
- 또한, 베트남과 최초로 제1차 공동위 개최(6월)를 통해 국제감축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세부 규칙 협의 가속화에 합의했습니다.
- 외교부는 유엔 플라스틱 협약 협상 총괄부서로서 협상 타결을 위해 분과회의 공동의장 수임, 주요국 수석대표 연쇄 회동, 중재안 제시 등 협상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제5차 협상위원회 회의(INC-5)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글로벌 플라스틱 오염 대응을 위한 국제규범 수립을 주도하였습니다.
- 특히, INC-5(11.25~12.1, 부산 벡스코)는 금년 개최된 국제행사중 최다국인 178개 유엔회원국 정부대표단과 31개 국제기구, 산업계,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 약 3,000명이 참석한 회의로 회의장 조성, 출입국, 회의 운영 등 모든 면에서 철저한 준비를 통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 우리 주도로 설립한 국제기구인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에 대한 2024년 기여를 1,200만불→1,350만불로 약 10% 증액하는 등 국제사회의 저탄소 녹색전환을 지원하는 녹색 사다리로서 글로벌 리더십을 제고하였습니다.
- 또한 중앙북극해 비규제어업방지협정(CAOFA) 제3차 당사국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6.10-12, 인천)하고 환경부KOTRA 협력하에 「한-카자흐 물 산업 협력사절단」(9.9-13, 아스타나, 알마티)을 파견하는 등 북극·해양 수자원 다양한 분야의 국제 환경 규범 및 거버넌스 수립에 선도적으로 기여하였습니다.

□ 향후 추진계획

- 외교부는 지정학적 경쟁과 글로벌 경제질서의 분절화 등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속에서 식량안보, 디지털·AI전환 등 다양한 글로벌 현안들의 해결을 위해 유사입장국과의 공조를 강화해나가겠습니다.
 - 특히, 규범기반 국제질서의 수호를 위해 자유시장경제, 민주주의 등 가치를 공유하는 G7 등 유사입장국과의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아울러 G20·OECD 등 주요 글로벌 경제협의체에 적극 참여하여 포용적 성장, 디지털 거버넌스 등 우리 관심 분야에서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국제 규범이 형성되어 갈 수 있도록 논의를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 2025년 APEC 의장국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하여 아태지역 내 경제협력 증진을 도모하고 국제경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 특히 AI 협력, 인구구조 문제 등 민생과 밀접한 이슈에 대한 APEC 내 논의를 선도하고, 국가신인도 제고 등 실질 성과를 거양해 나가겠습니다.
- 투자보장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항공·해운협정, 사회보장협정 등의 경제협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국민과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국익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우리 기업의 수출·수주 지원을 위해 유관 부처·업계와 긴밀히 소통을 하며 현장 중심의 지원을 강화하고, 우리 기업이 안정적으로 해외 활동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나가겠습니다.
- 미국, EU, 중국, 일본 등 주요국과 각급에서 긴밀히 협의하며 경제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감으로써 우리 국민 경제에 실질적인 이익을 지속 확보하겠습니다.
- 공급망 안정화·다변화 등 주요 경제안보 현안에 적극 대응하고 우리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능동적 경제안보외교를 추진해나가겠습니다.
- UN 등 기존 국제협약체 논의와 함께 AI 정상회의, 퀀텀개발그룹 등 신규 소·다자 협의체에도 적극 참여하여 핵심신용기술 분야의 국제 거버넌스 및 규범 논의를 선도해나가겠습니다.
- 특히, "AI 서울 정상회의" 계기 채택된 「서울 선언」을 기반으로 국제사회에서 AI 논의가 안전, 혁신, 포용의 균형 속에 진행되도록 참여해나가겠습니다.
-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추진력 유지를 위해 유관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우리 국익을 반영한 기후 규범 형성에 기여하고, 기존 공약 이행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 기후변화 관련 양·다자 협의체 참여, CFE 이니셔티브 관련 아웃리치 등을 통해 주요국과의 협력을 심화하고 기후 리더십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 또한, ‘녹색사다리’ 역할을 통해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지원하고, 기후변화 협력협정 체결국 확대 및 既체결국과의 협정 이행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국제사회의 저탄소 녹색경제 전환 및 지속가능한 발전 관련 논의를 주도하여 우리의 리더십을 제고하고, 유엔 플라스틱 협약 추가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북극·해양생물다양성 등 글로벌 환경 문제 해결과 거버넌스 강화에 선도적으로 기여하겠습니다. /끝/